현대불교

제 773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3월 3일 수요일 (음력 1월 18일 · 불기 2554년 · 주간)





전통사찰 관리 허술 '경악'

대구 대성사 10년 전 철거 신축

대구 중구 유일의 전통사찰인 대성사가 철거 · 신축된 사실이 10여 년이 지나서야 밝혀져 전통사찰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영천 은해사 말사인 대구 대성사는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인 광문사터이다. 1993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관광부)로부터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라는 역사 · 문화적 가치가 높이 평가돼 전통사찰로 지정됐지만 2002년 철거 · 신축됐다. 전통사찰이 철거된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2007년 국채보상운동 기념비가 세워지는 동안에 대구시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다.

전통사찰보존법 등 현행 법규상 화재 등으로 전통사찰이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될 때 시 · 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사찰 지정을 해제한 후 철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성사는 은해사 측에서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철거했다.

이에 대해 은해사 측은 "당시 건물이 심하게 노화돼 관리가 안 될 지경에 이르러 철거시킨 것으로 안다. 특히 (공구상가가 위치한) 주변 환경 때문에 철거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전통건물 양식의 대성사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철거했다는 은해사측 해명은 억지"라면서 "견지동 조계사를 비롯해 숭인동 청룡사 등 도심 전통사찰 중 현재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건물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전통사찰을 훼손해도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느슨한 처벌 조항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구 중구청 문화관광과 허동정 주임은 "(전통사찰이라 해도) 소유자가 정리한 것을 법적으로 강제 조치할 방법이 없다. 관계법에도 과태료 처분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문화재계는 "그나마 전통사찰이나 돼서 과태료 처분 조항이라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문화유산위원장은 "근대 등록문화재이던 서울시청이 2008년 백주대낮에 철거된 사례만 봐도 문화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며 "이번 대성사 사건은 전통사찰이 문화재관리의 사각지대임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은해사를 비롯해 관계기관 등에 모든 책임이 있지만 이제 와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은 무의미 하다"며 "대성사를 여법하게 장엄하고, 대구시와 협의해 인근 부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일보 등 지역 언론들도 대성사 사건은 사찰의 전통사찰 관리 마인드 부재와 관계당국의 책임회피식 떠넘기기 행정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대성사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교계 안팎에서는 "이번 대성사 사건을 전통사찰 등 문화재 전수조사의 계기로 삼아 문화재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동섭 기자



오로지 한 마음으로… 불기 2553년 기축년 동안거 해제일인 2월 28일 2244명(비구 1196명, 비구니 844명, 총림 204명) 대중은 전국 97개 선원(총림 5곳, 비구선원 59곳, 비구니선원 33곳)에서 한철을 나고 새로운 만행길에 올랐다. 사진은 동안거 해제를 앞두고 25일 충남 계룡 국제선원 무상사(주지 대진)에 방부를 들였던 스님과 내 · 외국인 재가불자 70여 명이 석 달 동안의 수행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12면

박재완 기자

승려재산령 올 하반기 시행

조계종 "3월 임시종회서 법령 개정해 9월 하안거부터 실시"

종단에 유언장을 내고 사후 사유재산을 종단에 출연키로 하는 '승려 사유재산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이하 승려재산령) 시행이 올 하반기로 늦춰졌다.

조계종 총무원은 2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3월 임시종회에서 법령을 개정해 9월 하안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개정의사를 밝힌 것은 시행에 앞서 종단 안팎의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당초 총무원은 3월 1일 시작되는 분한신고에서 유언장 등을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승려가 환속, 제적, 사망했을 경우 종단에 귀속된다"고 명시한 승려법 규정을 두고 문중 등 종단구성원의 거부감이 표출되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총무원은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까지 교구 본 · 말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3월 분한신고에서는 자율적으로 유언장이 접수된다.

주무부장인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스님들의 사유재산이 세속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으로, 일부 스님들이 종단 출연 부분에 오해하고 있다"며 "종단에 귀속한다는 것을 종단 및 소속 본사, 본인이 주지로 있는 사찰, 문중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개정안 발효 시 현실적으로 종단 출연이 줄어 승가공동체 공동기금 마련 및 재단 설립의 실현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령 개정 방침에 대해 본 취지를 잃지 않기 위해 집행부가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東大 약학대 20명 정원 배정

28년 만의 약학대학 정원 증원에서 동국대가 선정돼 20명 정원을 배정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은 2월 26일 "2011학년도 약대 신설 및 정원 배정 최종심사에서 1차 심사에 통과한 19개 대학 중 15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동국대가 약학대 신설 대학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조계종은 "동국대의 약학대 선정은 종단과 동국대가 함께 이룬 성과"라며 환영 논평을 냈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교과부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동국대가 약대를 유치한 것을 2000만 불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신계사 성지순례 3월 실무접촉

조계종이 3월 초 심양에서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과 실무접촉을 갖고 신계사 성지순례를 계속 추진한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혜경)는 2월 22일 브리핑을 열고, 남북불교계의 실무접촉 무산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사회부 관계자는 "18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17일 저녁 통일부에서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 지원의 책무를 지닌 통일부의 이번 입장이 아쉽다. 통일부에서 신계사 성지순례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시점에 대해 난색을 표한 만큼 성지순례를 지속 추진할 계획"고 말했다.

조계종은 이번 통일부 방침과 별개로 신계사 성지순례와 5월 부처님오신날 남북합동법회 등을 진행하기 위해 3월 경 심양에서 조불련과 회담을 갖고 포괄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알림

새봄, 감성 일깨우는 새 연재

현대불교신문이 산뜻하게 다가갑니다

현대불교신문이 3월 새봄을 맞아 산뜻한 분위기의 편집으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새 연재물로 독자 여러분의 신심을 북돋고 감성을 자극할 것입니다.



● 만화_ 요절복통 여래네 집

세상을 살짝 비틀어보면 평소에는 몰랐던 장면들이 뒤뚱뒤뚱 걸어나옵니다. 여래네 집은 바로 나의 집입니다. 만화적 감성으로 그려낸 희노애락이 바로 화두이며, 일상에서 마주치는 얼굴들이 부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 최연의 산 이야기

산은 산 이상의 무엇입니다. 사람살이를 보듬어주는 터전이며, 겸허를 가르쳐주는 교사입니다. 또한 사찰이 그곳에 있으니 부처를 이루는 도량입니다. 이 계곡과 저 강 그 사이에 저며 있는 이야기를 통해 사람과 산과 불교의 조화로운 관계를 묻습니다.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강원도 영월 망경대산. 첨단이 아니고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지금에도 소를 몰아 밭갈이하는 웅숭깊은 산입니다. 세상에서 한 발짝 떨어져 사는 이만이 전해줄 수 있는 느릿느릿한 웅얼거림이 무디어진 감성의 속살을 간지럽혀 줄 것입니다.



● 서동석의 가슴으로 만난 그 곳-월1회

발 내딛는 곳마다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리네 삶을 크게 요동치게 했건만 산은 여전히 우뚝하고 물은 하향합니다.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픔입니다. 되뇌어야 비로소 풀어지고 거름이 됩니다. 혹시 그곳을 지나치다 잠깐 잔잔한 눈길로 보아주면 됩니다.



G20 Seoul Summit

THE YEONGSANJAE CEREMONY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G-20 정상회의 2010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영산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2010. 3. 11 (목) 오후 2시

주관 : 2010영산재 봉행위원회,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주최 : 한국불교태고종 전국신도회

초대의 글



불. 법. 승 삼보전에 귀의하옵고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지절에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에서는 '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2010영산재'를 봉행합니다.

'G-20정상회의' 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커다란 규모의 국제적인 회의이고 단군 이래 최고의 경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G-20정상회의' 의 의장국 자격에서 주최국까지 겸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세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국운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태고종의 총본산 봉원사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에서 관리하는 '영산재' 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2010영산재" 는 우리나라 불교문화예술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법요이오니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2010년 2월

2010영산재봉행위원장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박인공** 합장

전국신도회장 인사 올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새 봄을 맞이하는 날,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전국신도회장 유윤순' 인사 올립니다.

부처님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G-20정상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2010영산재"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G-20정상회의" 의 유치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우뚝 서게 되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운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모두가 한 몸이 되어 앞으로 나아갑시다.
서로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한국불교태고종 전국신도회장 **유윤순** 합장

2010영산재봉행위원회(02-739-3450),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02-392-3007), 태고종전국신도회(02-720-3133)

중승대, 도서관 건립 예산 50억 확정

승가학원 이사회의에서 2010년 법인 예산 24억 3500만원과 학교 예산 90억 1470만원이 확정됐다. 또, 학교 예산 중 절반 이상인 50억원을 중앙불교도서관 건립에 사용하기로 했다.

승가학원(이사장 자승)은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87차 이사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회의에서 승가대 기획실장 김응철 교수는 "올해 중앙승가대 예산은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예산 편성 기조를 설명했다.

학교 예산 90억 원 중 수입은 종단 예산 18억8000만원, 기부금 12억여 원, 등록금 수입 18억여 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석인 이사 5인에 대한 선임도 이뤄졌다. 이사회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을 비롯해 개방형 이사에 총무부장 영담 스님, 기획실장 원담 스님, 교육부장 법인 스님을 선임했다.

조동섭 기자

"상생 정치로 국민에게 희망달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국회정각법회서 당부

세종시 문제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정치권에 상생과 순리에 따른 정치를 펼칠 것을 주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인년 국회정각회 신년법회'에서 "최근 정쟁으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 정각회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상생의 정치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심(公心)이다. 공심이 사심(私心)으로 변하면 경쟁에서 떨어지기 마련이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청렴성을 잃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또 스님은 "그동안 종단이 다툼으로 인해 불자들은 자부심과 자신감을 상실했다"며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불자후보에는 종단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병국 정각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현안에 따른 여야 갈등을 불이심(不二心)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정각회원들은 보시와 봉사의 정신으로 이타행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 스님(왼쪽 두번째)와 정각회장 최병국 국회의원(왼쪽 첫 번째) 등 사부대중은 상생과 소통의 정치를 발원했다.

이어 정각회, 국회직원불자회, 보좌관 법우회원들이 모금한 '아이티 지진참사' 성금 1만불이 자승 스님에게 전달됐으며, 강창일 정각회 부회장의 국운융창을 기원하는 발원문 낭독으로 법회가 마무리됐다. 법회에 앞서 자승 스님은 국회 정각선원을 참배했다. 법회 후 법회동참자들은 의원식당에서 조찬을 함께 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기획실장 원담 스님, 사서실장 경우 스님, 기획국장 만당 스님 등 조계종 스님들과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이연숙 조계사 신도회장, 하복동 공불련 회장, 조창희 문광부 종무실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각회 국회의원 중에는 최병국·안홍준·강창일·이계진·최재성·권선택·최재성·김태환·김해성·배은희·송광호·이진복·이해봉·임동규·정갑윤·정해걸·조문환·김재경·이은재·신명철 국회의원, 박계동 국회사무처장이 참여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東大 이사 선출 갈등 불씨 되나

종관위 결정에 월정사 "기여도 인정하라" 반발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일관, 이하 종관위) 회의에서 동국대 이사 후보에 종책모임 스님들이 후보로 결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종관위는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79차 회의에서 동국대 이사 임기만료 예정된 영배 스님(3월 만기) 후임으로 범해·정호 스님을, 정념 스님(5월 만기) 후임으로 선각·종호 스님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배 스님 후임으로 범해 스님(서울 개운사 주지) 정호 스님(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정우 스님(양산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前 통도사 주지)가, 정념 스님 후임으로는 도완 스님(영월 법흥사 주지) 현각 스님(원주 성불원 주지·조계종 초심호계위원) 선각 스님(합천 해인사 주지) 종호 스님(중앙종회의원)이 후보로 올랐다.

종관위 스님들은 이견 끝에 투표로 종회에 상정될 후보를 선출했다.

지금까지 동국대 이사는 동국학원 설립시 삼보정재를 보탰던 교구본사별 지분이 보장돼 왔지만, 이날 이사 후보 선출은 통도사 지분(영배 스님)과 월정사 지분(정념 스님)과는 무관하게 이뤄졌다. 특히 선출된 이사후보 스님들이 모두 보림회(범해·종호 스님)와 화엄회(정호·선각 스님) 소속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중앙종회와 동국대 이사회에서 어느 계파의 누가 이사로 낙점될지에 따라 향후 조계종 정치 판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동국대 이사회에서 지분을 잃은 통도사와 월정사 문중과 종단 간 갈등도 예상된다.

한 종회의원 스님은 "이번 종관위의 결정으로 제33대 집행부를 탄생시킨 종단 내 계파간 연대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동국대 이사후보에 월정사 스님이 배제되자 당장 월정사 스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월정사 스님들은 성명서에서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제33대 집행부가 출범한 때 합리적인 이유와 대중적 동의 없이 기존의 합의와 불문율이 무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국대 이사후보 선출에 출자 사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토지처분금 교구본사에서 활용

교구본사 주지회의 요청따라 관련법 개정

조계종 총무원은 제33대 집행부들어 첫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2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9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건 △사찰토지 처분금 활용 건 △사찰등급 및 분담금 조정 건 △조계종 4개년 발전계획 관련 건 △국립공원 제도개선 관련 건 △승가교육 진흥위원회 보고의 건 등 상정된 14개 안건 가운데 '사찰 토지처분금의 효과적 활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사찰 토지처분금은 교구본사별 토지처분금 총액과 상관없이 총무원이 중앙에서 관리·분배토록 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교구본사가 총무원과 공동 예치해 적립한 뒤 해당 교구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변경됐다.



제33대 집행부 첫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각 교구본사는 종책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는 교구본사별 빈부 격차 해소 및 종단 목적불사 재원을 마련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크게 후퇴해 무분별한 토지처분을 막는 수준에서만 그치게 됐다.

한편, 총무원은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종법 개정안을 마련해 3월 8일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10·27법난 명예회복 나서

천태종, 정산 스님 기자회견 열어

천태종이 그동안 묵빈 대처해온 10·27법난 피해 명예회복에 나섰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2월 25일 천태종보 금강불교신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7법난으로 실추된 종단 명예회복에 진력할 것을 밝혔다.

천태종은 법난 당시 종정 대충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총무부장 등 종단 주요직 스님들이 모두 연행돼는 수모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태종은 이중 당시 교무부장이던 덕산 스님과 비구니 명성 스님은 현재까지 투병중이라고 밝혔다.

정산 스님은 "당시 종정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등 11명이 연행돼 28일 동안 보안사에서 수모를 당했다. 그 후 석암 총무원장이 1년 실형을 받는 등 상징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천태종의 이번 명예회복 신청은 정부의 공식접수가 3월 17일 마감됨에 따라 천태종 피해사실이 당시 조사 내용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결정됐다. 이에 천태종은 1월 23일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에 '10·27법난 피해극복소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천태종이 공개한 소청서에는 △피해당사자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법난극복법회' 정부관계자 참여 및 재발방지 약속△법난극복 불망탑(비) 조성 지원 △법난극복 사회복지관 건립지원 등의 요구사항이 명시됐다.

노덕현 기자

"원종 스님 기득권 버려야"

관음사 사태, 승언 스님 등 입장서 발표

최근 수년간 송사에 시달려 온 제주 관음사가 간담회에서 前 주지 스님 상좌 '도둑놈'이라 비판한 것에 승언 스님 등 관음사 前 주지 측 스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왼쪽부터 유방·혜경·승언·세등 스님.

종회의원 승언 스님과 김해 성조암 세등 스님, 천축사 유방·혜경 스님은 2월 25일 종로구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멸빈된 중원 스님(관음사 前 주지) 상좌스님들의 입장을 밝혔다.

승언 스님은 "관음사 사태로 은사인 중원 스님은 멸빈의 징계를, 나머지 소임자 등 스님 8명은 공권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받았다"면서 "멸문지화를 당해 문중이 풍비박산 났음에도 관음사(원종 스님) 측이 사실무근의 발언으로 문중까지 비판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스님들은 "당시 관음사 측 간담회에서 문중스님들을 '도둑놈'이라 거론한 것은 관음사 땅을 팔기 위한 명분 쌓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종 스님이 물러나야 관음사 삼보정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남겼다.

조동섭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 일승종 제11대 종정 **능허혜정** 예하 · 제15대 총무원장 **월공정태** 대종사 **취임**

제11대 종정 **능허 혜정** 대종사

기획부종정 **혜허 혜득** 대종사 승정부종정 **진허 혜인** 대종사

총무원장 월공 정태 대종사

기획원장 : 문공 승정원장 : 월하 승보원장 : 혜성
규정원장 : 경보 포교원장 : 법성 교육원장 : 봉덕
총무부원장 : 동화 승정부원장 : 법정 승보부원장 : 정수
기획부원장 : 거암 포교부원장 : 도성 교육부원장 : 정휴
재무부장 : 자운 승보부장 : 용기 승정부장 : 혜광
기획부장 : 정개 규정부장 : 정치 사회부장 : 정법
총무부장 : 원명 호법부장 : 보광 교화부장 : 선주
자료부장 : 광명 교무부장 : 여연 종책부장 : 법천

원로원장 : **범공 정법** 원로부원장 : **법 일, 정 덕**
원로의원 : 법륜, 용법, 인환, 혜암, 선재, 대허, 무장, 불광, 묘암, 남강, 범공, 혜인, 묘정, 연화, 일성, 운봉, 혜월, 각화

중앙종회의장 : **일공 길상** 대종사
종회부의장 : **봉 덕, 법 륜**
의 원 : 청감, 월암, 법보, 원봉, 일조, 정도, 만공, 대성, 정관, 경덕, 탄공, 흠공, 천공, 시공, 대원, 리공, 원공, 자운, 무공, 홍공, 연각, 명공, 소공, 서공, 정공, 도공, 건공, 묘공

교구종무원 - 강원교구종무원장 : 법 일 대구경북교구종무원장 : 문 공 경남교구종무원장 : 여 관 광주전남교구종무원장 : 효 정
부산교구종무원장 : 법 담 울산교구종무원장 : 거 암 재일본교구종무원장 : 곡 우

◆ 총무원주소 - 경기도 구리시 교문1동 346-18. 전화 031-562-2751, 2752. 홈페이지 - www.ilseung.or.kr

군불교 비전 21로 불국토 꿈꾼다

군불총 창립 10주년… "사병·군장성 등 군불자 관리 시스템 시급"

군불교 최대 신도조직인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박정이 중장, 이하 군불총)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2월 26일 충남 계룡대에서 봉행된 군불총 10주년 기념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을 비롯해 전군 군법사, 전 · 현직 불자 장성, 일반신도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참석했다.

군불총은 2000년 2월 25일 육 · 해 · 공군 각 부대별로 독자 운영되던 불교신도회를 통합해 창립됐다. 군불총 회원은 군의 씽크탱크인 장성 · 장교 등 직업군인들로 구성돼 그동안 군포교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왔다.

타종교에 비해 뒤쳐진 포교현장에서 이를 극복하는 데는 불자 장성과 장교들의 역할이 지대했다. 군불총은 군종교구와 함께 호국영령천도법회, 영규대사 추모대제, 성지순례 등 군사찰을 중심으로 한 굵직한 군불교 행사를 이끄는 한편 전군 차원의 신도조직화를 위해 예비역 및 준 · 부사관 불자회, 장성 부인회인 성보회, 2007년 미주지역본부를 창립하는 등 군내 신행공동체를 구축해왔다.

현재 현역 및 예비역 군불자 15만 명이 활동하고 있는 군불총은 '비전 21'의 명제 하에 불교진흥과 군 정신전력 강화의 장기적 지향목표 이룩한다는 방침이다. 군내 · 외 신행



군불총 창립10주년 기념법회에서는 군장성 · 간부불자 180여 명을 비롯한 군불자 600여 명이 참석해 국운융창을 기원하며 활발한 신행활동을 다짐했다. 법회에서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김홍배 소장을 비롯한 군포교 진흥 공로자 6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여건 변화에 맞는 신행조직과 활동 혁신으로 군불교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비전21'은 크게 △호국불교 전통계승 △군종교구 연계활동 강화 △전군 신도조직 네트워크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군불총의 미래는 장성불자가 주축이 돼 군불심을 이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함께 또 다른 과제를 낳는다.

범종단 차원의 군불교 지원여건 조성이 그것이다. 현재 군불총에 대한 종단 지원은 교구와의 연계 외에 군불총 후원을 위한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군불총은 2008년부터 월정헌공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군불총은 후원조직을 확충하기 위해 현역 군불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예비역 간부들과 지역 군사찰과 연계해 본부 및 지구회 단위 후원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군불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군불자 정보화 및 신도관리 전산화가 필수다. 현재 군종교구는 장군불자 및 영관급불자에 진급 시 여의봉 · 화환 등을 전달하고 위관장교 및 부사관 등에는 수계첩 및 기념품을 지원하는 등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전 · 출입 · 전역을 연계한 군내 신도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한 군포교 전문가는 "전역 후 수계사병을 관리하는 신도관리 시스템과 더불어 군장성 및 군장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며 "포교원 등과 연계해 지역사찰 신행과 맞물린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러 종교들이 총성 없는 포교전쟁을 치루고 있는 군포교. 육군훈련소 연무사 신축불사 등의 큰 과제를 안은 군포교 앞날에는 장성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호국불교의 전통 계승과 국가수호의 주역이라는 사명감 속에 전군을 이끄는 군불총. 군불총의 미래에 군포교가 달려 있다.

노덕현 기자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 Shop
사은품 증정

주욱기 145,000
전화 02)2004-8216

'4대강 개발 대안 없나?'

불교환경연대·에코붓다 4일 심포지움

불교환경연대와 에코붓다는 3월 4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4대강 개발 다른 대안은 없는가'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불교 · 생명분야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에의 건전한 비판과 생태적 개발 대안을 학술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행사는 △불교적 관점(서재영 불학연구소 연구원) △생태적 관점(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 △사회문화적 관점(이도흠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정치경제적 관점(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의 4개 분과로 나눠 진행된다. 또, 에코붓다 유정길 공동대표는 이날 환경활동가들을 비롯한 참여자들에게 '생태적 발전을 위한 원칙과 권고'를 제안할 예정이다. (02)720-1654

박선주 기자

줌머인연대 기자회견 경찰 난입

재가연대 "공권력 위법 집행" 논평



2월 24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방글라데시 정부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지만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무산됐다.

방글라데시 줌머인들의 참상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장을 경찰이 강제 해산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연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재한줌머인연대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 · 시민단체들은 2월 24일 서울 방글라데시대사관 앞에서 방글라데시 정부군의 줌머인 학살과 방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찰은 기자회견이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참석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교단자정센터(대표 김원보) 손상훈 국장과 사회당 최광은 대표 등 5명을 강제 연행했다.

같은날,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는 논평을 통해 "무참한 살인 · 방화가 자행되는 방글라데시에 항의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막은 경찰의 진압은 공권력의 위법한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재한줌머인연대에 따르면, 2월 19~20일, 방글라데시 정부군이 치타공 바가이차리 지역의 줌머인 마을을 습격해 최소 7명이 사망하고, 마을 10곳에서 사원과 교회 등 200채의 가옥이 파괴됐다.

박선주 기자

진흥원, BBS에 공개사과 촉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 이하 진흥원)이 최근 BBS불교방송(이사장 영담)에 부당한 비난 공격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한 사과 요구 촉구 공문을 전달했다.

진흥원은 2월 25일 제136차 이사회의에서 BBS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개사과 및 시정 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키로 결의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BBS의 일부 직원들이 그동안 기자회견, 방송보도 · 기사 등을 통해 진흥원에 대한 폄훼와 모독을 일삼아 왔다"며 "인격권과 명예훼손 행위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종교편향 해설 중단 제갈성렬씨 사과

2010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해설 중 종교편향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제갈성렬(40)씨가 2월 25일 사과와 함께 해설 위원직을 하차했다.

제갈성렬씨는 24일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만m 경기에서 이승훈 선수의 금메달이 확정되자 "주님께서 허락해주셔서 금메달을 땄다"고 말했다.

같은 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혜경 · 손안식, 이하 위원회)는 SBS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사과 · 징계를 요구했다. SBS는 "이번 발언은 올림픽 방송 기획의도와 정면 배치된다. 시청자들께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결국 제갈씨는 SBS를 통해 "중계방송 시 너무 흥분해 무심결에 종교적 발언을 했다"며 "자중하는 의미로 방송중계를 마치겠다"고 사퇴의 뜻을 전했다.

박선주 기자

"사형제 합헌 유감" 불교인권위 성명

사형제 합헌 결정에 불교계가 "살인이 합법화 될 수는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광주고법이 제기한 '사형제 위헌 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불교인권위(위원장 진관)는 26일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는 국가의 의무"라며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인권위는 "국가의 모든 법과 통치제도는 지혜롭고 자비로워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형제 합헌은 1996년에 이은 두 번째 결정이다. 한국은 지난 14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돼 왔다.

박선주 기자



죽비와 목탁

캠퍼스 포교 업그레이드 절실

대학 캠퍼스에 봄이 찾아왔다. 학교 동아리며 각종 학원, 스터디 그룹 등 새내기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캠퍼스 봄 풍경의 하나다. 전국 160여 대학에서 활동중인 불교학생회도 새내기 법우를 모으기 위해 치열한 포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에서 올해를 캠퍼스 포교를 위해 내놓은 히든카드가 템플스테이다. 행사는 3월 26~28일 충주 석종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열어 새내기들에게 법향을 전한다는 거룩한 뜻을 담고 있다. 아쉽게도 공간부족으로 참가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됐다. 게다가 다수의 동아리가 새내기 행사에는 "새내기는 몸만 오세요"라며 '공짜'가 대세지만 대불련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려면 새내기도 회비 4만원을 내야한다.

대불련 홍보를 위한 포교 기념품은 더욱 아쉽다. 지난해 핸드폰 고리 등을 주던 것이 다행히(?) 올해는 여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얼굴피지조절 기름종이와 접착식 메모지가 선정됐다. 각종 홍보물품이 길거리에서도 넘쳐나는 지금, 대불련이 야심차게 마련한 홍보물품이 얼마나 많은 학생을 발심시킬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노파심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수량도 넉넉지는 않다는 점이다. 대불련이 마련한 물량은 전국 158개 지회에 100개 씩이다.

학생의 저조한 참여율이 템플스테이 행사의 걸림돌이라면 무료쿠폰을 나눠줘도 좋을 것이다. 전국 등록 100여 템플스테이 사찰과 협의해 캠퍼스 포교기간을 정하고, 참가하는 대학생에게 관련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종단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하다.

'술과 밥'으로 후배들을 끌어모으는 배고픈 시대는 지났다. 학생들의 변화만큼 그들의 요구 수준도 높은 요즘이다. 대불련이, 불교학생회를 포교의 블루오션으로 만들려면 불교계가 그들에게 먼저 푸른 꿈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귀의삼보하옵고
오는 **6월 18일** 대각교단에서 국제전수금강보살계를 봉행하고자 세계불교승가회 세계고승들을 초빙하여 재가불자들에게 금강보살계를 전계함으로 보리심을 증장시키고 한국불교를 널리 선양 불법홍포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國際傳授金剛菩薩戒壇阿闍梨尊證師團
국제전수금강보살계단아사리존증사단

名譽說戒師 : 悟明大長老 (永久名譽世界僧伽會會長)
오명대장로 (영구명예세계승가회회장)
淨心大長老 (世界華僧會會長)
정심대장로 (세계화승회회장)
覺光大長老 (香港佛教聯合會會長)
각광대장로 (홍콩불교연합회회장)
說 戒 師 : 道成大禪師 (前海印寺住持)
도성대선사 (전해인사주지)
萬翁大禪師 (前海印寺住持)
만옹대선사 (전해인사주지)
得戒阿闍梨 : 淨良長老 (中華民國佛教會會長)
정량장로 (중화민국불교회회장)
羯磨阿闍梨 : 覺醒大禪師 (中國佛教副會長)
석각성대선사 (중국불교부회장)
教授阿闍梨 : 慧雄大禪師 (世界佛教僧伽會秘書長)
혜웅대선사 (세계불교승가회비서장)
授經阿闍梨 : 妙淨大法師 (濠洲佛教會長)
묘정대법사 (호주불교회장)
依止阿闍梨 : 明光大法師 (台北佛教會長)
명광대법사 (대북불교회장)
開堂 和尙 : 寂默大和尙 (大覺教團事務總長)
培堂 和尙 : 慧峰大和尙 (地藏禪宗宗正)

尊 證 師 : 能戒大和尙 (慈福寺方丈)
능계대화상 (오대산자복사방장)
慧禪大和尙 (留雲禪寺方丈)
혜선대화상 (유운선사방장)
大願大和尙 (六祖寺方丈)
대원대화상 (육조사방장)
惠謙大和尙 (圓光佛學院副院長)
혜겸대화상 (원광불학원부원장)
長工大和尙 (仁禪寺方丈)
장공대화상 (인선사방장)
世澄大和尙 (太平岩寺方丈)
세징대화상 (태평암사방장)
宏正大和尙 (法印寺方丈)
굉정대화상 (법인사방장)
프라마하大僧正 (마하츄라롱大學副總長)
마다파다僧正 (마하피리벤나사원학장)
보페까마테로大僧正 (와다나라마야사원)
프라슈딘나비데스대승정 (와타이달마람사원)
解超大和尙 (少林宗總務院長)
그 외 다수 국내외 고승대덕

佛戒律淵源 (불계율연원)에 법호를 기재하오니 尊證師 (존증사) 또는 引禮師父 (인례사부) 하실 대덕큰스님들은 신청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3월 1일부터 ~ 3월 30일까지 신청마감 ▶

◈ 특별수계자는 가사, 장삼을 수여합니다.
◈ **수계 받을 불자들은 4월 30일까지 신청마감**
◈ 각 종단 및 각 사찰별로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응화세존 3037년 남전열반 2554년 6월 18일 (음 5월 7일) 오후 1시
■ 장 소 : 대구시 엑스코 인터불고호텔 국제연회장
■ 후 원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본부)
■ 협 찬 : 불교TV방송. 현대불교신문.
■ 동참불자 : 약 5,000명

대각교단 국제전수금강보살계 봉행위원회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122. 4F 대각교단
사무처 : ☎ 053)325-5288. 팩스 325-4848. 010-6306-0082
開堂和尙 / 寂默 能仁和南. 培堂和尙 / 解峰 慧峰和南

일주문



포교원 신도전문교육기관 실무워크숍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2월 24~25일 태화선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신도전문교육 실무자 워크숍을 실시했다.



배삼룡 빈소 조문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2월 23일 타계한 불자 원로 코미디언 배삼룡 씨의 빈소를 조문했다.



불교환경연대 2010 정기총회

상불교환경연대 대표 수경 스님은 2월 26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2010년 정지총회를 개최하고, 4대강 사업 관련 대응 등을 논의했다.



광덕 스님 11주기 맞아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2월 25일 불광사 보광당에서 '금하 광덕대종사 11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우리는선우 열린법석

강남포교원 원장 성열 스님은 3월 6일 우리는선우 열린법석에서 '업설은 물리법칙이 아니다'를 주제로 법문한다.



선광 스님 불우이웃돕기

대구 안일사 주지 선광 스님은 2월 11일 오후 대구 남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달라며 2000명 분의 국수를 전달했다.



제15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실시

박상필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3월 5일까지 제15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연수생을 모집한다. 연수기간은 3월 20일~10월 9일이다. (02)722-2206



참여불교재가연대 아이티구호 동참

김동건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는 2월 26일 아이티구호기금 56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선출

참여불교재가연대 김원보 공동대표가 2월 25일 제11대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조계종 산악인연합회 출범

조계종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회장 양춘동)가 2월 19일 공식출범했다. 산악인연합회에는 전국적으로 4천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교육 · 문화 종단으로 이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태허 스님 뜻이어 제2창종"

"개산조 태허 스님 선양 사업을 시작으로 관음종이 교육 · 문화 종단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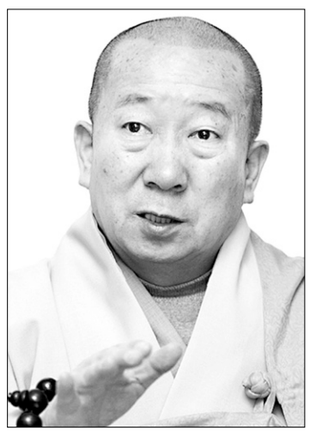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대한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 서울 묘각사 주지 · 사진)은 2월 24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 같이 밝혔다.

관음종 개산조 태허 스님은 해방 전에는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돕고, 한국전쟁 이후 종로 탑골공원서 거리설법과 라디오 서울에서 법문하는 등 대중교화에 힘쓴 선지식이었다.

홍파 스님은 "올해 음력 8월 25일은 태허 스님 탄생 104주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창종기념일을 전후해 유문집 발간과 기념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태허 스님의 유문집은 묘각사에 남겨진 스님의 육필 원고 8000여 매를 정리한 것으로, 관음종은 2년 전부터 유문집 발간을 준비해왔다. 기념학술대회는 불교학자 10여 명에게 과제를 청탁해 연구가 진행 중이다.

홍파 스님은 "유문집 발간과 기념학술대회 개최 후에도 지속적인 개산조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가칭)태허사상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 종단이 추진하던 사업들도 계속 시행된다.



스님은 "관음종의 전통인 음력 10월 신곡맞이 법회를 활성화해 지방 사찰과의 총무원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해마다 외국인을 초청해 진행해 온 한국불교전통문화 체험사업에 올해는 일본인 교사 30여 명을 초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종도 의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종단 정체성 강화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홍파 스님은 "최근 관음종 불교성전 제8회 개정증보판 1만부를 출간, 배부해 <법화경> <화엄경>을 중심으로 한 관음종 종지를 통해 종도들이 부처님 가르침과 사상을 올곧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3월 22~24일에 열리는 제34차 주지연수회에서는 관음종의식 통일을 위한 재교육과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포교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4년 전부터 묘각사에 서울불교문화대학을 열고 관음종도의 교육기관으로 활용해 왔다. 특히 스님들은 2년 과정의 의무교육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종도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함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제2의 창종을 한다는 각오로 대중행사에 치중하던 종단 사업기조를 교육 · 학술로 바꾸려 한다"면서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음종은 <법화경> <화엄경>을 중심으로 보살 운동을 주창하는 종단으로 국내 720여 사찰과 해외 3개 사찰이 등록돼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동화사, 장학회 발족 및 장학금 전달식



동화사 봉황장학회는 선문 스님의 제의로 각계 스님들의 뜻이 더해져 발족했다.

동화사 봉황장학회(회장 정혜)는 2월 25일 동화사 화엄당에서 장학회 발족 및 제1회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장학회는 동화사 승가대학 학인스님 7명에게 5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봉황장학회 회장 정혜 스님은 "한국불교와 동화사를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 인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장학회를 확대 ·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봉황장학회는 기금을 적립해 매년 봄 · 가을 동화사 학인스님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지구촌공생회, 아이티서 봉사활동



지구촌공생회 미국서부지회 봉사단이 아이티의 한 고아원을 방문해 아이들을 격려했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 봉사단이 아이티 현지에서 지진참사 복구에 나섰다. 지구촌공생회 미국서부지회 봉사단(지회장 현철, 이하 봉사단) 소속 단원 5명은 2월 16~ 24일 아이티 고아원 '러빙 핸드 미니스트리'를 방문해 미화 3000달러 상당의 쌀과 구호품을 전달하는 한편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지구촌공생회는 3월 16일 의료진으로 구성된 2차 봉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박선주 기자

무비 · 세민 스님 명박



조계종 前교육원장 무비 스님(사진)과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이 각각 1 · 2호로 중앙승가대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승가대(총장 태원)는 2월 25일 제28회 학위수여식에서 명예박사 2명을 비롯해 석사 7명, 문학사(학부) 62명에게 학위를 전달했다.

무비 스님은 해인사 불교전문강원 대교과를 졸업했다. 부산 범어사 · 양산 통도사 강주 등을 역임한 무비 스님은 승가대학원 초대 원장과 조계종 4대 교육원장을 지냈다.

제2호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세민 스님은 동국대 교육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총무원 재무부장 · 중앙종회 의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대원학술상 시상도 진행됐다.

조동섭 기자

총무원 중심으로 힘 모을 것

능해 스님 제5대 보우승가회 회장 취임

2월 27일 태고종 보우승가회 5대 회장으로 취임한 능해 스님은 "구종 원력과 포교 애종심으로 종단발전과 사회역할을 다하는 보우승가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보우승가회는 2000년 호명 스님을 초대회장으로 한 자발적 결사로 출범해 종단현안에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원각사 보우승가대 설립, 전몰장병 위령제 및 군 위문법회 봉행 등 후진양성과 다양한 대사회적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날 스님은 총무원 집행부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종단발전에 헌신할 것을 밝혔다.

스님은 "새 집행부가 출범해 전 집행부의 잘못된 일들을 조사하고 있으니 명명백백히 밝혀 질 것"이라며 "환골탈태하는 총무원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종단 위상 제고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스님은 "혹독한 겨울 동장군도 결국은 남쪽 훈풍 한 자락에 물러가는 법"이라며 "종책오류를 지적해 불난 세력으로 매도됐지만 정법구현, 하심화합을 통해 지속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에는 4대회장 도산 스님을 비롯한 보우승가회 임원진과 총무원 부원장 법현, 화경 스님, 법규위원장 혜공 스님, 교육위원장 수암 스님, 강원종무원장 백운 스님, 제주종무원장 복혜 스님, 서울북부종무원장 호명 스님, 인천종무원장 홍제 스님, 종무조정실장 도각 스님, 규정부장 구산 스님 등 종단 중진 스님들이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 혜철 충청지사장

한국불교법사대학, 100명에 법사품수



100여 명의 법사들이 21일 열린 법사법위 품수식에서 포교를 통한 불교 중흥을 발원하고 있다.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지일)은 2월 21일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18회 졸업 및 법사법위 품수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품수식에서는 1년 과정의 법사와 2년 과정의 대법사 100명이 법위를 수여받았다.

남이농협, 석문사 미혼모센터 등 도와

충북 청원군 남이농협(조합장 이길웅)은 2월 24일 청원 석문사 미혼모센터 등 관내 복지시설과 독거노인가구에 10Kg 420포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은 독실한 불자인 이길웅 조합장과 농협 직원들의 신심에 의해 관내 농협주유소 준공식에서 모은 찬조금 800만원이 사용됐다.

혜철 충청지사장

대 불 교 조 계 종 창 종 선 포 문

근계시하, 공유컨대 교조 석가모니의 유지를 받들어 종조 신라 원광국사께서 한국 조계종맥의 정통성을 계승하사 가섭영역에서 종당(宗幢)을 선양하심으로부터 구산문이 열개(列開)하고 5교파가 병립하여 선교풍교학이 광역에 광선 유포하더니 고려의 성쇠와 함께 교세가 부진을 거듭하여 태고 보우국사께서 제종을 포섭하사 조계의 종맥을 근대에 고양코져한다. 본종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대승불교의 성불도생을 실천하고 수행과 교화에 전념하며 제가 대중들이 삼보를 외호하고 각자의 수행에 전념하는 새로운 풍토를 선양하고자 한다. 본종은 석가모니의 자각각타, 견성성불, 심외무불을 사회속에 회향하여 종단의 청정성과 삼보호지의 가풍을 진작코자 한다.
본종단은 천재대도의 세 운세를 맞아 부처님의 선지식을 통해 불교 잠재력을 결집하며 한국불교의 체질을 새롭게 유신하고 재구축하여 한국불교의 정상성을 되찾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범종단 단체 및 전국사암 대표들이 지역간 상호협력을 통해 동체대비를 실현하고 각 지역에 내재된 불교발전 잠재력을 극대화 하여 다문화를 포용해 미래 성장동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적으로 제시하여 전국 불교단체지도자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의 동반자 사회운동을 제창하고자 종단을 창종하고자 한다.
종도 대중은 불조의 혜명을 광선유포하고 본뜻을 받들어 실천 수행하여 이땅의 불일(佛日)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를 삼라만상 법계에 유전케 하라.
삼가 불조의 가호아래 우리 조계법계 만대의 향상일로와 무궁무진한 부사의의 번영을 기원한다.

불기 2554년 2월 15일

- 대불교 조계종 창종위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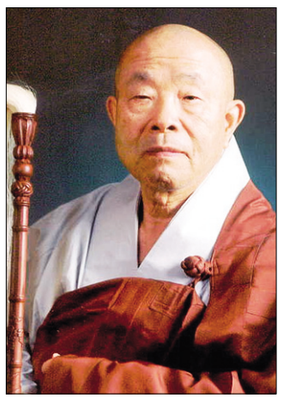
오봉 남장 보성 보엽 진산 향천 천호 지공 성안 대원 해심
진성 해능 무공 석보 지호 성희 청허 혜안 청해 혜명

◆ 총무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학생회관 1길 29호 전 화 : 041)551-5537 / 팩스 : 041)621-5537

기축년 동안거 해제 법어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굽음은 곧음을 감추지 못 한다



흥화존장(興化存獎) 선사에게 후당(後唐)의 장종(莊宗)황제가 물었습니다.

"짐이 중원을 평정하고 보물을 한 개 얻었는데, 아무도 값을 매기지 못합니다."

"폐하의 보물을 잠깐 보여 주소서."

황제가 두 손으로 복두건(幞頭巾)의 끈을 들어 보였더니 선사가 말했습니다.

"군왕의 보물을 누가 감히 흥정하겠습니까?"

달마 대사가 양나라 무제를 찾아간 것은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염관(鹽官) 선사와 선종(宣宗)임금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것은 함께 안목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해와 달이 때를 맞추어 뜨고 진다면 광채가 있는 곳의 따스한 바람결은 꽃과 나무를 서로 감화시킵니다. 이처럼 인왕(人王)과 법왕(法王)이 서로 만날 때엔 서로의 위치에서 걸맞는 문답이 있어야 제격인 법입니다. 어쨌거나 전륜성왕의 상투 속에 있는 구슬을 경솔하게 남에게 함부로 보여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숭산혜안(崇山慧安) 선사는 '여하시조사서래의(如何是祖師西來意)'를 묻는 납자들에게 "자신의 서래의(西來意)는 묻지 않고 왜 남의 서래의(西來意)만 묻고 있느냐?"고 도리어 힐난했던 것입니다. 마조선사 역시 "자기 집에 있는 보물창고는 돌아보지도 않고서 더욱이 그 집마저 버리고서 밖으로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으니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일갈했던 것입니다.

보물을 보여 달라는 흥화 선사의 질문에 장종황제는 두 손으로 복두건(幞頭巾)의 끈을 들어보였을 뿐입니다. 그러자 선사는 '어느 누구도 군왕의 보물을 흥정할 수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문에서 흥화 선사는 황제의 공부경지를 긍정한 것입니까? 긍정하지 않은 것입니까? 만일 인정했다면 흥화의 안목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만약 인정하지 않았다면 흥화의 허물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해제 이후에도 만행하면서 동안거 한 철 동안 챙겼던 '자가보장(自家寶藏)'을 제대로 챙기기만 한다면 그 해답을 바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불엄위(眞不揜僞)하고
곡불장직(曲不藏直)이라
참은 거짓을 가리지 않고
굽음은 곧음을 감추지 못한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적시면 처음 모습으로 돌아오네

入山何所爲(입산하소위)
永斷世俗事(영단세속사)
現今解三冬(현금해삼동)
且問何處去(차문하처거)
입산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세속의 인연 아주 끊었겠지
이제 동안거 해제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本來出紅塵(본래출홍진)
宜居與世人(의거여세인)
非好淤泥裏(비호어니리)
不惡靑山水(불오청산수)
본디 세속에서 왔으니
마땅히 사람 속에 살아야지
진흙 속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산골 물 싫어하지 않는다네.



몹시도 추웠던 지난 겨울 내내 조계산 대장군봉 아래서 천고의 가치를 찾아 여러분은 차디차게 얼어버린 구들을 녹였습니다. 끓어오르는 세속 일에 대한 미련을 엉킨 실타래 끊어내듯 끊어버리고 더 이상 번뇌의 마장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담금질하여 진금을 찾아내는 연금(鍊金)을 한 것입니다.

대문을 활짝 열고 뛰쳐나가 세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 생각하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던 봄바람이 어느덧 문밖에 서성이고 있음을 여러분은 스스로 알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추위를 피해 숨어들었던 풀꽃들이 피어나 나지막이 불어대는 영산회상의 피리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구석구석 살펴보고 읊조리지 못하는 풀꽃이 있거든 자비의 샘물을 아끼지 말고 뿌려주십시오. 태고(太鼓)소리 널리 퍼지게 하십시오. 그 소리 듣고 넓디넓은 자비(慈悲)로 멀게 하십시오. 그러면 또 보일 것입니다. 새롭게 피어나는 풀꽃생명이 보일 것입니다.

林壑淸閑風(임학청한풍)
不如蒸汗沙(불여증한사)
勿辦露與雨(물판노여우)
漸頭還初風(점두환초풍)
골짜기 부는 맑은 바람
사막의 찌는 모래보다 못해
이슬이면 어떻고 비면 어떤가
적시면 처음 모습 돌아오는데.

'오직 할 뿐' 그 마음으로 수행

국제선원 무상사 해제 현장… 영·한·러·중 4개 언어 공안집 마련

화두참구와 만행, 그 끝은 어디일까? 깨달음은 멀지 않은데 수행의 길은 끝이 없었다. 지난 겨울, 전국의 산사에서는 수행자들의 용맹정진 열기가 겨울 추위를 무색케 했다. 3개월의 안거 동안 무겁게 내려져있던 빗장이 열렸다. 100일간 동안거의 끝, 세상을 도량 삼아 만행을 떠나는 새출발을 알리는 신호였다.

해제를 앞둔 2월 25일 충남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수행현장이 공개됐다. 봄비가 대지를 깨우고 있었다. 혹독했던 추위가 한 순간에 풀렸지만 무상사 선방에는 수행자들의 기운이 가득 차 있었다.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

무상사는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렸던 숭산 스님(1927~2004 · 前 화계사 조실)이 선택한 터에 전법제자 대봉 스님이 불사한 국제선원이다. 무상사에는 내 · 외국인, 승려, 수녀, 일반 재가자들의 수행공간으로 한국의 여느 선원과 같이 해마다 2번 안거가 진행된다.

수행정진은 종교에 구애받지 않는다. 종교도 국적도 초월한 곳이 무상사다. 불자라면 100% 불자로 선수행을 하고 기독교인이라면 100% 기독교인으로 선수행을 하라는 것이 이곳의 기본 가르침이다.

올해 개산 10주년을 맞이하는 무상사는 반듯한 사격을 갖추고 있다. 대웅전, 선원동, 요사채를 비롯 최근에는 산신각도 지었다. 하지만 10년 전과 지금, 무상사 대중의 수행 정진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무상사 주지 대진 스님은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지도하고 '나란 누구인가'의 화두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한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직 모를 뿐'인 것이다.

계룡산의 특별한 기운은 외국인에게도 유명하다. 한번 이곳을 왔다간 국내외 출 · 재가 수행자들은 무상사의 특별한 기운과 한국인에게 느껴지는 정감을 따라 매년 끊임없이 찾아들고 있다.

올해는 스님 11명, 재가자 내 · 외국인 재가불자 70여 명이 동안거에 참여했다. 동안거의 하루는 새벽 3시 도량석으로 시작된다. 한국 전통 선방과 다를 것이 없었다.

매일 좌선 10여 시간, 108배, 아침예불, 차담이 진행됐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선문답 시간이 진행됐다. 일요일 한차례 대봉 스님의 법문시간도 마련됐다. 주말에는 주말 수행 정진에 참가하는 수행자도 함께했다.

수행기간에는 엄격한 규칙도 적용됐다. 출 · 재가자가 함께하고 여러 국가에서 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래 선방의 규칙이 엄격하듯 무상사도 마찬가지다. 성도재일을 앞둔 1월 15~21일에는 집중수행기간으로 가행정진도 진행됐다.

눈 푸른 납자 무상사 조실 대봉(大峰) 스님은 백호띠다. 스님의 눈은 백호의 푸른 눈보다 빛나고 있었다. 1984년 출가 후 결제를 한 차례도 놓치지 않고 이어 온 대봉 스님에게 해제와 결제는 어떤 의미일까?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가 있으면 음식을 주는 것이고 고통을 받는 자가 있으면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결제는 이러한 것입니다."

맺힌 곳이 있으면 풀고, 풀린 곳이 있으면 맺는 것이 해제와 결제라는 말이다. 대봉 스님은 흐트러짐 없는 꼿꼿한 자세로 대답을 이어갔다.

"만약 마음속에 '나'라는 것이 있으면 결제와 해제는 다른 의미입니다.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면 결제와 해제는 다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할 뿐'이라는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안거를 직접 체험해보십시오. 나 자신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수행자들이 모이기에 선문답 시간은 재미난 시간이라고 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뉴질랜드를 비롯해 체코,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스페인, 폴란드 등 숭산 스님 때부터 형성된 국제네트워크를 통해 수많은 국가에서 수행자들이 찾아오고 있다.

대진 스님은 "영어도 못하고 한국도 못하는 러시아 · 중국인 등에게는 별도의 통역자가 필요하다. 통역을 해도 서로 뜻을 주고받기 위한 소통의 과정 자체도 재미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무상사 선문답 시간은 유난히 길다. 영어, 한국, 러시아, 중국어 공안집을 마련해 놓고 외국인들에게 참선 지도를 하고 있다.

뉴질랜드 영어강사 스티븐 데븐포트(41)씨는 올해 네 번째 안거에 동참했다. 스티븐은 주지스님에게 '밥은 왜 먹는가'라는 화두를 받았다. 그는 "수행을 하면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맑은 정신이 드는 것과 같다"며 "가시적인 효과로는 선택의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력으로 빨리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에서 온 베라 흐루쇼바(48)씨는 체코에서 선원운영도 했다. 5년째 선수행을 하러 한국에 오는 이유에 대해 "한국인과 함께한다는 것과 한국 선방의 특유의 기운"이라고 설명했다.

대봉 스님은 안거 이후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가르침을 실천하러 떠난다. 3주간은 미국에서, 2주간은 유럽에서, 그 후 1주일은 러시아 선원에서 참선지도와 함께 봉축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글=이상언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해외 WORLD

미 · 중 관계악화 원치 않아

달라이·오바마 면담 후 갈등… 티베트 독립당위성 확인


달라이 라마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월 18일 백악관 맵룸에서 면담하는 모습. 출처=백악관 홈페이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의 비공개 면담으로 미 · 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두 나라간 갈등이 향후 수개월간 더 악화될 개연성이 있다"며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자신감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달라이 라마와 오바마 대통령은 2월 18일 백악관에서 면담을 가졌다. 미국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언론의 취재를 막으면서까지 비공개로 면담을 진행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티베트가 중국으로부터 종교 · 문화 등 정체성을 지키는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들이 면담한 직후인 19일 새벽 외교부 홈페이지에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 명의의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마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이 여러 차례 표명한 엄중한 항의의 뜻을 무시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의 면담을 의도적으로 강행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8년 달라이 라마와 접견을 하면서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이들의 회동을 막기 위해 프랑스 리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중 · EU 정상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중국의 엄청난 보복을 받은 프랑스를 지켜보면서도 오바마 정부가 강력하게 달라이 라마의 면담을 추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은 현재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적자로 취약한 경제 상황에 있다. 반면 중국은 2009년 기준으로 196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고, 세계 외환보유액의 30% 가량인 2조3990억 달러를 보유해 4년째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을 압박하며 세계 최강의 자리를 엿보고 있다.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제너럴모터스(GM)와 같은 미국 대표 기업에 막대한 재정을 지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국채를 모두 팔아 버린다면 미국이 입는 타격은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2조 달러의 국채를 보유한 중국은 위협적인 존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의 나라'였던 미국이 수출을 늘려 재정적인 여유를 되찾고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중국은 요지부동하고 있다. 2008년 프랑스의 경우처럼 '무역보복', '국채보복'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1월 29일 대만에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67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2월 25일 중국 국방부 황쉐핑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과 대만에 군사협력의 철회를 요청하며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에 연달아 자극을 주었던 미국은 '달라이 라마 접견'으로 중국의 가장 민감한 부위를 건드린 셈이 됐다.

미국과 중국이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2월 18일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백악관 맵룸(map room)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 대통령 집무실은 상징성이 매우 크지만 맵룸은 비정치적인 일반인을 면담할 때 주로 쓰이는 곳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이 중국에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말한다. 이 같이 생각한 데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인 미국의 니미츠호의 홍콩 입항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민감한 상황에도 미국의 배를 입항시킨 것은 중국이 긴장의 수위를 그만큼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중국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돼봤자 서로가 잃는 것은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과 달라이 라마의 회동에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두 정상이 만남으로써 티베트는 한번 더 국제적 관심과 독립에 대한 당위성을 얻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나은 기자

다문화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한국다문화센터, 제1회 다문화 이중언어 경진대회… 박선화 · 왕쭝징 대상



다문화 이중언어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수상자들이 상장을 보이며 웃고 있다.

"통 · 번역사가 돼 한국과 일본의 문화차이를 올바르게 전하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피부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혼혈인을 차별하지 말고 글로벌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대할 때 비로소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양준태 군(17 · 순천 제일고)이 유창한 한국어 · 일본어 실력으로 150여 청중들 앞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전환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 · 김의정)는 2월 25일 서울 중구 매일경제신문 12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최초로 '제1회 다문화 이중언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매일경제신문사 주최, 한국다문화센터 · 배화여대 주관으로 열린 경진대회에는 양준태군과 같은 다문화가정 자녀와 부모 80여 명이 한국어와 제2 모국어 실력을 뽐냈다.

이날 열린 행사는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능력을 강화하고, 다문화 자녀의 이중언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선 스님은 "이주민의 한국사회 통합과 다문화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육성을 목표로 추진된 것으로 전국적 차원에서는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중언어 경진대회는 성인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치러졌다. 성인부 참가자는 중국 일본 베트남 키르키스탄 우즈벡 몽골 등 7개국 출신의 결혼이주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40여 명이 참가했으며, 학생부는 일반 초중고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정 자녀 40여 명이 참가했다.

성인부 참가자들은 한국문화와 한국적응기 등을 주제로 3분 동안 자유롭게 발표했다. 학생부는 5분 동안 한국어와 제2 모국어를 함께 사용해 △학교생활 △꿈 · 장래희망 △우리가족 소개 중 한 가지 주제를 발표했다.

일본인 엄마를 둔 양준태 군은 한 · 일간의 갈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양군은 "2009년 WBC 한 · 일전 야구 중계를 볼 때였다. 학급친구들이 '누가 이기면 좋으냐?'는 질문을 했다. 가끔씩 날아오던 '독도는 누구 땅이야?'라는 질문과도 굉장히 흡사하면서도 내 대답을 강하게 요구해 당혹스러웠다"며 다문화가정 자녀라면 겪을 법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줬다.

성인부 참가자들은 김치, 절하기 등 낯선 한국 문화 때문에 빚어진 일화를 들려줘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학생부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박선화(9 · 부여 양화초)양은 "대상을 받아 기분이 매우 좋다. 엄마는 태국 사람인데 엄마와 함께 대회를 위해 매일 연습했다. 아빠랑은 한국말로 엄마랑은 태국말로 말한다"고 말했다.

선화양의 어머니 와사나(45)씨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엄마의 모국어도 함께 배우고 싶어 하지만 시댁에서 이중언어 습득을 꺼려한다"며 "이중언어 경진대회가 많아져 아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외국어를 많이 배웠으면 한다. 평소 태국어로 대화한 덕분에 선화는 언어습득능력이 뛰어나다. 현재는 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말하며 학급에서도 1등을 놓치지 않는다"고 자랑했다.

한편 이날 성인부 대상은 왕쭝징(32 · 중국)씨가 받아 고국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사무총장은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아이들은 5개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가진 언어 경쟁력 발휘를 위해서는 이중언어 경진대회같은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 다문화가정에서는 한국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외국 출신 어머니가 아이에게 자신의 모국어 가르치기를 싫어한다"며 "외국어를 할 때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주는 사례가 많아 이중언어 구사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나은 기자

"일본은 공식사죄·배상하라"

나눔의집 피스로드 2010 열려

"일본 정부에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사죄와 배상만으로 할머니의 고통과 한이 풀리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게을리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 대학생 스즈키 켄스케군이 자유발언자로 나서 일본대사관을 향해 외쳤다.

나눔의 집 부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대표 월주)은 2월 21~26일 삼일절을 앞두고 '피스로드 2010 Spring'을 개최했다.

피스로드는 한 · 일 대학생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을 체험하고 위안부 문제를 토론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2002년 시작돼 매년 2 · 8월 두 차례 진행된다.

켄스케군을 포함해 피스로드에 참가한 한국 · 일본 · 대만 대학생 32명은 워크숍 셋째 날인 24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906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시위에 참가했다.

학생들은 5일간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견학, 위안부 할머니와의 만남, 수요시위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이나은 기자

新노인문화 창출 '차별화' 매진

서울노인복지센터 3개년 운영계획 밝혀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는 2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재수탁 협약에 따른 3개년 운영 계획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가섭 스님은 "노년에 들어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유입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보다 차별화 · 전문화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4대목표인 △건강지원강화 △新노인문화 창출 △노인주체의 사회참여 활동 선도 △노인상담을 통한 권익보호를 주요골자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섭 스님은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스님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건강 증진사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복지관형 건강증진센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신속 정확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회원 건강정보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INBEX 2010
www.inbex.kr



2010. 04. 15(목)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 1전시장

주최 | BBS 광주불교방송, 불교신문 광주·전남지사
(주)엑스퍼트

후원 | 금산사, 대흥사, 백양사, 선운사, 송광사, 화엄사, 여수세계박람회범불교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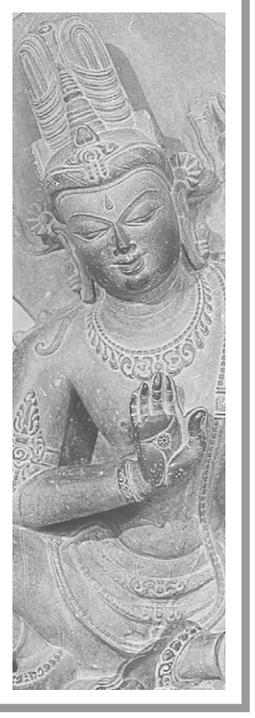
2010국제불교문화박람회
International Buddhism Culture Exhibition 2010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한국 서남부의 중심도시인 광주에서 우수한 호남의 전통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2010년 04월 15일부터 18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0국제불교문화박람회(INBEX2010)를 개최합니다.
2010국제불교문화박람회(INBEX2010)은 호남지방의 독특하고 우수한 전통불교문화를 기반으로 호남의 대찰과 주요사찰들이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불교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며 네트워을 형성하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2010국제불교문화박람회(INBEX2010)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가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전시구성
- 사찰 및 템플스테이 홍보관
- 지자체 관광 및 특산품 홍보관
- 불사용품, 불교용품, 생활용품, 차, 식품
- 사찰건축 · 불교장례 등 불교관련 용품 및 산업 품목

문화행사
- 불교의상 전시 및 패션쇼
- 전국 대학생 우리옷 공모전
- 범패 시연, 법고 시연, 불교무예 시범
- 전통차 시연, 사찰음식 전시 및 시식

참가문의 2010국제불교문화박람회[INBEX2010]사무국
담당 사무국장 박철희 www.inbex.kr E-mail_ inbex2010@naver.com
Tel_ 062) 383-6322 Fax_ 062) 228-9972 H·P_ 010-7191-6322



연구방법 준비에 조사 성공의 성패 갈려

日 오치아이 교수, 금강대 특강서 불교문헌학 연구 노하우 공개

불교사본은 종이를 비롯해 면 나무 대나무 돌 기와 금속 등 다양한 기록매체에 기록된 불교전적을 말한다. 부처님 당시의 원본 문헌을 대신한 불교사본은 불교학 연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될 만큼 학술적 · 역사적 가치는 크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인 불교문헌학 권위자인 일본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 오치아이 토시노리 교수가 '동아시아에 있어서 불교사본의 연구현황과 연구방법'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불교문헌학 연구 노하우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오치아이 교수는 2월 22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가 천태종 관문사에서 '동아시아 고대 불교사본의 연구현황'을 주제로 개최한 초청강연회에서 강연했다.

오치아이 토시노리 교수는 "사본 연구에 있어 가장 긴요한 방법은 실물을 직접 손에 갖고 조사하는 것이지만 문화재적 가치 등으로 대부분의 사본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고 강연을 시작했다.

오치아이 교수는 돈황사본을 예로 들었다. 현존하는 다수의 돈황사본은 대영박물관을 비롯해 프랑스 국립도서관, 중국국가도서관,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양사본연구소 등이 소장하고 있다. 이들 사본에 대한 일반연구자의 열람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

오치아이 토시노리 교수는 "돈황사본을 소장한 다수의 기관에서 학예원(Museum Curator)이 갖는 권한은 막강하다"면서 "돈황사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학예원이 인정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각 소장처만의 돈황사본 보관 규칙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영도서관이 소장한 돈황사본인 스타인본의 대부분이 권자본(卷子本)이지만, 이를 보관하기 위해 대영박물관이 짜 맞춘 특별한 상자에 원래대로 되돌려주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불교사본의 연구방법에 대해 오치아이 교수는 "선행연구 조사와 더불어 불교사본의 실천적인 연구방법도 준비돼야 한다"며 "연구방법 준비에 조사 성공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오치아이 토시노리 교수는 "①조사할 문헌과 선행 조사된 개별 문헌 목록을 입수해 기존 목록에 게재되지 않은 책을 중요점검 목록으로 기록하고 ②사전, 연표, 카메라, 노트북 등을 준비해 사본 하나하나를 철저히 조사해 필요시 촬영과 DB화하고, ③촬영된 연구용 사진을 바탕으로 <대정장> 등 활자본과 비교검토해 그 내용을 다시 새기는 번각(飜刻) 작업을 거쳐 관련 논문을 탐색하고 사본을 윤독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치아이 교수는 "문헌의 실제 연구에서 편견을 갖게 되면 새로운 사본이 눈앞에 놓여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 많다"며 "조사에서 예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23일까지 이어진 행사에서는 일본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에서 오치아이 교수의 지도를 받은 연구원들이 발견한 문헌들이 최초로 소개됐다.

미나미 히로노부 연구원이 발견한 <무량수경술기>는 일본 미노부 분코(身延文庫)에 소장돼 온 고사본에서 찾아낸 신라 의적 스님의 저술이다. 의적 스님은 일본 등 동아시아 불교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알려졌으나, 현존하는 저서는 2부에 지나지 않았다.

또 동 연구원인 띵위엔(定源) 스님은 대영도서관의 미정리 돈황사본에서 발견된 원효 스님의 <기신론소>를 찾아냈다.

오치아이 토시노리 교수는 "의적의 <무량수경술기>는 본서가 일본 학승의 책상에서 사라진 800년만의 발견"이라며 "이번 <무량수경술기> 발견으로 신라불교에 대한 연구가 깊어질 것"이라 말했다. 이어 오치아이 교수는 "돈황사본에서 원효의 <기신론소>가 발견된 것은 원효의 사상이 중국불교에 직접 영향을 준 증거"라고 강조했다.

오치아이 교수는 "돈황사본과 일본 내 문헌들에서 신라불교 저술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며 "사본을 통한 동아시아불교 연구가 인문고전학의 부흥으로 이어짐에 한국 신진 연구자들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미나미 히로노부 연구원이 발견한 신라 의적 스님의 <무량수경술기>(왼쪽)와 오치아이 토시노리 교수.

초월 스님 태극기 문화재 등록

진관사 태극기 등 6종 21점 31일까지 전시



2월 25일 서울역박물관에서 열린 진관사 태극기 특별전 개막식에서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오른쪽)이 전시된 태극기를 보고 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던 백초월 스님의 유품인 진관사 태극기 등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진관사 소장 태극기 및 독립신문류' 6종 21점을 2월 25일 자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진관사 소장 태극기 및 독립신문류'는 지난해 진관사(주지 계호)가 칠성각 해체 보수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독립운동사에 있어 역사적 · 상징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립신문류를 감싼 채 발견된 태극기 1점(가로89cm×세로70cm)은 면직물에 재봉틀로 바느질돼 있고, 중앙에 약 32cm 지름의 태극문양, 네 귀에 건 · 곤 · 감 · 리의 4괘가 갖춰져 있다.

진관사 태극기의 4괘 위치는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가 제정한 국기 양식의 4괘와 동일하나 현재의 태극기와는 위치가 다르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진관사 태극기가 태극기 변천사에 있어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불교계 독립운동의 중요한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진관사는 2월 25일 오후 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들 등록문화재를 3월 14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한다.

조동섭 기자

개운사 아미타여래상 등 5건 보물로

복장 전적 · 갑사 삼세불도 · 백지금광명경 · 통영측우대 지정예고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2월 22일 현존 최고(最古) 중수 발원문이 남겨진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발원문' 등 문화재 5건을 보물로 지정 · 예고했다.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274년이라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중수 발원문(重修發願文)이 남아 있어 1280년에 중수된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더불어 고려후기인 13세기 전반에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불상이다. 또, 세련되고 뛰어난 조각기법과 장중하면서도 균형감 있는 조형, 긴장감 넘치는 선의 묘사 등이 잘 어우러진 매우 완성도 높은 고려후기 불상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腹藏) 전적' 21점은 대부분 신라하대로부터 고려전기의 것으로 현재까지 발견 사례가 없는 매우 귀중한 자료들이다. 이 전적들은 9~13세기에 걸쳐 필사 또는 간행된 <화엄경>들로 진본(晉本, 60권), 주본(周本, 80권), 정원본(貞元本, 40권) 등 3본 <화엄경>이 고루 들어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화엄경> 등 개운사 복장 전적은 시기적으로 희귀한 자료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서예, <화엄경> 판본 연구 및 불교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갑사 삼세불도'는 18세기 초 · 중반 전라도를 중심으로 경상 · 충청 지역에서 활동한 당대 대표적 화사인 의겸(儀謙)이 제작한 불화이다. 현존하는 의겸이 제작한 불화는 21건 30점이다. 이 가운데 길이 4m에 이르는 3폭 형식의 삼불도는 '갑사 삼세불도'를 비롯해 '운흥사 삼세불도' '화엄사 삼신불도' 등 3건에 불과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450cm에 육박하는 대형 화폭에 각 설법장면을 세련되고 유려한 필치, 짜임새 있는 구도와 조화롭고 안정감 있는 색채로 부처의 세계를 장엄하게 묘사한 18세기 전반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보물지정 예고된 개운사 아미타여래상.

'백지묵서금광명최승왕경'은 당나라 의정(義淨)이 번역한 <금광명최승왕경> 10권을 선조의 계비 정의왕대비(貞懿王大妃: 인목대비, 1584~1632)가 아버지 김제남(金悌南)과 아들인 영창대군(永昌大君)의 명복을 빌기 위해 필사한 사경이다. 1622년(광해군 14)에 백지에 먹으로 필사한 경전은 전 10권 10책 중에서 제1권 제1책이 없지만 나머지 책은 완전하게 보존돼 있다.

특히 연분홍색으로 물들인 닥종이의 우아함과 인목대비의 세련되고 힘이 있는 필체가 돋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1811년(조선 순조 11) 수군통제영이 통영에 있을 때 설치한 '통영측우대'도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과학유물로 평가돼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조동섭 기자

고려시대 인삼 불복장서 출토

전통문화연수원 '천성산 관음사 보살상' 서

조선시대 조성된 불상 복장물에서 현존 최고(最古)인 고려시대의 인삼 등이 발견됐다.



관음사 목조보살좌상서 출토된 고려시대 인삼.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원장 임덕수)은 2월 23일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불상 및 복장유물 관련 학술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전통문화연수원은 2008년 9월 부산 원광사에 봉안된 이 불상(높이 67㎝)의 보관(寶冠) 및 대좌(臺座) 제작을 의뢰 받아 보존처리하던 중 보살상 내부에서 복장유물을 발견해 조사를 시작했다.

복장물 또한 중요한 유물로 판단돼 불교미술사, 직물, 서지학, 보존과학, 목칠공예 등의 세부 관련 전공자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연구해 왔다.

연수원이 복장물을 조사한 결과, 천성산 관음사 목조보살좌상은 1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복장물 중 발원문과 개금문에 따르면 이 보살상은 1502년(연산군 8)에 제작돼 평안도 천성산 관음사에 모셔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보살상의 수종분석과 CR 촬영 분석결과, 보살상의 얼굴과 몸체는 소나무 재질로 팔과 다리는 은행나무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확인됐다.

불상에서 발견된 47종의 복장물 중에는 황동팔엽합(黃銅八葉盒)과 각종 보석, 유리제품, 인삼, 나락과 청겨자씨, 대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인삼은 탄소연대 측정결과 1060±80년을 전후한 시기의 것으로 밝혀져 적어도 고려시대 것으로 판명됐다.

조동섭 기자

한국 근본 불교 조계종 임원 공고

명예종정 만운　　종정 일송

상임부종정 법정　　부종정 혜성, 현공

■장로회의

의장 지선　부의장 덕암

의원 원진, 우천, 성월, 현공, 만운, 의륜, 법정, 월주, 태종, 해원, 성원, 정훈, 혜성, 일송, 해주, 혜공, 수혜, 혜원

■중앙종무위원

총무원장 의륜

상임부원장 청광　총무부원장 법운　포교원장 청광

교육원장 수혜　사정원장 해법　감사원장 해석

문화원장 상연　수선원장 일진　비구니원장 해인

총무부장 진법　교무부장 태산　재무부장 무일

규정부장 무진　감사부장 법경　문화부장 일월

의전부장 석암　사회부장 법정　사업부장 대성

포교부장 수덕　사서부장 동봉

■중앙종회의원

의장 혜원　부의장 법정

의원 의륜, 청광, 수혜, 해법, 해석, 상현, 일진, 해인, 진법, 태산, 무일, 무진, 법경, 일월, 석암, 법정, 대성, 동월, 도암, 법성, 동천, 해곡, 학용, 해월, 일도, 동법, 서우, 법완, 법륭, 석일, 왕인, 상법, 법원, 동봉, 수덕

◆ 총무원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390 불탑사　전화 033) 671-7751 / 011-352-7751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진로와 관련해 수차례 상담을 드렸지만 아직 마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사장님과 대리님은 제게 회사를 계속 다니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를 나가면 제게 더 좋은 선택과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듭니다. 반면에 젊은 나이에 적성에 맞고, 근무시간도 적당한 일자리를 놓치는 것이 아닐까하는 근심도 늘어갑니다. 제 목표라고는 해도 지나친 욕심은 아닌지 스스로 반문하게 됩니다.

A 많은 사람들이 지난 과거와 너무 먼 앞날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당면한 문제는 외면하고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선택할 경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택을 하기까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만약 직장에 남기로 결정했다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점들을 찾아보세요. 퇴사할 경우에는 어떤 점이 이익이 되고 어떤 점을 감수해야 되는지 잘 정리를 해보세요. 그 후에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선택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은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반대로 희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좋다", "싫다"라는 이원화를 극복하는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언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한 가지 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깊이 생각해볼 일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길이 최선이기를 원합니다. 그보다 기회는 자신이 원한다면 또 다시 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태도가 더 바람직합니다.

Q 초등학생 딸 둘이 있는 주부입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껍데기만 있는 것 같고 존재의 의미를 못 찾겠어요. 종교라도 가져야 할까요?

A 누구나 살면서 알 수 없는 불안과 번민이 불쑥불쑥 생길 때가 종종 있지요. 오랫동안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도 하루 24시간을 모두 그렇게 보내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믿고 제안을 드립니다.

내담자는 스스로 의욕이 없다는 점을 자각하는 분이기에 좀 더 주도면밀하게 자신을 살펴보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왜 의욕이 없을까?"하고 스스로 끊임없이 의심해보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가장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에 자신의 '의욕 없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찰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방법은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라보면 사라지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종교를 생각해보셨다니 반가운 마음이 생깁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은 심정이 들 때 종교는 큰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의욕이 없을 때, 생각에 깊이 빠지기보다는 행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욕 없음'에 대한 관찰, 가까운 사찰이나 교회 성당 등에 가보시는 것도 커다란 행동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매사 의욕 없고 제 존재 의미를 못 찾겠어요
'의욕 없음'에 대해 관찰하며 행동하세요

Q 명절 때 절에서 차례를 지내고 집에서 또 제사를 지내도 되는지요.

A 제사는 민족 · 종교 ·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관습 · 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해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며 좋은 곳에서 행복하고 편안하시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절에서는 추석 · 설 차례를 비롯해 기제사에 불교의식으로 진행하고 스님이 영가법문을 합니다. 사찰에서의 추모의식을 통해 영가들은 집착과 무명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로 천도되기에 집에서는 따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바쁜 사회생활 등을 고려해 시간 ·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된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과 집에서 제사 지내드리는 것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을 찾으실 수 있다면 집에서도 형편에 맞게 정성 가득한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아플 때 돌봐준 종교는 평생 가요"

희망법당 탐방
춘천국군병원 녹야원

2월 21일 찾은 20여 평 남짓한 작은 법당, 녹야원에는 체육복을 입은 10여 명의 사병들이 옹기종기 모여 TV를 보고 있었다. 이 날은 2010 밴쿠버 올림픽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경기가 열리던 날. 주중 일과를 마친 장병들은 법당에서 TV를 시청하며 법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병들은 모태범 선수의 스케이터 날이 얼음판을 지칠 때마다 환호했다.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느라 주야 없는 일정 속에 장병들이 지친 몸을 편히 쉴 수 있는 곳, 국군춘천병원 녹야원은 장병들의 마음의 안식처였다.

인근 102보충대 지원 법회를 봉행하고 바삐 걸음을 옮긴 주지 원상 이왕우 법사가 법당에 들어서자 장병들은 자세를 가다듬었다.

전날 한 달에 한번 진행되는 인근 지역불자들과의 1080배 기도정진으로 고단한 몸임에도 원상 법사는 끊임없는 정진을 강조했다.

"절에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존경의 의미, 둘째는 정진의 의미, 셋째는 하심의 의미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업장소멸에 있습니다. 업이 소멸되지 않고 공덕을 쌓는 것은 똥무더기 위에 음식을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법사는 이어 젊은 사병들에게 법당 출입시 부처님에 대한 삼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했다. 기본에 충실한 신행생활을 닦아 사회에서도 신심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몸이 낮아지면 마음도 낮아지고, 마음이 낮아지면 인간관계도 원만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부수적으로 좋은 집, 좋은 여자가 따라 오는 것이지요."

무거운 얘기가 진행돼서일까. 문득 이 법사는 재미있는 얘기를 건넨다.

"잘생긴 부처님을 네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

"……."

"부처핸섬"

잠깐이나마 집중을 잃었던 사병들도 다시 정신을 차렸다. 이어진 기도축원에서 가족과 연인의 건강을 기원하는 병사들의 마음이 정성스럽다.

제대를 5개월 앞둔 김병제 병장은 "어머니께서 불교신자여서 어릴 때부터 절에 다녀 법당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며 "대학시절 학과가 방사선과여서 현재 영상의학과에 근무 중인데 사회에 나가서도 신행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상병은 "교회의 경우는 자꾸 다음에 오라고 해 일과가 겹치면 부담을 느끼는데 법당은 가끔 찾아도 힘들 때 큰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사병들이 법당을 편히 느끼는 데에는 수요일 법회일정을 다도교육을 겸한 다과모임과 불교경전 교육, 동아리 활동으로 바꾼 이 법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병원 특성상 병사들은 환자를 돌보랴, 부대정비로 작업에 나가랴 주중 · 주말 구분없는 바쁜 생활을 보낸다. 바쁜 군업무로 군병원의 종교 활동 참여율은 낮았다. 선임병이 작업 등에 나갔는데 후임병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군대 문화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사는 군간부와 장병의 특성에 맞춰 병원내 신심 고취에 앞장섰다. 매주 환자 위문 및 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월 1회 기간병과 입원환자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내원환자 환영다과회인 천사데이를 실시했다.

간부포교를 위해 춘병FC에 참여해 월 3~4회 축구시합으로 교류의 폭을 넓히고, 월 1회 2군단 법당 쌍용사에서 군간부 불자들이 동참하는 1080배 정진을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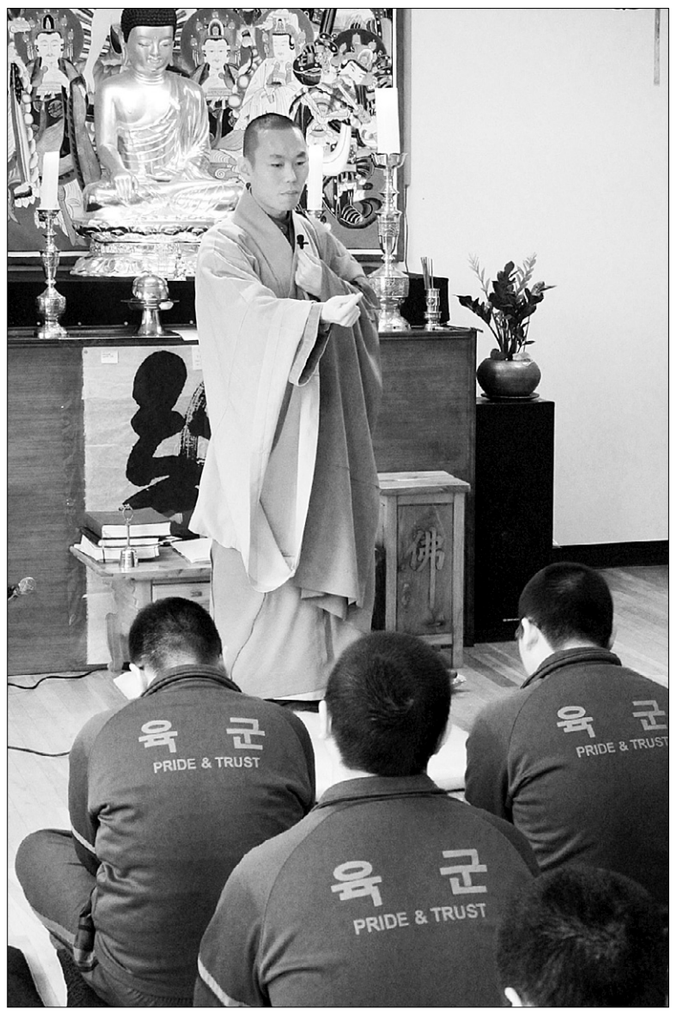
이 법사는 "군병원은 군의관 · 간호장교 · 군무원 등 여러 종류의 장교들과 후송병과 · 의무병과 등 다양한 분과의 병사들이 있어 포교 개척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입대 전 전공에 따라 복무하는 특성상 장교들과 병사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관련 의료분야에서 일하기 때문에 환자포교 등에 앞서 이들의 신행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고된 훈련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의 마음을 보듬어 안는 약사여래의 미소처럼 병원을 나서는 초봄의 길에는 따스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 법사는 "아플 때 돌봐준 종교는 평생 가기 때문에, 전방에 비해 참여 수는 적지만 불교에 귀의하는 가능성은 더 높다"며 향후 활발한 군병원 내 포교를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춘천국군병원 이왕우 법사는 사병들이 법당을 편안한 곳으로 여기도록 이끈다.

국군춘천병원 녹야원은?

국군춘천병원 법당 녹야원은 샘밭에 있던 101병원이 1996년 12월 31일 현위치(춘천시 신동 산 10-1번지)에 새로 준공하면서 건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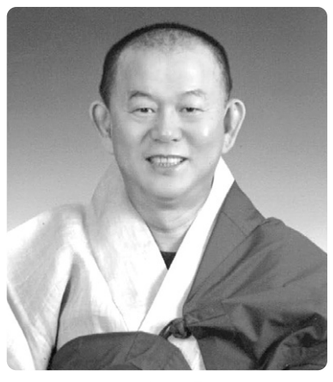
현재 녹야원 주지 원상 이왕우 법사 외에 3층 성당에는 군단 신부가, 4층 교회에는 민간성직자가 종교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국군춘천병원에는 2군단사령부, 27사단, 15사단, 7사단에서 후송된 환자 200여 명을 보살피기 위해 군의관, 간호장교, 행정장교, 부사관, 군무원을 비롯한 140여 명의 간부들과 본부 · 후송 · 보정중대 150여 명의 사병들이 근무하고 있다.

"잘생긴 부처는?" '부처핸섬!"… 신나는 법문으로 인기
월 1회 기간병·입원환자 대상 인성교육 등 특성화 법회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2주완성
저자 : 법화 종헌(정흥교) 큰스님 직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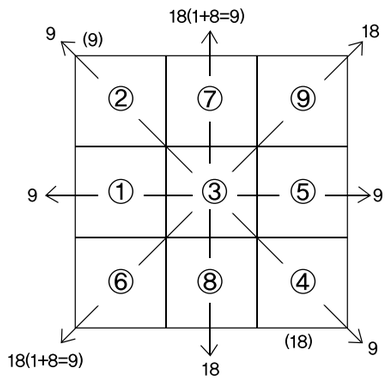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강 의
월 · 수 · 금 : 오후 2시 – 5시
토 · 일 : 오후 1시 – 5시
직접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 · 포교당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특전 : 승려증소지자 특별장학금 (50%) 특허출원번호 : 40-2010-0009061
방문시 교재판매. 홈페이지 참조 [구단구궁법] 41-2010-0004261
– www.psa.or.kr



구단구궁 원리도

학 과	기간 / 요일 / 시간	강 의 과 목	비 고
불 교 학 과	[기간 – 2년]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유식사상 · 화엄학 · 대승기신론 · 답사학	대학원과정 (학사이상)
불교교리학과	[기간 – 1년] 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사찰예절 · 근본교리 · 부처님생애 · 반야심경 · 포교방법론 · 초발심자경 · 천수경 · 금강경	포교사 법 사
장례지도학과	[기간 – 6개월] 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관혼상제 · 장례식장경영론 · 장묘제도(법규) · 공중보건학 · 상담학 · 장례학 개론 · 불교상장례이해 · 실습	자례지도사 1,2급 불교장례지도사
다도예절학과	[기간 – 1년]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제다학(1,2,3,4) · 다구학 · 사찰다도법 · 차와선 · 차 문화사 · 차성분학	다도예절포교사
풍 수 학 과	[기간 – 1년] 수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생활풍수 · 음택/양택 · 풍수학 개론 · 패철 · 방위학 · 부동산풍수 · 풍수인테리어 · 지리오결	풍수지리사
명 리 학 과	[기간 – 6개월] 화, 목요일 오전 10시 – 12시 / 저녁 7시 – 9시	· 생활역학 · 작명 · 사주명리학 · 관상학 · 궁합 · 택일 · 실전명리	명리심리상담사
체형관리학과	[기간 – 3개월] 목요일 : 저녁 7시 – 9시	· 스포츠마사지(경락) · 복부비만관리학 · 한의학 기초 · 체형관리학 · 무통정자기요법 · 경락마사지 뜸 부황 · 약재전문 취업기술	스포츠마사지사 체형관리사. 재활처방사 기공자연치료사 뜸치유사
한 문 학 과	[기간 – 2년]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명심보감 · 맹자 · 대학 · 논어 · 중용	
이수명리학과	[기간 – 8주] 일요일 : 오후 14시 – 19시	· 이수명리학 · 명리36금수 · 적천수 · 12운수 · 간파명문 · 오자술	이수명리학회 회원증
타 로 학 과	[기간 – 4주]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메이저아르카나–22장 · 마이너아르카나–56장 · 실전타로학	타로카드 마스터사(1급)
구단구궁학과	[기간 – 10일] 월,수,금 : 14시–17시 / 토 : 13시–17시	· 구단구궁학교재 · 비법교재	저자직강 (법화큰스님)

14년전통 부산불교전법대학 – 구단구궁연구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2-23번지 ☎(051)467-4665 010-7725-1024

제 773 호 현대불교
2010년 3월 3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buddhanews.com

4대강을 위한 방생법회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공존하길…

2월 23일 여주 남한강변에서 '생명의 강을 위한 연합 방생법회 및 수륙재'가 봉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1500여 사부대중이 4대강 사업 중단을 기원하며 남한강 순례길에 올랐다.

"무엇이 방생입니까? 멀쩡한 물고기 잡아다가 풀어 주는 것이 방생이 아닙니다. 억압받는 중생, 힘없고 여린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참된 방생입니다. 왜곡된 생명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4대강을 위한 방생법회 및 수륙재에서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 화계사 주지)의 목소리가 남한강변에 울려 퍼졌다.

스님은 "한반도 4대강을 파헤치는 폭력적 행위를 보고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통곡뿐이다. 아파서 우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이 이럴까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스님의 상기된 목소리에 얼굴에서는 눈물까지 흐르자 행사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서울 옥천암에서 왔다는 한 신도(54)는 "망설이다 용기를 내 방생법회에 동참했는데 뭉클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른 아침부터 신륵사는 행사준비에 떠들썩했다. 생명의 강을 위한 연합 방생법회 및 수륙재 봉행위원회(이하 봉행위)는 2월 23일 오전 10시 신륵사를 따라 흐르는 여주 남한강변에서 '4대강을 위한 연합 방생법회 및 수륙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법 · 절차, 국민의 목소리마저 무시된 채 진행중인 4대강 사업,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무수한 유정 무정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마련됐다.

인간만이 즐거움과 욕심 채우려 다른 목숨 취해

강에 참회의 21배 올리고 남한강 숨결 답사

행사에는 청화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과 수경 스님, 법안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을 비롯해 유길준 에코붓다 사무국장 등 불교환경단체 관계자, 화계사 수원사 금선사 옥천암 봉영사 신륵사 용화사 법장사 용천사 좋은절 신도들이 참여했다.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회원도 참여해 4대강 사업 중단을 기원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여주 남한강변은 1500여 사부대중으로 가득했다. 강을 향한 불자들의 뜨거운 염원이 전해졌을까? 차츰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안개 사이로 떠오른 해는 무심히 강을 비춰 반짝이고 있었다.

청화 스님은 살아있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법문하며 서정주 시인의 일화를 소개했다.

"젊은 날의 서정주 시인은 삶의 덧없음을 알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수에 그쳐 자살은 실패했죠. 그런데 다시 살고 보니 그렇게 살아 숨 쉬는 것이 고귀하게 여겨질 수 없더랍니다."

청화 스님은 "모든 생명은 안락과 행복을 원한다"며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평화로이 공생하는 삶이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국민의 세금으로(22조원) 진행되는 사업이 환경 미 검토, 국가재정법, 하천법 등 각종 법을 위반하면서 진행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강을 방생시키는 방법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경 스님은 "모름지기 불자라면 부처님과의 첫 번째 약속인 불살생 계를 지켜야 한다"며 "방생은 불살생의 적극적 실천이자 자비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다른 생명들은 필요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즐거움과 욕심 때문에 다른 목숨을 취한다. 인간사의 비극은 여기서 출발한다. 그래서 참회 · 기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3일 여주남강에 펼쳐진 모습은 극과 극 이었다. 한쪽에서는 "유정 · 무정을 방생하자"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서는 보 공사를 하는 포크레인과 트럭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사이엔 물이 흐르고 새가 유유히 날고 있었다.

행사에서 자리를 점검하고 행사 식순을 살피던 남양주 봉영사 불자(60)는 "당연히 그만둬야한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말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남양주 봉영사 신도(57)는 "이거(4대강 사업) 좋다는 사람 하나 없다. 수질 개선한다면서 환경을 훼손해서 되겠나"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4대강 사업을 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추진하겠어요. 경제가 살아야 우리 같은 서민이 먹고살죠. 뭐 환경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데 그런 것만 해소되면 좋고요."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걱정이 크다.

2009년 10월 경향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조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은 73.5%로 집계됐다. 같은 해 12월 조사에서는 4대강 예산을 대폭 ·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62.4%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라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말하는 4대강 사업의 목표는 물 부족 해결 · 홍수 대비 · 4대강의 수질개선 · 경제 활성화 등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다. 이 대통령은 "UN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지정했기에 많은 물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UN에서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없다. 또 2006년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내놓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보면 "최대 가뭄 때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거의 없다. 만약 물이 부족한 지역은 지역 간 이동을 통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초래되는 수질 오염이다. 정부에서는 수질개선을 한다지만 오히려 강에 하구둑을 비롯한 20개 이상의 수중보를 설치하면 물의 흐름이 막힌다. 전문가들은 "수중보 설치로 강의 정화기능이 훼손돼 물이 썩는다"며 "수중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두 시간에 걸친 법회는 스님들의 주옥같은 법문과 기도로 엄중하게 봉행됐다. 행사 막바지 이르러 사부대중이 강을 향해 21배 참회의 절을 올렸다. 사홍서원에 이어 법회장에서 신륵사까지 걸으며 남한강의 숨결을 느끼는 답사가 이어졌다. 걸음걸음을 내딛는 참여자들은 합장을 하고 "오늘 법회의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공덕으로 4대강 사업이 중단되길 발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강을 위한 기도문을 봉독하는 수경 스님(오른쪽)과 4대강 사업 반대를 염원하는 불자들.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세분화된 타겟포교로 불심 유혹

홍법사, 영유아수기대법회 한국문화행사 봉행

타겟마케팅(Target marketing)은 어떤 제품군의 시장을 세분화해 선별한 특정 시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수많은 마케팅기법 중에서도 특정 소비계층이나 시장을 공략하는 만큼 소비자의 욕구를 보다 잘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성공노하우로 손꼽힌다. 이러한 타겟마케팅이 포교와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동련 이사장)는 2월 20일 영유아수기대법회와 21일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행사를 잇달아 봉행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영유아수기대법회는 심산 스님을 계사로 태아 2명 및 영유아 26명 등 28명이 부처님과 아름다운 인연을 맺었다.

이날 법회는 부모와 영유아들이 직접 부처님 전에 올린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삼귀의, 보현행원, 발원문, 관정 수기 및 법명 수계 등이 진행됐다.


2월 20일 부산 홍법사에서 영유아수기대법회 모습.

특히 관정 수기에 쓰인 성수는 불 · 법 · 승 삼보사찰인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에서 집수해 의미가 더욱 깊다.

또한 포교의 대상이 사찰을 오가며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비불자들이라는 편견을 과감히 뒤집었다. 오히려 영연을 심어줘, 성장하는 동안에도 스스로 불자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된다.

21일 열린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행사는 139회째로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홍법사의 대표 포교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 날은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아 '연날리기'를 주제로, 100여 명의 외국인들이 꼬리연을 직접 만들어 날리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3월 서예, 5월 전통등 만들기 등 매월 셋째 주 일요일마다 색다른 한국문화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10년째를 맞은 프로그램이지만 참가 외국인 중 절반 가까이가 이날 홍법사에 처음 방문한 것도 특징이다.

한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특성상 오랜 시간 우리나라에 머물지 않는 탓도 크지만 관광 목적으로 사찰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종교색이 짙을수록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외국인들은 대웅보전 안에서 대형 VCR과 국제포교사들의 유창한 영어설명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꼬리연을 만든 후, 절 마당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하늘 높이 연을 날렸다. 이들에게 어느 누구도 법당 예절이나 부처님 가르침에 관해 알려주지 않았지만, 외국인들은 주지스님과 국제포교사들의 진심 어린 태도와 체험 과정 속에서 한국 불교에 관해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앞으로도 세분화된 타겟포교 전략으로 포교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와 외국인들의 발길이 사찰로 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일념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창립 15주년을 맞은 일념장학회(이사장 이영채)가 2010학년도 입학 시즌에 맞춰 15명 학생들에게 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일념장학회는 2월 23일 부산불교실업인회관 묘광선원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광선원 종영스님 및 이태범 부산대의과대학 대학원생, 하동현 동명대학교 신입생 등 학인 스님과 학업 성적이 우수한 불자가정 자녀들에게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이영채 이사장은 "한국에는 여러 장학재단이 있지만 일념장학회는 어머니들이 직접 주기에 '엄마의 젖줄'과도 같다"며 "장학생 모두 부모님께 더욱 효도하고, 공부에 더욱 전념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지도자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윤환 부산불교실업인회장은 축사를 통해 "훗날 훌륭한 실업인이 되어 함께 신행활동을 이어가는 도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재단 설립 15주년을 맞은 일념장학회는 300여 학인스님 및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박지원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해운대 우곡선원

쉬운 현대적 용어로 수행법 익혀요

최근 참선수행을 향한 불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이런 가운데 부산 해운대에서 참선으로 10년 째 청소년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시민선원이 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오션뷰(舊 오션타워)에 위치한 우곡선원(선원장 장명화)은 선의 일상화, 대중화, 세계화를 슬로건으로 각 학교와 직장직능단체 등에 알맞은 참선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 중이다.

'우곡'은 한자 소 우(牛)자와 골 곡(谷)자를 써서, 평생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죽어서도 육보시를 하는 소의 자비로운 성품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우곡선원은 장명화 보살이 1992년 첫 참선수행프로그램인 '놓고 비우고 버리기'를 시작으로 1996년 경기 분당 시민선방, 1997년 경기 산본 시민선방, 1998년 서울 양재동에 이어 2000년 부산 해운대에 개원했다. 2002년 불교계에서는 최초로 문화공보부의 법인 인가를 취득해 순수하게 재가불자들이 운영 중이다. 현재 정부로부터 청소년 인성교육 인증프로그램으로 지정됐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 교원직무연수기관 등으로 선정됐다.

가장 있기 있는 '마음동산 가꾸기- 참선교육과정'은 보편적인 경전강의를 배재하고, '실상관법' '좌선과 호흡' '우곡의 선' '선 기공체조' '날숨호흡의 정의' 등 참선수행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참 위주로 진행된다. 이렇듯 생활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강의로 입소문이 나면서 일반 직장인 수강생이 대폭 늘어나, 강의시간을 오후 8~10시까지로 늦췄다.

이 외에도 연 2회씩 마련되는 교원직무연수와 직장 · 직능단체를 위한 '찾아가는 우곡선원' 심성개발교육, 외국인을 위한 참선 교육, 청소년 인성교육 인증프로그램 '마음동산 꾸미기'는 매년 25차례씩 2500여 명에 학생들이 참여 중이다.


부산 우곡선원에서 청소년들이 참선을 체험하고 있다.

정경남 이사는 "기존의 불교교육은 경전을 먼저 가르치려다 보니 초심자와 일반인이 선뜻 다가가기 어려웠다"며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현대적인 용어로, 지수화풍을 통해 존재의 근본을 관하는 수행법인 실상관법이라는 수행법을 익히도록 안내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법을 재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우곡선원은 생노병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종합선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불치병이나 마음으로 인해 생긴 자폐증, 아토피 등을 참선수행을 통해 근원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다.

장명화 원장은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불사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 참선수행을 통해 참사람을 만드는 것, 마음동산을 잘 가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곡선원의 꿈"이라고 말했다 (051) 740-6288

박지원 기자

"죽어야 비로소 산다"

참선안심법회 월암 스님 감로법문 펼쳐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 행복선수행학교는 2월 21일 제4회 참선안심법회 중 첫 번째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월암 스님(사진)이 법석에 올라 감로법문을 펼쳐 눈길을 모았다.

이날 법회는 주지 하림 스님의 봉행사를 시작으로 신도회장 인사말, 클리어마인드 합창단의 축가, 월암 스님의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하림 스님은 "대중들에게 참선을 가르치며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이 들어서길 발원했었는데, 시내 사찰에서는 좀처럼 만나 뵙기 힘든 월암 스님을 교장으로 모시고 1년 내내 명강의를 듣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월암 스님은 "조사스님들은 습관적으로 쉽게 바깥 경계에 빠져버리는 중생들이 본래 면목을 깨우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죽어야 비로소 산다'고 가르쳤다"며 "본래부처를 잃어버리고 경계에 빠져버린다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일 것"이라고 법문했다.

참선안심법회는 미타선원(주지 하림)과 행복선수행학교(교장 월암,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학술위원장)가 선 수행의 대중화와 선풍 진작을 위한 마련했다.

법회는 2월 21일~3월 7일 매주 일요일 행복선수행학교에서 봉행되며, 3월 7일에는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의 참선안심법회가 열린다.

박지원 기자

종교지도자들 화합 · 상생 목소리 커져

범어사 휴휴정사서 템플스테이 열고 종교갈등 해소

MB정부의 종교편향 우려가 그치지 않는 가운데, 부산지역 7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합과 상생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눈길을 끈다.

종교인평화포럼(상임회장 정여)과 공동선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는 2월 22~23일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열고, 3 · 1절 기념 합동기도회를 공동개최 하는 등 종교간 갈등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종교인평화포럼 템플스테이에는 불교 1명, 개신교 8명, 천도교 3명 등 12명의 이웃종교인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행사를 통해 사찰예절 및 발우공양법을 습의하고 아침예불, 선기공, 발우공양, 계명암 산행 등 절집의 하루를 체험하고 돌아갔다.

방영식 목사는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정신문화를 이끌어가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에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5일, 공동선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정여)는 3 · 1절 평화기도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불교를 비롯해 기독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등 6대 종교지도자 10여 명과 부산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합동 기도문, 3 · 1절 노래 및 만세삼창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는 평화기원문을 통해 "우리민족은 분열과 갈등의 벽을 넘어서 새로운 이상과 희망으로 서로 사랑하고 단결하여 세계 평화를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3 · 1절 기념 합동기도회를 통해 종교간 갈등해소에 나섰다.

행·복·의·문·을·여·는
무무사

사람이 죽으면 그 자손이나 친족 · 친지 등이 애도와 비통 속에서 장례를 치루고 조상의 은덕을 추모하여 정성으로 추념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
무릇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조상 없는 자손은 있을 수 없다 。'는 말이 아니어도 나를 낳고 길러 주시고 돌봐 주신 부모님이나 오늘날 나를 존재하게끔 해주신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고 예로 모시는 것은 자손의 당연한 도리라 할 것입니다 。

무무사에서는
사찰음식으로 정성스럽게 제수를 차려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불자님 가정에 제사음식을 배달해 드립니다.
정성이 담긴 사찰 음식 공양물로 조상의 은덕을 기리시길 기원하며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이 보시금은 무무사 건립불사 및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됩니다 .


무무사에서는 불교의식으로 기제사를 모셔드립니다.
기제사 특별 : 50만원
기제사 보통 : 35만원


(상) 보시금 45만원


(중) 보시금 38만원


(하) 보시금 28만원

※ 모든 제사상에 조기, 포가 추가됩니다(과일은 계절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무 무 사 문의전화 : 종무소 (031)487-3117(대표전화)

전북도내 불교대학 일제히 졸업식 개최

졸업시즌을 맞아 전북도내 각급 불교대학이 졸업식를 잇따라 봉행했다.

금산사 화엄불교대학(학장 원행)은 2월 21일 제21기 졸업식을 전북불교회관 큰법당에서 개최했다.

6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화엄불교대학 졸업식에는 학장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불교회관 원감 일원 스님, 군산 금강불교대학 학장 은적사 주지 성우 스님, 김백호 전북신도회 회장, 이근재 화엄불교대학 동창회장,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선 20일,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은 박중근 익산불교신도연합회장등 신행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관음사 대웅전에서 졸업식 개최하고 3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리불교대학 졸업식에서 이수원 불자가 포교원장상, 김용암 불자가 금산사 주지상을 수상했다.

한편, 화엄불교대학, 전북불교대학, 이리불교대학, 남원불교대학 등 전북도내 불교대학은 3개월 과정인 무주불교대학을 제외하고는 1년 과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주한 외교사절단 한국불교 체험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 · 16개국 대사 선암사 방문

한국관광공사 서포터즈와 16개국 주한 외국 대사들이 한국 불교 체험을 했다. 순천 선암사(주지 경담)는 "2월 21일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과 한국관광공사 서포터즈 100여 명, 러시아, 오스트리아, 인도, 헝가리, 브라질 등 주한 16개국 외국 대사 등 120여 명이 선암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발우공양 체험과 사찰탐방 등을 통해 한국 불교 문화를 직접 경험했다. 오전 7시 40분 선암사 적묵당에서 발우공양 체험으로 시작된 행사에 이어 주지 경담 스님과 차담이 열렸다.

주지스님은 차담을 통해 선암사 창건 유래를 비롯해 선암사의 역사와 차를 참가자들에게 소개했다.

경담 스님은 "선암사는 의천 대각국사가 송나라 다원 건축기법을 그대로 대입해 창건했다"며 "하늘과 소통하는 독특한 가람배치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천 선암사를 찾아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한 주한 외교사절단.

이어 스님은 "의천 국사 주석 때부터 선암사에서는 뇌원차를 만들어 수출하는 등 선암사는 다선도량으로서 한국의 차문화사에 적잖은 기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주지스님과의 차담 후 참가자들은 사찰 곳곳을 둘러보며 선암사의 문화재를 탐방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이 공양시간 내내 주한 외국대사와 가족들에게 직접 통역해 눈길을 끌었다.

이참 관광공사 사장은 "화성 용주사와 수원 봉녕사 등 사찰에서 발우공양한 경험이 있다"며 "선암사의 음식은 소박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다"고 말했다.

릴리아나 파라미오(콜럼비아) 씨는 "처음으로 해보는 발우공양이 굉장히 생소하지만 즐거웠다"며 "특히 음식이 건강해 보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관광공사 이재성 국내마케팅 실장은 "선암사에서의 발우공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면서 "순천의 문화재와 관광자원을 체험 후 전문가와 일반인, 외국인의 시각을 종합해 관광정책에 반영코자 처음으로 시도했다"고 밝히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사찰탐방단들은 선암사 방문에 앞서 20일 순천에 도착해 도보와 선박으로 순천만 일대를 탐방하고 인근 생태관에서 순천시 관계자로부터 순천만 생태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전북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교사협의회 조영채 회장

불교 · 우리문화의 소중함 가르칠 터

불교의 미래 동량을 길러내고 있는 전북청소년파라미타 교사협의회 회장에 최근 취임한 조영채 금산중 교감은 "지역불교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청소년 파라미타 활동만큼은 전국의 어느 지부에 못지않는 성장을 하고 있다"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새해 사업 포부를 밝혔다.



조영채 회장

전북청소년파라미타에는 1996년 전주지회 창립을 시작으로 전북 도내에 전주, 군산, 익산, 김제부안, 정읍고창, 무주진안, 남원순창 등 7개 지회와 60여 학교 1200명의 학생회원이 활동 중이다. 전북청소년파라미타가 안정된 조직으로 발전한 데에는 120여 선생님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 있다

조영채 회장은 "아직 인격완성이 진행 중인 청소년 학생들에게 무조건 주입식 교리 학습을 강요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에 산재돼 있는 불교문화재 보전과 애호 활동을 펼치겠다"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우리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고운 심성을 기르며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많은 교사불자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집안 대대로 불교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는 조영채 회장은 1980년 조계종 종립학교인 동국대 부속 금산중학교에 부임하면서 청소년 포교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포교활동에 나섰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는 교법사로서 활동을 이어오며 2년간의 전국교법사단 부단장과 4년에 걸친 전북파라미타 사무국장 소임을 수행하며 전북파라미타의 기반을 닦고 성장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난달 발족한 우리문화연구원의 운영위원으로도 활동을 시작했다.

전북청소년파라미타의 가장 큰 자랑은 매년 금산사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모악축제이다. 행사에는 도내 파라미타 학생들이 모두 참여해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열고 음악페스티벌과 댄스경연대회를 통해 자연과의 친화와 일체감,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비를, 사회와의 관계에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모악축제는 1997년 작은 백일장으로 시작돼 지금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

또, 가을에 선운사에서 개최하는 선운문화제 청소년 놀이마당에도 파라미타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해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조영채 회장은 "청소년 파라미타 활동의 성패는 학교장의 원력과 지도교사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매월 2회 이상 문화재 지킴이 활동과 연수를 통해 지도교사들의 자기개발과 신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 회장은 청소년들과 함께 완주 송광사 부설 송광정심원 등 불우시설방문, 무료급식소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자연보호 활동, 청소년 하계캠프, 문화재 주변 청소활동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조 회장은 "정기 문화답사와 사찰순례를 통해 불교에 대한 인식과 교양을 강화하고 수련회와 산사체험, 해외문화 답사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 기원

전남 4본사협, 도정발전 법회



2월 23일 봉행된 전남도정발전기원법회 모습.

전남 지역 불교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남 불교 중흥을 서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계종 전남4본사 주지협의회(회장 영조, 송광사 주지)는 2월 23일 전남 영암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전남도정발전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2010년 개최되는 F1 코리아그랑프리대회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로 마련돼, 전남지역 4개 교구본사 소속 사찰과 선암사, 신행단체지도자 등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보선 스님은 법어에서 "자기 직책에 따른 직분 수행을 정확히 해야 세상이 질서가 서고 편안해진다"며 "세간과 출가 수행자가 직책에 따른 직분을 정확히 수행하는 전남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이어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오늘날 세상은 여러 가지 악재로 발생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질적인 어려움보다 정신적인 빈곤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원봉사자들 위한 나눔의 장 열어

자비신행회, 나눔의 행사 진행



자비신행회가 봉행한 '아름다운 자비 나눔의 날'에서 이사스님들이 축하케이크의 촛불을 끄고 있다.

광주 사회복지단체들의 나눔의 장이 펼쳐졌다.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2월 26일 자비신행회 대강당에서 '아름다운 자비 나눔의 날'을 개최했다. 행사를 통해 자비신행회는 2009년 사업을 평가하고 참여해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나눔의 장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자비신행회 회주 현장 스님(지장왕사 주지), 정원채(화엄학림 학장), 자원봉사자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여했다.

'자비나눔의 날'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자원봉사에 참여해준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과 2010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시상식에서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인 기명자, 박광하, 정옥례 씨 등이 골드배지를 수상했다. 또한 500시간 이상 활동한 실버배지에는 강옥실, 김미숙, 김숙자, 김영숙, 김윤순, 백기해, 성순, 정성순, 정순금, 장용운, 정윤남 등이 각각 수행했으며,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한 그린배지에는 김영수, 나춘자, 박진옥, 박형자, 오향애, 원정윤, 위성희, 윤희순, 이춘순, 정영자, 정희원 강옥실, 김미숙, 김숙자, 김영숙, 김윤순, 백기해, 오성순, 정성순, 정순금, 장용운, 정윤남 등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자비신행회는 불교의 지혜와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밑반찬 지원, 어르신 식당, 십시일반 밥차, 호스피스, 청소년 상담과 공부방 등 불교복지사업과 화엄학림, 차문화나눔사업, 빛고을불교아카데미 등 교육사업 등을 운영하는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불교단체이다.

이에 앞선 25일,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광주 동구 소재 가미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9년 업무 결산과 2010년에 대한 행사계획을 밝혔다.

생명나눔은 23일에는 광주 주월동 연화사 반야유치원(원장 지원스님)에서 원생 50명, 반야유치원 학부모 140여명, 유상호 홍보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돼지저금통' 전달식을 개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안산 중앙역 2번출구 무무사는 278평의 대형도심지 포교당입니다



무무사에서 영가 천도제를 올리는 모습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무 무 사

불자님들의 마음의 안식처이고 소원성취도량 무무사 주지 일우스님은 불자님들의 어렵고 힘들때 그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길의 방향을 알려 주십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이라면 무무사로 발길을 옮겨서 일우스님과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틀림없이 지혜와 실천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무무사는?

무무사안산포교당은 수도권인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78평의 대규모 법당을 갖춘 불자님들 마음의 안식처로 행복의 문을 여는 국내유일 현대식포교당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원인조차도 모른 채 고통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 주지 일우스님이 부처님 품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고통의 근본뿌리를 찾아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소원성취도량 무무사는 불자님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 길을 헤쳐나 갈 수 있도록 그 길의 방향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되시거나, 하시는 일마다 실패하시는 분, 원인모를 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곳으로 발길을 옮겨 일우스님과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틀림없이 지혜와 실천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무무사 법회안내

- 새벽예불 매일 오전 4시~5시30분(관음정근 15분)
- 사시불공 매일 오전 10시~12시
- 저녁예불 매일 오후 5시30분~6시30분
- 초하루법회(신중기도)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 지장재일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10시
- 관음재일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10시

무무사에서는 특별제작한 위패 인등 영가단을 조성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얻고 가정이 화평하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조상님들의 위패를 모시고 부처님전에 기도하여 극락왕생을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무무사에서 올해를 孝道(효도)하는 해로 정하여 조상님을 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위패는 특별제작한 만년위패이며 위패와 인등이 하나가 된 영가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동참금 : 위패 1位 10만원

· 사업이 안되시는 분, · 하시는 일마다 실패하시는 분, ·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 · 가정불화가 잦은 분, · 자녀때문에 마음 고생하시는 분, 기타 고통과 고민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은 무무사 주지 스님과 상담하시면 틀림없이 해답을 얻을 것입니다.

신바람 나는 삶
무무사 해동불교 불자대학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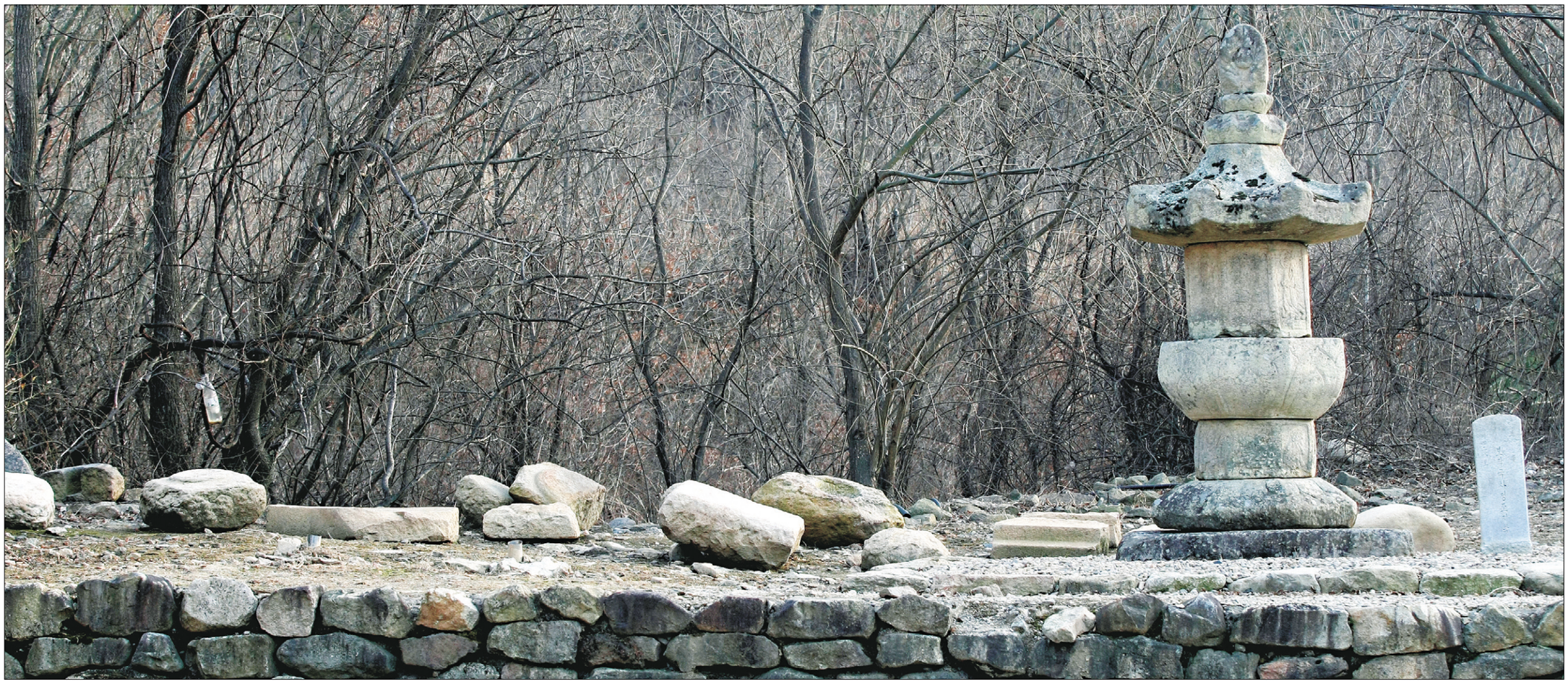
무무사에서는 '신바람 나는 삶'을 주제로 불교교리 강의를 통해 불자님들의 뜨거운 호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우스님의 불교강의는 타 불교대학 강의와 같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20년 동안 불교교리를 강의해 오신 일우스님의 강의 그자체가 확실하게 다르며 스님의 구수한 불교강의는 불교계에서 인기있는 강사로 통합니다.
일우 스님의 불교교리도 교과서 내용에 의한 각본대로 하는 강의가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지혜화 시켜서 그 지혜를 불자님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불교 강의를 하는 불교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2010년 1월 20일 불교대학을 개강을 시작한 이래 불자님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데, 일우스님께서는 불자님들이 불교강의를 들으면서 일그러진 모습이 밝아지는 모습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보실 때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합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발길을 무무사로 향하시어 주지 일우스님의 체계화된 불교강의를 통해 삶을 신바람 삶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강의합니다.

무무사는 안산시 최고의 전법도량 도심사찰입니다. 전화로 사주를 풀어달라는 요청은 절대 하지마십시오. 법회 · 불공시간에는 전화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무 무 사 대표전화 (031)487-3117

선산을 찾는 후손의 마음으로 찾아야 할 곳



삼국유사를 낳은 ❺ 군위 인각사(麟角寺)

"오늘은 내가 갈 것이다."

1289년 음력 7월 8일, 84세의 일연(一然 · 1206~1289) 스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입적을 알리고 바로 적멸에 든다. 서안 앞에 앉아 매일 먹을 갈고, 그 먹을 들어 민족의 역사를 꼼꼼히 써내려갔던 스님은 마침내 자신이 써내려간 역사의 긴 문장 끝에 눕고, 스님이 떠난 자리엔 후손들이 읽어야 할 명작 하나가 남는다. 삼국유사(국보 306호)다.

700년 전 스님을 여읜 인각사는 스님이 남긴 증거 속에 겨우 살아 있을 뿐이었다. 스님을 여의었듯 거듭된 슬픈 역사 속에서 천년의 도량을 모두 여의었다. 일주문도 없었고 천왕문도 종루도 없었다. 2차선 아스팔트 도로에서 바로 시작되는 도량엔 2001년에 세워진 국사전과 조선시대 당우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명부전만이 향을 올리고 있었고, 역사가 묻어버렸던 차가운 돌무더기와 일연 스님의 부도(보물 428호)가 도량의 뒤뜰을 지키고 있었다.

인각사는 신라 선덕여왕 시대(11~12년)에 세워진 절로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완성하고 입적한 절이다. 사라진 인각사의 옛 모습은 자세히 전하는 문헌이 없어 가람의 형태를 유추하기 어렵다. 1992년부터 시작된 발굴 작업을 통해 절의 규모와 형태를 찾고 있다.

일연 스님은 고려 희종 2년(1206), 최충헌이 세상을 잡은 무신의 시대에 태어난다. 9세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광주의 무량사로 들어가 공부를 시작한 스님은 14세에 강원도 양양의 진전사에서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받는다. 그리고 충렬왕 9년(1283)에 국사가 된다. 스님이 살아야 했던 시절의 역사는 참으로 어려웠다. 정치적으로 어려웠고 몽고의 침략으로 더욱 어려웠다. 백성이 견뎌야 할 어려운 시절과 국사로서 스님이 감당해야 했던 위태로운 역사가 삼국유사라는 역작을 쓰게 한다.

고조선에서 삼국시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유사는 다른 역사서와 많이 다른 책이다. 우선 역사서라 불림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는 완벽한 '사실의 책'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사료와 문헌을 중심으로 연대를 따라 역사를 기록한 보통의 역사서와 다르게 삼국유사는 스님이 평생 이 땅의 곳곳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자유분방하게 엮어놓았다. 이야기마다 동원된 무한의 상상력이 그것이며, 마지막 책장을 덮을 때 자연스럽게 용인되는 그 상상력은 역사를 확장시키고, 우리의 문화와 불교를 확장시킨 이 책의 매력이며 값어치다.

힘들고 위태로운 시절을 함께 살았던 한 나라의 국사가 백성들이 알아야 할 역사와 문화, 종교, 신화 등을 백성을 생각하며 쓴 삼국유사는 단군 신화로 시작하는 민족의 족보이자 '순도가 고구려에 오다'로 시작되는 불교 문화서이고, 삼국 시조의 탄생 이야기와 향가가 수록된 설화와 신화의 모음집이자 문학서인 동시에 역사와 철학이 지나간 인문서다.

삼국유사는 완벽한 사실의 책이 아닌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준 기록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해준 물음이다. 삼국유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단군을 모른 채 살았을 것이고, 수많은 우리의 설화와 신화를 모른 채 살았을 것이다. 또한 삼국유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700년 전 우리 곁에 왔다 간 일연이라는 가슴 따뜻했던 한 스님의 이름을 모른 채 살아야 했을 것이다.

스님의 부도 곁으로 까치 한 마리가 다가갔다. 인각사를 찾는다면 절을 찾는다는 마음보다는 선산(先山)을 찾는 후손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백성과 후손을 생각했던 조상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삼국유사의 뜨거운 의미를 떠올리며 찾아간 역사의 도량 인각사. 당우 두 채만이 서있는 아쉬운 도량의 뒤뜰에는 스님의 부도가 그 옛날 스님의 마음처럼 차가운 돌무더기 사이에서 따뜻하게 서있었다.

글 · 사진 =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일연선사 생애관에 전시되어있는 삼국유사 범어사본. 조선 태조 3년(394)4월 간행.

인각사 가는 길

중앙고속도로 군위IC에서 효령면을 지나 부계면, 대율리, 남산리를 지나면 인각사다.
대중교통은 대구북부주차장에서 고로면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된다.(8분 간격)

봉행
우리조계종이 드디어 종교법인으로 허가!
비교불허 敎佛許
소중한 스님의 입종은 우리 종단의 자랑입니다.
입종비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종단의 특징은!
인사기록카드 입력
재직증명서 발급
경력증명서 발급
입금거래명세표
자동법인입출금
비품구매현황표
일계표, 월계표
분기별입출금분석표
부서별지출글액관리표
회비,기부금거래명세서
예산차이분석표
프레젠테이션 작업
포토샵 작업
신속 정확
법인설립허가증
우리종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올바른 수행을 위한 근본 불교사상을 재정립하는 사업.
②비 법인종단을 통합 각 사암 종도들에게 호국불교 정신을 구현하는 사업.
③전국적인 불교문화예술 공모전을 통하여 한국 문화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사업.
④해외 불교문화 탐방 및 연구 정보교환 및 교류를 위한 관광사업 등
⑤기타 우리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입종 안내 : 비구, 비구니, 법사, 예술인, 간부직 스님 등 –
등록 서류 : 본종 소정 양식 E-메일이나 팩스로 전송, 전화 기록 가능
발급 증서 : 사원등록증, 임명장, 위촉장, 추대장, 승려증, 법사증, 자격증, 신분증,
수고한 분들 : 각암, 벽천, 용석, 추호, 문수, 지호, 나미, 혜월, 원각, 운암, 보문, 효철, 장원, 도명, 지호, 경공, 무애, 법조, 만월, 동운, 도현, 법오, 각성, 공적, 도원, 일구, 법전, 지원, 청원, 만암, 보각, 성인, 해수, 하통, 만공, 철민, 법광, 도법, 성오, 지성, 무불, 영각, 성민, 해불, 법만, 오명, 등 ---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산23-3 총본산 미 송 사
전화 : 055) 747-8006. Fax : 754-8004. 010-5518-0108
社團法人 대한불교우리조계종
총무원장 人化堂 知道 합장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카이로프락틱
지도자 모집
교과목 • 카이로프락틱 – 경추, 흉추, 요추, 골반, 선추 이론및 실기
• 골격학, 근육학, 운동처방학
기 간 • 2급과정 (2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집약완성
장 소 • 지하철 4호선 대아미역 하차후 왼쪽 출구, 신영프라자 301호
입학일시 • 2010년 3월 15일 오후 1시 (공개강좌)
사단법인 라마불교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경기도 군포시 대아미동 34-5호 신영프라자 301호
본원 교학과 Tel : 031-502-5522 / 010-9005-4167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5>

뜰 앞의 잣나무이니라

어느 날, 남전 스님이 방장의 문을 닫고서 문 밖에서 빙 둘러 재를 뿌리면서 대중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뭔가 말한다면 문을 열겠어."

많은 스님이 한 마디씩 했지만 어느 것도 남전 스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없었다. 그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창천(蒼天), 창천(蒼天)!"

남전은 곧 문을 열었다.

南泉便掩卻方丈門 便把灰圍卻問僧云 道得卽開門 多有人下語 並不契泉意 師云 蒼天蒼天 泉便開門

당시 문을 닫고 재를 뿌리는 풍속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짐작하기에 문을 닫고 재를 뿌리는 것이 그리 명쾌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남전 스님이 문을 닫고 재를 뿌리면서 "한 마디 일러 보라"고 한 것은 "우울하고 어두운 방문을 어떻게 열겠는가"라는 질문일 것이다.

창천(蒼天)은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아 푸른색으로 가득할 때 외치는 감탄사이다. 조주 스님은 다만 "창천, 창천!"이라고 외쳤을 뿐인데, 남전 스님은 문을 활짝 열었다. 창천이라는 대답이 마음에 든 것이다.

창천은 우울하고 어두운 것과 반대되는 상태다. 우울한 사람에게 경쾌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남전 스님에게는 이 대답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됐다. 우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정신 중에서도 창천의 사상이 근본적인 치유로 유도하는 가장 적합한 사상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맑고 깨끗하다. 따라서 본성은 우울하지 않다. 혹 사람이 우울함에 빠져있다면 그것은 청명한 자신의 본성을 잃고 스스로 감정에 휘말려 있어서 그렇다. 우울한 사람을 구하는 일은 우울의 반대 상태인 창천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의 본성대로 맑은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울함을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선적(禪的)인 처방인 것이다.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에게 물었다.

조주 " '마음은 부처가 아니다. 지혜는 도가 아니다.' 여기에 뭔가 허물이 있습니까?"

남전 "있다."

조주 "어디에 허물이 있는지 부디 스님께서 말씀 해주십시오."

남전 스님은 조주 스님의 말을 따라서 했다.

남전 "마음은 부처님이 아니다. 지혜는 도가 아니다."

조주 스님은 불쑥 나가버렸다.

師問南泉云 心不是道智不是道 還有過也無 泉云 有 師云 過在合麼處 請師道 泉遂擧 師便出去

마음이 부처이고 지혜가 도인 것은 불법의 정론이다. 그런데 마음을 마음이라 하고 지혜를 지혜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음과 지혜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다. '마음' '지혜' '부처' '도' 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약속에 의한 명칭에 불과한 것이지 실체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지혜는 도가 아니라는 말 또한 불법의 정론이다.

그렇다면 '마음은 부처가 아니다. 지혜는 도가 아니다' 라는 말은 전혀 문제가 없는 표현일까? 이 또한 '아니다' 라는 단정이 들어간 것이므로 사람이 또 하나의 허상을 세운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표현도 맞는 표현은 아니다.

선은 구구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조주 스님이 어디에 허물이 있느냐고 묻는 것에 남전 스님은 조주 스님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반복해 말해봄으로써 제자가 틀린 곳을 스스로 알게 해준 것이다.

마지막에 조주 스님이 불쑥 나가 버린 것이 선(禪)의 묘미다. 조주 스님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었다. 특히 <조주록>에 굳이 싣지 않아도 될 내용인데, "불쑥 나가버렸다"고 기록한 것은 여기에 뭔가 뜻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 조주 스님은 선(禪)을 잘 아는 사람이라 남전 스님에게 감사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본다.

인간 본성은 원래 맑고 깨끗해 우울하지 않아

선은 구구한 설명보다는 스스로 깨닫게 한다

이제까지 11개의 선문답은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 휘하에 있으면서 스승과 문답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도를 깨달은 두 선승이 문답한 것이라 납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다만 본 납자가 우둔해 두 선사의 깊은 뜻을 다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다만 참고만 하면 되겠다. 이하는 조주 스님이 납자들을 접화(接化)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본격적으로 내보인 조주 선사의 선문답이다.

조주 스님이 법당에 올라가 대중에게 설법했다.

"이 일은 참으로 명백하다. 도량이 큰 인물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일찍이 위산(潙山) 스님에게 갔을 때, 어떤 스님이 위산 스님에게 물었다."

문승 "달마가 인도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위산 "나에게 의자를 가져다주게."

"만일 종사(宗師)라면 이처럼 본분의 일(本分事)로 사람을 인도해야 비로소 얻게 할 것이다."

그때 한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문승 "달마가 인도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조주 "뜰 앞의 잣나무이니라."

문승 "경계로써 사람을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주 "나는 경계로써 사람을 가르치지 않아."

문승 "달마가 인도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조주 "뜰 앞의 잣나무이니라."

師上堂謂衆曰 此事的的 沒量大人 出這裡不得 老僧到潙山 僧問 如何是祖師西來意 潙山云 與我將床子來 若是宗師 須以本分事接人始得 時有僧問 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 庭前柏樹子 擧云 和尙莫將境示人 師云 我不將境示人 云下如何是祖師西來意 師云 庭前柏樹子

달마는 인도 변방 사람이었다. 혹은 서역 월씨국 왕자라는 설도 있다. 달마 스님이 중국에 온 것은 부처님의 진정한 법문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두고 선문에서는 선(禪)의 중심적 내용을 물을 때 "달마가 인도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하고 묻는다. 선의 핵심 사항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본분사란 본질에 상통하는 것을 말한다. 조주 선사는 종사라면 사람을 지도할 때 항상 본분사로써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이 바로 깨달아 들어가지, 공연히 몸통이 아닌 가지나 잎을 보여주는 방법을 사용하다가는 오히려 사람을 망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과거 위산 스님이 본분사로 사람을 가르치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선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 위산 스님은 "나에게 의자를 가져다주게"라 했고, 조주 스님은 "뜰 앞의 잣나무니라"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조주 스님은 분명 잣나무라는 '나무(境界)' 에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한 의도를 탐구하면 된다.

'뜰 앞의 잣나무' 는 유명한 화두다. 만약 자신의 참 모습을 알고 싶다면 이 화두를 들고 참구하면 된다. 혹 인생과 우주의 근원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이 화두를 들고 수행한다면 틀림없이 어느 날 홀연히 트일 날이 있을 것이다. 화두는 반드시 풀린다. 불교는 답이 없는 것을 찾으라고 헛된 일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다. 많은 선사들이 이 화두로 삶의 피곤한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으니 이 화두는 바로 가는 지름길이다.

만약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나에게 묻는다면, "빈손으로 온 것을 환영해" 라고 대답할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10

육도(六度)를 거듭 밝히다 (1)

다시, "육도는 이를테면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지혜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육도(육바라밀)가 육근을 청정하게 한다' 고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육도를 닦고자 하면 당연히 육근을 깨끗이 해야 하고 육근을 깨끗이 하려면 먼저 육적을 항복시켜야 하기 때문이니라. 눈으로 바라봄으로 인해 생기는 번뇌를 버리면 눈으로 보는 모든 대상을 여의어 마음에 인색함이 없어지므로 보시라 하고, 귀로 들음으로 인해 생기는 번뇌를 여의면 소리의 경계에 끌려 다니지 않으므로 지계라 한다."(다음호 계속)

[원문]

又問曰 如經所說 六波羅密者 亦名六度 所謂布施持戒忍辱精進禪定智慧 今言六根淸淨 名爲六波羅密者 若爲通會 又度者 其義云何. 答曰欲修六度當淨六根 欲淨六根 先降六賊. 能捨眼賊 離諸色境心無固吝 名爲布施 能禁耳賊 於彼聲塵 不令縱逸名爲持戒….

[해설]

달마 스님은 육도를 육바라밀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육바라밀을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안 · 이 · 비 · 설 · 신 · 의 대상이 끊어져야 합니다. 육적은 눈을 통해 보고 좋다 나쁘다 분별하고 끄달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본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면 끄달리지 않지만 우리는 겉만 보고 있으니까 견물생심에서 욕심이 일어나고 배척하게 되며 마음이 탁해 집니다. 마음이 여섯 가지 기관을 통해서 끄달리면 마음이 나빠지기 때문에 육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이 눈을 통해서 속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여섯 가지 기관을 통해 마음을 나빠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육적을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이 없어야 됩니다. 본질을 보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빠져나가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겠죠? 우리가 보는 사물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본질이 모두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계도 역시 모양이 아닙니다. 모든 물질을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 생명 · 에너지로 돼 있습니다. 부처님은 3천년 전에 "우주는 마음으로 돼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계는 역시 모양이 없으니까 한 몸이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체를 마음으로 본다면 눈으로 봐도 본 것이 아니고, 귀로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겠죠? 성철 스님께서는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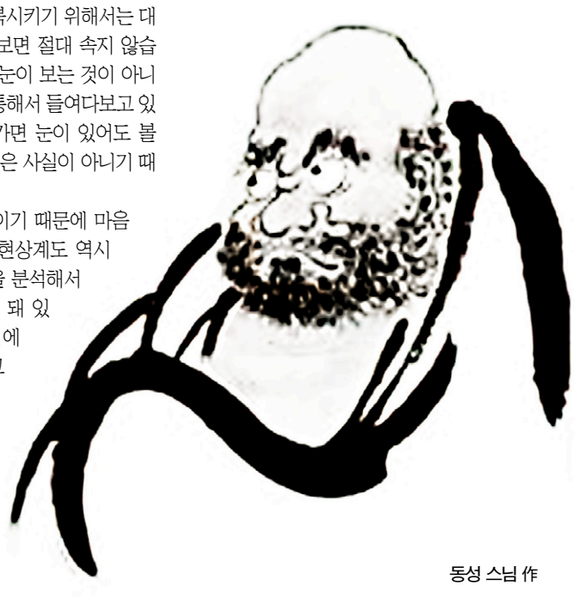
우리 본래 마음을 부처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인연 따라 나타나는 현상계도 부처님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이 다 관세음보살님이고 들리는 소리가 다 진리라는 말입니다. 성자의 눈으로 보면 모두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아직 성자는 되지 못했지만 보이는 대상을 모두 부처로 본다면 미운 사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없겠죠? 마음이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마음이 좋아지고 깨끗해지겠죠?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국토도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 할 때 마음이 안 · 이 · 비 · 설 · 신 · 의를 통해 색 · 성 · 향 · 미 · 촉 · 법에 접촉 하면서 온갖 나쁜 마음을 다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섯 기관을 드나들면서 나빠지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육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을 항복시켜야 된다는 얘깁니다. 보이는 대상을 마음으로 부처로 볼 수만 있다면 육적을 항복시킬 수 있습니다.

눈으로 사물을 보면 생각이 일어나지만 대상을 부처로 보고 마음으로 본다면 생각이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 때문에 알면서도 끄달려 갑니다. 습을 놓기가 정말 힘듭니다. 마음으로 보고 부처님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욕심이 없어져 이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남에게서 나쁜 소리를 듣게 되면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이를 성철 스님이 "들리는 소리가 다 묘음"이라고 하신 것처럼 진리로 본다면 모든 소리가 부처님 묘음이 됩니다. 묘음이라면 대상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지계라 합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동성 스님 作

지구촌 천지개벽을 이기려면 팔신공 도천명 받은 육경신 도통으로
이시대에 다시 태어나는 유 불 선이 하나로 되는 천지공사 경인년 천안통 대법회

좌좌우향이 진술축미로 바뀌고 산악문명이 해양문명으로 바뀌는 진법으로 지구촌에 천지개벽이 오고 있다.
이 시대에 경신도통 일만이천 도통군자들에게 새로운 중생제도법을 본 태일대사는 진인에게만이 생명을 다룰수 있는 하늘에 감추어진 진법을 전하노라

● 경신도통이란 멸하지 않는 영적부모인 것이고 인간의 수행으로는 죄와 업을 벗지 못하고 상에 빠져 음과 양상에서 못 벗어나는 것을 진광으로 삼시구충의 원뿌리를 뽑아 눈으로 보는 세상을 초월 말이 없는 생명의 빛으로 탐진치 껍질을 벗어 음과 양 산과 바다가 바뀌는 동방의 빛이 전세계를 비추니 대한국운이 전세계를 지배해도 금묘가 시작되는 경인년 양력 3월 10일, 11일 자시와 오시에 天福 大運을 받는 경신일 태양진광진법인 소울음 소리나는 곳에 도통군자들의 하늘에 뜻을 받는 천안통 도통법이 경신인 것이다.

천지공사 소 울음소리 나는 곳에서 생명의 빛이 혜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명을 열고 정신과 신심과 육신의 문을 열어 운수대통 팔자와 운명이 바뀌어 천하를 다스리는 천지공사 죽음의 뿌리를 끊고 시공을 넘어 견성도통으로 병없이 사는 이 수행법은 한번만 하여도 십년 수행한 공덕보다 나은 수행인 것이다. 전세계의 기운이 우리나라 운집하여 평화촌 시대가 시작되는 대비밀법에 일만이천 도통군자 동참하시어 주인되시고 이 법은 삼생의 인연과 덕을 쌓아야 수행하는 것이며, **달마종 종단**은 생활불교,거사불교,보살불교,대중불교 머리깎고 승복에 구애 받지않으며 남녀노소 연령제한없이 불법홍포에 뜻이 있고 수행하고자 하는 분은 입종을 언제라도 환영.

◆ 특별 금년 경인년은 해도금묘 광명의 해이므로 결혼과 가정과 직장 및 조상의 취직 도통군자들에게 운이 막히고 수행마장, 기도마장하는 것은 자기 조상해탈 못한 영가들의 방해이므로 본인의 삼생의 죄업을 벗고 악한운과 일체고액을 소멸하는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업장소멸로 열어주는 본인에게 돌아오는 공덕과 행운.

대운을 열어 막힌 운과 자금이 회전, 지혜 총명하여 병마가 침입하지 못하며 선신이 도와 도박, 음주, 담배 금연이 되어.사주팔자가 변하여 부귀장수 한다. 직장, 사회, 가정에 화합이 잘 되고 삼재팔란 관재, 인간 구설이 일체고통고액이 소멸되고 사고를 방지하며, 잡신에 빙의된 조상, 모태영가, 해원상생으로 만법을 다스리는 스승이 되는 도인이 된다.

천지공사 육경신수행이란? 천하의 비밀법에 감추어진 운명을 비켜갈 수 없는 기구한 팔자를 업장소멸하여 자신의 운명을 조종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사는 수행인 것이고 천지공사인 것이다.



心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 천지공사 경신도통으로 천안통을 열어 상통천문하달지리로 자신의 일체의 병을 다스리고, 귀신마장의 포망을 넘어 유불선이 하나로 되는 천지공사 천안통 득도하는 법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 봉행. 금년 유행되는 신종풀루 전염병과 그 어떠한 병도 다스르는 의통 능력자인 초능력을 얻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도인이 된다.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종조계종
부산 금정구 장전3동 **천 룡 사** 보현스님 합장
휴대폰 051)635-3110 / 010-8533-1601

세계불교달마종 천지공사 경신도량 수행처 태양의집 천룡사
법당인연자, 맞이공양자, 수행자, 인연자 동참자. 달마종 입종 환영.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 259번지 ☎ 041)867-7763 / 010-7728-6707

● 입제 : 양력 2010년 3월 10일(음 1월 25일 수요일)(해시)
● 해제 : 양력 2010년 3월 11일(음 1월 26일 목요일)(해시)
02-821-6622, 821-7767, 010-3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 461번,153번으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관음정사 별관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교육원
천지공사웅조미륵달마 경신 도통회
사단법인 세계불교 달마종 총 본산 태일합장

"미래가 살아있는 교육" "실력이 살아있는 교육" "불교가 살아있는 교육"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종교지도자 불교학과정 1기생 모집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국내 최고의 파워 프로그램
불교적 리더십과 국제적 종교경영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 양성

본 과정은 21세기 들어서면서 환경이 급변하고 종교적 사조가 변질되어가는 사회적 상황에서 실력과 불교적 지도력을 겸비할 수 있는 정치전문대학원 종교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개설하였습니다.
준비된 학습 Program을 통하여 종교적 지도력 재충전과 조직의 지도자의 글로벌 리더이자 불교인 파워엘리트 네트워크의 주역으로 보람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모집인원 ▌00명
모집대상 ▌스님, 재가자
교육기간 ▌1년 - 2학기(봄, 가을)
교육일시 ▌매주 화요일 17:00 ~ 20:30
원서접수 ▌3월 14일까지
제출서류 ▌입학원서, 재직증명서 각 1통, 대학(불교학)교 최종졸업증명서, 사진(반명함) 3매
합격자 통지 ▌서류심사 후 합격자 개별통지

특전
· 총장명의로 정치전문대학원 종교지도자 불교학 졸업증서
· 화엄학당 전강원 입소자격 부여(각성 큰스님)
· 조계종 및 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적 승려, 종무원, 공무원, 정보 투자기관 임직원, 사회교육직, 불교언론인,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강의 내용
각성 큰스님 및 저명 교수 초빙
불교적 주역/불교지도자 리더십/인도불교철학/비교종교/사회헌법과 불교관계법/지도자 스피치/화엄경 및 법화경/사찰경영 및 행정(포교전략)/특강

선교경전연구회 회장 법경

(120-70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71번지 경기대학교 대학원 4층 46호 문의 02-312-2400 010-4242-7070



은해사 한주 금용 스님

금용 스님은 ...
전남 곡성에서 출생했다. 1959년 구례 화엄사에서 정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그 후 일타 스님 밑으로 건당했다.
오대산 상원사, 문경 봉암사, 양산 통도사, 극락암, 부산 선암사, 범어사 등에서 안거했고, 총무원 규정 · 재무 · 교무부장과 불교신문 주간, 제8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일타 스님과의 인연 이후 줄곧 은해사에 주석하고 있다.

자기 최면은 자기 삼매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불법 최면

<佛法>

서울 시내에서는 몰랐다. 안개가 심한지. 나그네는 그저 날이 밝지 않아 그러려니 했다.

안개는 구름과 달랐다. 땅바닥에 붙어서인지 안개는 산을 넘지 못했다. 터널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안개가 자욱할 때도 있었고, 전혀 없을 때도 있었다. 터널을 두고 안개가 있고 없음에 따라 명암이 엇갈렸다. 차안(此岸)과 피안(彼岸)이 나뉘는 듯 했다.

안개 속을 한참 달려 영천 은해사에 도착했다. 나그네는 한주(閑主) 금용 스님을 만났다. 한주는 아무 소임이 없는 소임이다. 어른스님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한가한 소임이다. 스님은 20여 년을 은해사에서 '한가롭게' 살고 있다.

전남 곡성에서 태어나 자란 금용 스님은 지리산 화엄사에서 출가했다. 어릴 적 "절에 가면 공부 할 수 있다"던 말이 생각나 무작정 길을 나섰다. 곡성에서 구례까지 걸어서 찾아 간 화엄사에서 대처승이었던 정혜 스님을 은사로 스님이 됐다.

당시는 1950~1960년대 비구 · 대처 싸움이 한창이던 때였다. 스님이 출가한 때는 정화가 막 끝나고 통합종단 조계종이 출범하기 직전이었다. 금용 스님의 은사스님은 대처승이었으나 비구 종단에 합류했던 화동파(和同派)였다.

젊은 시절 스님은 간화선 수행에 목숨을 걸고 정진했다. 전국 선방을 돌며 존재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나갔다. 금용 스님이 오대산 상원사, 문경 봉암사, 양산 통도사, 부산 선암사 등에서 화두에 매달리며 보낸 시간은 이미 살아왔던 시간보다 길었다. 특히 스님은 양산 통도사 극락암과 부산 선암사에서 살 때 당대의 선지식이었던 경봉 · 석암 스님을 모시면서 많은 공부를 했다.

"스님, 경봉 · 석암 스님을 모시고 정진하실 때 일화는 없으셨습니까?"

"없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때뿐이지. (지난 일을) 되새김하지는 못해."

나그네는 금용 스님의 대답이 야속하지 않았다. 눈 푸른 납자가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한 발 내딛기 위해 치열하게 수행한 것을 단지 세속인의 이야기꺼리로 만들려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무례이기도 했다.

금용 스님은 1964~1967년 군대를 다녀왔다. 영천 부관학교에서 행정교육을 받고 의무단 본부사령실에서 복무했던 스님은 군에서 일생의 '업(業)'을 좌우한 경험을 했다.

전역 후 어느 날, 난데없는 총무원의 부름에 스님의 서울 생활이 시작됐다. 조계종 종정이던 고암 스님을 모셨던 스님은 1970~1980년대 견지동 일대를 풍미했던 도사였다.

스님은 당시 조계종 재무부장을 비롯해 규정부장, 한 때 불교신문 주간도 맡았다.

"스님, 수좌였던 스님이 행정승으로 살자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불러서 가보니 할 일이 많더라고. 내 공부도 좋지만 출가자로서 총무원을 바꾸는 것이 우선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열심히 했지."

공심(公心)으로 뛰어든 사판승 생활 동안 스님은 조계종단의 변혁기에 큰일들을 해냈다. 수좌답게 매사를 적극적으로 처리해냈다.

1970년대 조계종이 조계사와 개운사로 나뉘어 싸울 때 선봉에 섰던 것도 스님이었다. 금용 스님은 1980년대 신군부가 불교계를 짓밟은 10 · 27법난을 몸소 체험했다.

스님 표현을 빌자면, "불교계 나쁜 놈 43번째"가 금용 스님이었다. 온갖 고초를 받고 죽을 고비도 넘겼던 스님은 "남 탓 할 것 없다. 불교계의 근원적인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말했다.

"'싸우지 말고 비구는 수행을, 대처는 교화를 하며 합리적으로 살자'던 백양사 송만암 스님의 제안대로 됐다면 좋았을 텐데, 당시 젊은 비구스님들이 만암 스님 말을 듣지 않았지. 당시 비구들은 '불법(佛法)에 대처승 없다'고 주장했는데, 부처님 법에 대처승이 왜 없어? 부처님 당시 부처님 법력에 귀의했던 바라문이 지금의 대처승이고, 나한이 비구인데."

민감한 사안에도 걸림없는 금용 스님의 주장을 들으니 스님의 살아온 세월이 얼추 짐작됐다. 모난 돌은 정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었던 때 종단을 '개혁'한다고 또 다시 대중의 맨 앞에 섰다가 '졌다'. 열심히(?) 살았던 부작용으로 스님은 한 때 구지소에서 영어의 삶을 살기도 했다. (스님은 1984년 총무원 청사 침입을 주도했던 행동대장이었다.) 4개월 수감 뒤 집행유예로 풀려난 금용 스님은 그 길로 처음 출가했던 지리산으로 향했다.

지리산 영원사에서 6년을 살았다. 그곳에서 <법화경>을 만났다.

"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읽는 것 모두가 하나하나 마음에 들어오고 그때 시작한 <법화경> 공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글자를 본 것은 30여 년이지만 뜻에 들어간 것은 15년쯤 밖에 안돼. 그때부터 다시 번역을 시작했고. 번역을 두어 번 했는데 계속 교정 · 보완 중이야."

<법화경> 공부는 스님이 참선해 온 정진력으로 경전을 꿰뚫는 새 수행법이었다.

"<법화경>은 부처님 사상의 핵심이 담긴 수행경전이야. 흔히 만법귀일론이 법화경의 요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어. '만법귀일(萬法歸一)'이 '일귀하처(一歸何處)'까지 이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법화경>의 요체야. 무엇보다 <법화경>은 아뇩보리, 원만각(圓滿覺)을 얻는 것이 목표이지."

금용 스님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한자로 무상정등정각이라 번역하는데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쉬운 말로 고쳐 번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보살, 열반, 삼매 등 한자어 그대로 쓰는 것도 좋지만 불교가 대중화되려면 용어부터 쉽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금용 스님이 만든 신조어가 무위자진(無爲自盡, 열반), 불법최면(佛法催眠, 삼매), 도사(導士, 보살) 등이다.

"열반은 쉽게 말하면 죽음의 세계를 살아서 느끼는 것인데, 함이 없는 즉, 죽을 것 없는 죽음. 이것이 열반 아니겠어? 또, 자기 최면은 자기 삼매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일체 중생을 삼매에 들게 하니 불법최면이지. 보살은 지도자적 인물을 뜻하는 것이고."

스님은 "진리는 모두 하나로 통한다"며 "참선 간경 염불 등 수행법이 모두 <법화경> 안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삼승(三乘), 즉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菩薩)을 풀이하면 성문은 유위학(有爲學)이고 연각은 무위학(無爲學)이지. 성문과 연각까지는 참선 등을 통해 열반을 증득하기 위한 방편

한국 미래는 문무의 중도적 수용에 달려 있어

자칭 '불교계 나쁜 놈 43번째' … 법난 체험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찰귀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수월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린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2010년 드는 삼재시작 용띠, 쥐띠, 원숭이띠, 조심

삼재소멸과 닥처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쥐띠,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뱀띠,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금액 45,000원
문의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공급가격 별도 상담요)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

법화경, 아뇩보리 원만각 얻어

수행을 하는 것이고, 부처님 본뜻을 훈습하는 것이 보살이야."

스님은 "옛날 사람은 식견이 부족했지만 업장이 순박해 지혜의 눈을 쉽게 떴다. 그래서 견성한 선지식이 많았다"면서 "현대인은 승속을 막론하고 세상에 대한 인지 정도가 연각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용 스님은 "조사스님들을 비롯해, 상대성이론을 주장한 아인슈타인, 무위사상을 설파한 노자 · 장자,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 공자, 예수 등이 바로 연각"이라고 말했다.

"적벽에서 바람을 불게 해 조조의 대군을 물리쳤다는 제갈공명도 연각이야. 제갈공명이 바람을 불게 한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수리로 해석한 것 뿐이거든. 연각이 되면 수리에 밝아져.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결국 과거를 계산해 통계를 얻는 작업이고."

금용 스님은 "출가자들이 수행 정도를 착각하는 근본 원인은 자신의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고 "재가의 인격자라 불리는 사람들도 자기 수준을 몰라 방황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사람들이 자기 수준을 모르는 것을 '업장이 두텁기 때문'으로 봤다. 아는 것이 많이 쌓이다 보니 결국 병이 되고, 아는 것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용 스님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현실에 도움을 줄 수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화경>을 지혜의 창고라고 하는데, 그 지혜가 현실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봤어. 내가 총무원 생활을 시작했을 때 가진 문제가 △불교사상의 정립 △남북통일 △환경문제 등인데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거의 다 풀렸지."

산중에서 아이티 지진 참사 소식을 들으셨는지 스님은 지진을 예로 들었다.

"지진이 일어나면 5000~5만명이 죽거나 다치는데 어떻게 하면 인명 피해를 줄일까? 이 방법이 지혜 아니겠어? 내가 지리산에 있을 때 TV에서 일본 고베 지진을 봤는데 지진도 충분히 미리 알 수 있어."

금용 스님은 보살이었다. 중생이 아프면 함께 아픈. 스님의 입에서 "고베 지진…" 말이 나오는 순간 눈가에 이슬도 함께 맺혔다.

스님이 (지혜로써) 제안한 지진 피해 예방법은 의외로 쉬운 방법이었다.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마다 시추공을 뚫고 일정간격으로 감지기를 설치하자는 것. 지중부에서 시작되는 지진이 지표까지 전달되려면 수시간이 걸리니 미리 감지하면 사람들을 대피시킬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용 스님은 "남북 평화통일은 <반야심경>의 실천으로 가능하다"고도 귀띔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色卽是空空卽是色)"이니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집착할 것 없이 서로의 장점만 수용하면 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그 실천이 쉽지 않은 이유를 스님은 미국 등 강대국의 견제 때문이라 진단했다. "한국 위정자들이 강대국에 기대 배부른 돼지가 되려 하기 때문이다. 주체성을 지키려면 방어 개념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스님은 "고구려는 무(武)에 치중해 강했지만 멸망했고, 조선은 문(文)에 치중해 외침이 그치지 않았다"면서 "한국의 미래는 문무를 중도적 지혜로 수용한 교육과 사회운영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나그네는 궁금했다. "스님, 좋은 뜻을 펼칠 생각을 왜 안하시나요?"

"경전에 부처님이 '누실될까 염려된다'고 설한 부분이 있어. 이 경구를 한 스님이 선정에 들어 살펴보니 '누실'은 쉬운 말로 '설치다 피본다'는 말이라고 하더군. 연각이었던 예수가 초지의 낮은 깨달음을 갖고 설치다가 피 봤잖아? 하하하"

금용 스님의 지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진심은 아닌 듯 했다. 나그네가 조금 더 물었다. 스님이 말했다.

"제바달다 탓에 재출가한 부처님은 10년간 원만각 수행을 하셨지. 설법을 해도 대중이 알아듣지를 못하니 부처님도 '빨리 죽어버릴까'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고. 중생들이 듣고 싶어하지도 않는데 괜히 말해봐야 소용 없잖아? 수행 · 정진하다 인연되면 뭔가 이루는 것이고, 아님 다음 생으로 미룰 생각이야."

나그네는 30년 재야생활을 통해 세상을 달관한 선지식에게서 모난 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왔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84. 30년 美 포교로 구도행, 도안 스님

도안 스님은 30여 년간 미국에서 포교해 온 해외포교의 1세대로 한인 사회를 하나로 아우르는 구심점이었다. 스님은 초기 미국 이주역사에서 불교를 넘어 한인사회 전체를 통합하고, 종교간 화해를 위해 노력해 온 큰 스승이었다.

1958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도안 스님은 1970년부터 1982년까지 녹야원 주지를 지냈으며, 이 기간 중인 1975년 로스앤젤레스에 관음사를 개원했다.

도안 스님이 미국행에 올랐을 당시에는 국내에서 해외포교의 중요성이나 재미교포 불자들의 신행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도안 스님의 하루는 항상 바빴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저녁 10시가 넘도록 잠시도 자리에 앉을 틈이 없었다. 옆에서 지켜봤을 때 그 동분서주의 모습이 매우 안타깝게 여겨졌지만 초창기 미국불교개척자로서는 어찌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스님은 1975년 LA관음사 주지로 부임한 뒤 10여 년 간 각고의 노력 끝에 1000평 규모의 유대인 교회를 매입해 법당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문화원을 개설했으며, 어린이 포교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져 로스앤젤레스 연화어린이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님은 LA 다운타운의 유대인 교회를 인수하면서 경제적 압박을 많이 받았다. 스님의 광범위한 포교활동에 비해 들어오는 수입이 너무 적었다. 그러나 미국불자교민들의 열성어린 후원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그 역경을 이겨냈다.

스님은 고난에도 정진과 정진을 거듭하며 5만평 부지에 달하는 불교 유치원과 도량을 조성했고 미 교포와 미국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불교대학도 설립했다.

이중 2003년 스님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뉴욕 맨해튼에 건립한 '한미 불교문화원'은 한국불교를 미국 주류사회에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터전이 됐다. '한미 불교문화원'의 건립은 미국 주류사회의 불교에 대한 관심에도 티베트 일본 중국불교 등에 비해 한국불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400여평 규모의 문화원에는 참선과 다도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도안 스님의 원력이 서려있는 LA관음사에서 서양불자들이 참선 삼매에 빠져있다.

5만평 달하는 도량·유치원 조성…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관심

이밖에 스님은 1964년 운문 스님과 함께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를 결성했고, 이후 동산불교대학 지부를 설립해 많은 지성불자들을 양성해 교민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었다.

또 스님은 어린이 · 청소년 · 청년 포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스님은 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한미불교봉사회, 한글학교, 어린이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불심의 씨앗을 뿌렸다.

특히 스님은 남북불교교류에도 큰 역할을 했다. 스님은 불교평화문제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하와이 대원 스님과 함께 민족통일운동을 이끌었다. 1991년 10월 29일 미국 LA에서 남북한 및 해외 동포 불교 지도자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봉행한 '조국평화통일 기원 불교도 합동법회'는 도안 스님이 없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 이 법회는 남북 불교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스님이 한국에 있을 때는 적조암 주지로 계시면서 동국대학교에서 학업에 정성을 다 했다. 스님은 신도들의 애환사를 빠짐없이 살피며 보살행을 실천했다.

통일운동과 미국 포교, 재미 한인 사회 통합 등의 선봉에 섰던 도안 스님의 마지막 바람은 역시 평화통일과 한인 사회의 화합이었다.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미국포교에 매진한 도안 스님은 2006년 8월 28일 세수 70세로 갑작스럽게 입적했다.

2001년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대수술 끝에 재활 했지만 종양이 폐와 간으로 전이된 것이 원인이었다.

당시 큰스승을 잃은 미국 한인사회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불교와 세계중생을 위해 끊임없이 구도행을 펼친 스님의 위법망구 정신은 교민들 사이에 살아, 미주불교를 이끌었다.

210만 미주 한인 사회가 고난의 타향살이에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곁에 밝은 등불로써 남은 도안 스님의 가르침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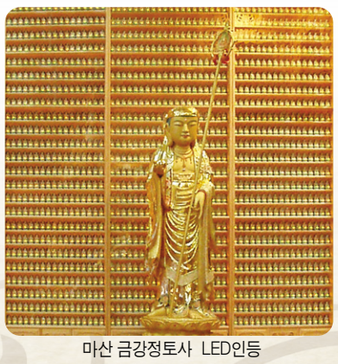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리밀 만월등(육바리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불교 철저히 통제하면서 개인적으론 신봉

<52> 청대 황제들의 불교정책과 봉불(奉佛)

청대에는 명대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통치이념을 정주(程朱) 이학(理學)으로 채택했다. 순치(順治) 3년(1646) 선포된 '과장조례(科場條例)'에서는 정주 이학과 유가 경전만으로 과거를 치르도록 규정했다. 이에 "지금의 학문은 오직 주자(朱子)를 종(宗)으로 할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주자만이 바른 학문이요, 주자가 아니면 올바른 학문이 아니다"(<청학안소식(淸學案小識)>)라는 한탄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대 황제들은 명대에서와 같이 불교에 대한 통제를 더욱 철저하게 했다. 명대의 승록사(僧錄司) 제도를 유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명대보다도 철저하게 도첩제(度牒制)를 시행해 일반 백성들이 마음대로 승려가 되는 것을 막았다.

불교에 대한 통제는 철저했으나 청대의 황제들 중에는 불교를 신봉하는 이들도 있었다. 청의 세조 순치제(順治帝)는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어 선학(禪學)에 상당한 조예를 보였다. 순치제는 순치 4년(1657)에 경서(京西) 해회사(海會寺)의 감박성총(憨璞性聰) 선사를 궁으로 초청해 설법을 듣고 '명각선사(明覺禪師)'라는 호를 내렸다. 후에 다시 옥림통수(玉林通琇) 선사를 청해 설법을 듣고, '대각보제선사(大覺普濟禪師)'의 호를 내렸다. 목진도민(木陳道忞) 선사를 입경시켜서는 수시로 찾아 도를 묻고는 '홍각선사(弘覺禪師)'의 호를 내렸다. 순치제는 불법을 신앙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법을 구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소정잡록(嘯亭雜錄)> 권1의 <세조선선기(世祖善禪機)>에는 "세조는 선의 깨달음, 특히 깨달음을 펼침에 있어서 뛰어났다. 일찍이 옥림 · 목진 화상을 입경시켜 만선전(萬善殿)에 머무르게 했다. 업무에서 한가한 틈을 빌어 때때로 두 선사와 선기(禪機)를 논해 대승에 달통했다"라고 기록했다. 후에 다시 통수 선사를 입경시켜 '국사(國師)'로 삼아 1500승려에게 수계했다. 이 때 통수 선사는 순치제에게 '행치(行痴)'라는 법명을 주었다. 법명을 받은 순치제는 이후 통수 선사에게 보내는 어찰(御札)에는 항상 '제자모모(弟子某某)'라고 썼고, 통수 선사의 제자들에게는 '법형(法兄)', '사형(師兄)'의 명칭을 사용했다. 또, 공문서에는 자주 '치도인(痴道人)'의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순치제는 순치 18년(1661년), 천연두에 걸려 24살의 나이로 요절했다. 일설에는 순치제가 지극히 사랑했던 후궁 동악(董鄂)이 병사하자 정치에 뜻을 잃고 오대산(五臺山)으로 출가(일설에는 경서(京西) 천태사(天台寺)로 출가)해 손자인 옹정제(雍正帝) 시기에 입적했다는 전설도 전한다. 이는 순치제가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에 귀의했고, 자주 출가를 원한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전설이 아닐까 한다.

순치제를 계승해 황제가 된 성조(聖祖) 강희제(康熙帝)는 기본적으로 불교가 중국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으니 불교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강희제는 "승려는 계율만 지키면 된다"고 인식하고 주자학을 추숭하는 동시에 불교를 보호했다. 치세시에 여섯 차례에 걸쳐 남방을 순시했던 강희제는 그때마다 각 지역의 유명한 선승들을 만났다. 또한 수많은 사찰의 현판을 써주었다. 반면에 강희제는 강희 16년(1677)에는 경성 내의 사찰에서 승려가 백성들을 모아 설교하는 일을 금지하고 부녀자가 사찰을 참배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만약 이를 어기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락한 사찰과 그 가족을 처벌한다는 규정까지 만들었다. 이러한 불교의 통제정책은 명대로부터 이어져온 기본적인 노선이었다.

도첩제 시행해 백성들이 승려가 되는 것 막아
중국불교 쇠락의 길 명맥만 유지

청대의 대표적인 독재군주인 세종(世宗) 옹정제(雍正帝)는 어려서부터 불교에 심취해 항상 선승들과 왕래하며 선학을 연구했던 인물이다. 그는 '원명(圓明)거사'라는 자호를 사용했다. 또한 스스로 선을 논한 어록과 시문(詩文) 등을 모아서 <원명거사어록(圓明居士語錄)>(<어찬어록(御選語錄)>권12 수록)을 찬술했다. 세종은 당시 유명한 선승 혹은 대신들과 선학을 논한 것을 모아 <당금법회(當今法會)>(<어찬어록> 권19 수록)로 집성했다. 후에 옹정제는 친히 역대의 선사어록 19편을 편집해 <어찬어록>(<만속장경(卍續藏經)>119책 수록)이라고 했고, 총서를 비롯해 각 어록에 서문을 찬술해 20편의 서문을 실었다.

<어찬어록>의 총서에는 "지금 옛사람들의 말을 보니, 짐의 말과 대부분 서로 들어맞아 무심(無心)히 스스로 합한다. 원음(圓音)이 이와 같으니 어찌 놀랍지 아니한가!"라고 해 옹정제는 자신을 선문의 종장(宗匠)으로 여겼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당시의 불교계에 대해 "명리에만 마음을 쏟고 커다란 망어를 짓고서", "계율을 중시하지 않으며 서로 기만하고", "불자(拂子)를 팔고 법의(法衣)를 파는 것이 시장과 똑같다."(<어찬어록>권12)라고 맹렬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당시의 불교계는 담연원징(湛然圓澄; 1581~1626) 선사의 <개고록(慨古錄)>에 나타난 것처럼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의 타락은 명 · 청시기에 불교에 대한 철저한 통제정책으로 인해 불교의 교세가 쇠락했고, 그에 따라 뛰어난 인물이 배출되지 못했으며, 교의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에 기인했다고도 볼 수 있다.

옹정제는 이러한 불교계의 상황을 개선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옹정제 스스로 '원명거사'라는 호를 짓고서 선학을 연구했던 것은 불교에 대한 절대적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고, 나아가 세간과 출세간 양계 모두의 황제로 군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실제적으로 <어찬어록>에 보이는 옹정제의 선학에 대한 견해는 결코 새로울 것도 독자적인 것도 없다.

옹정제의 11권은 '승조(僧肇), 현각(玄覺), 한산(寒山), 습득(拾得), 영우(靈祐), 혜적(慧寂), 종심(從諗), 문언(文偃), 연수(延壽), 중현(重顯), 극근(克勤), 통수(通琇), 행삼(行森)' 등 모두 13인의 어록과 도교의 조사인 장백단(張伯端)의 어록을 싣고 있다. 이러한 편제를 기본으로 옹정제는 선종의 위앙 · 운문의 양가만을 취했다. 또, 임제 · 법안 · 조동의 삼가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옹정제가 이러한 편제를 한 까닭을 위앙 · 운문에서는 "'부자제미(父子濟美)', '대자대비'의 사상적 풍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그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있음이 짐작된다.

옹정제 입장에서는 임제종에서의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욕함[呵佛罵祖]"의 가풍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옹정제는 단하천연 선사의 소불(燒佛)에 대해 "단하가 목불을 불사른 것을 그 어록에서 보았는데, 견해가 다만 무심(無心)에 머무른 것이고, 실제로는 광참(狂參)이요 망령되이 지은 것이다. 단하의 견해에는 목불 이외에 다른 부처는 없는 것인가? 만약 이렇다면, 자손이 선조의 위패를 불사른 것과 같고, 신하가 왕위를 찬탈한 것과 같으니, 가당치도 않다"(<어찬어록>권14)라고 혹독하게 평가했다. 이로부터 옹정제가 선학을 연구했고 <어찬어록>을 편찬한 것은 단지 정치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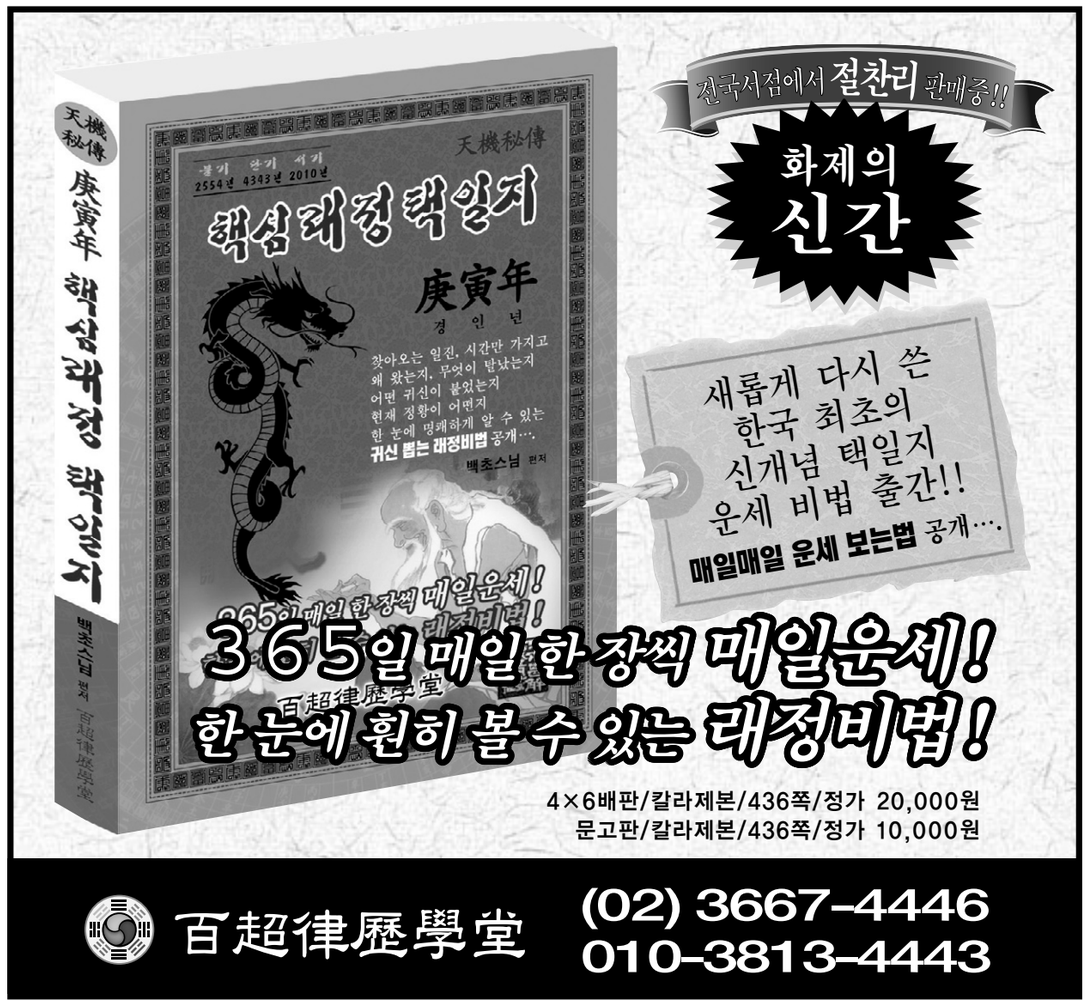
옹정제는 강희제가 백성을 교화하고 통치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찬술한 '육유(六諭)'를 확대해 '성유십육조(聖諭十六條)'로 작성하고, 각 조항마다 친히 설명을 붙이고 그 의의를 해설한 <성유광훈(聖諭廣訓)>을 지어 전국에 반포했다. 그 7조에 '이단(異端)을 물리치고 오로지 정학(正學)을 받들라'는 항목에 대한 설명에서 불교는 한 명이 출가하면 구족이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는 망설을 내뱉어 지옥 · 윤회 · 응보 등의 허담을 설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용화회(龍華會) · 우란분회(盂蘭盆會) · 구고회(救孤會) 등을 만들어 남녀가 혼잡하게 하고, 주야를 불문하고 강경 · 설법으로 이익을 도모하며, 심할 경우에는 당(黨)을 만들어 맹(盟)을 결성하고 세상을 미혹하게 하며 백성을 무고하게 만든다고 극단적인 평가를 했다. 이것이 옹정제의 참다운 불교에 대한 입장이었다.


그림 · 김홍인

옹정제를 이은 건륭제(乾隆帝)도 제도적으로는 옹정제처럼 불교를 통제하는 정책을 폈으나 자신은 불법을 숭상했다. 특히 건륭제는 대장경 판각에 관심을 갖고서 건륭 3년(1738)에 완성하는데, 이를 청장(淸藏) 혹은 용장(龍藏)이라고 칭한다. 또한 건륭제는 이를 만주어로 번역을 하는데, 건륭 38년(1773)에 시작해 18년 만에 699부, 2466권을 완성했다.

청대는 명대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불교를 통제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그러나 황제들은 한편으로 제도적으로 통제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불교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철저한 불교의 통제정책은 이미 중국불교를 쇠락하게 하는 결정적인 작용을 했지만, 황제들의 개인적 신앙으로 겨우 그 명맥만은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어쩌면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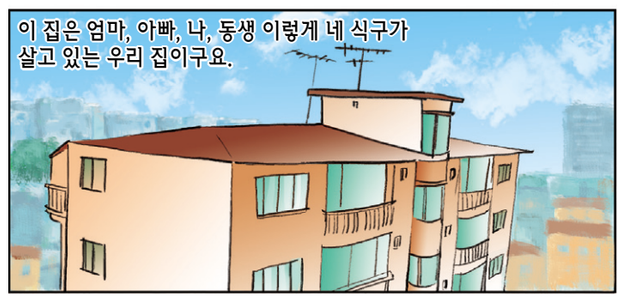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요절복통 여래네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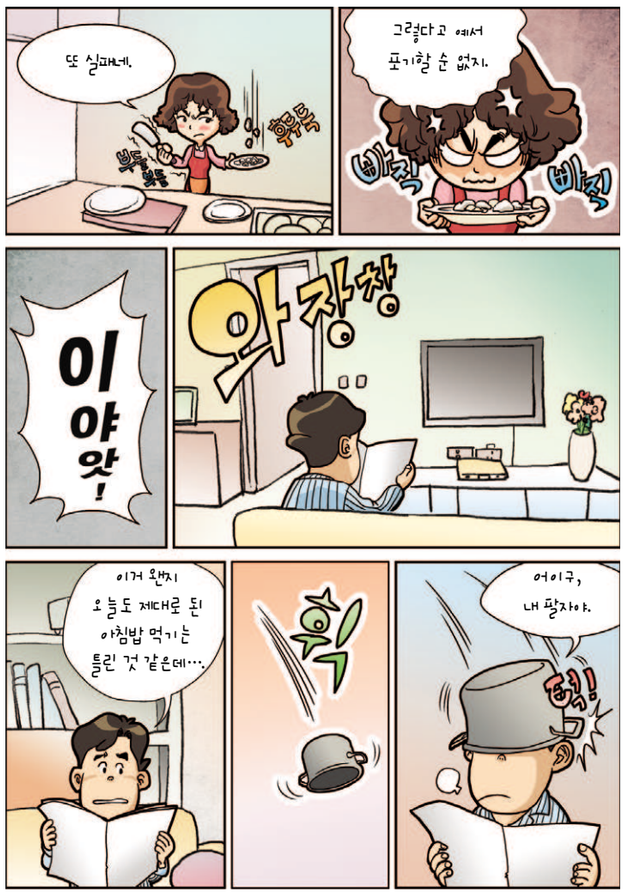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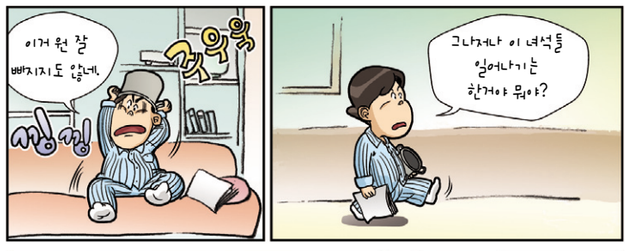
#1. 아침풍경



스튜디오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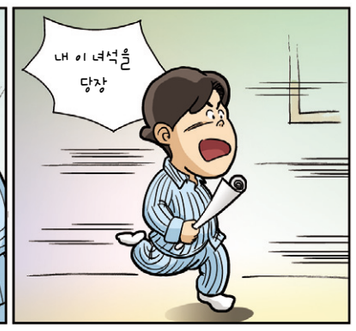


















이주일의 화두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으며
젊고 건강하면서도 그 의지력이 약하고
게을러빠진 사람 그는 결코 저 지혜의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 법구경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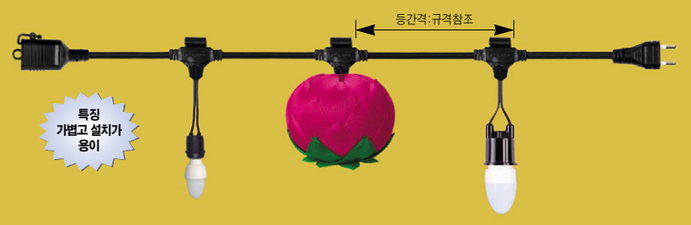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불제제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산사의 숲, 생명을 품다



지난 일요일, 온 가족이 함께 수락산에 갔다. 계곡물은 아직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지만 햇살과 바람은 봄기운이 가득했다. 등산객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보였다. 아직 겨울옷을 입고 있는 산이지만 어느새 봄이 저만큼 다가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봄이 오면 경치 좋기로 이름난 전국의 산들은 사람들의 발길에 몸살을 앓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찰은 산 깊고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고, 크고 작은 문화재를 하나둘 이상은 소장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고 문화유산을 보기 위해 사찰을 찾는다. 그러나 사찰 주변의 숲과 개울에는 어떤 나무와 풀이 자라고, 무슨 물고기가 살고 있는지, 어떤 동물과 곤충들이 사는지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라고 권한다. 사찰은 물론 주변 숲과 자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즐거움과 여유를 되찾아 보라고 한다. 자연을 생각하고 산사의 숲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책인 셈이다.

사찰숲에 애정 가지라 조언

변의 숲 환경은 과거에 비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정부의 개발지상주의 정책과 대형 불사 같은 불교 내부의 요인 등으로 사찰 주변의 숲 환경은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다.

사찰생태연구가인 저자는 사찰숲 환경 파괴를 막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숲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사찰 숲의 현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108사찰 생태기행-산사의 숲' 시리즈가 그것인데, 이 책은 그 다섯 번째 결과물이다. 파주 보광사, 수원 용주사, 서산 개심사, 공주 마곡사, 구미 도리사, 달성 용연사, 청도 운문사, 울산 석남사, 장흥 보림사, 진도 쌍계사 등 10개 사찰의 숲을 살펴보고 있다.

덕분에 나도 책을 읽으며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아대는 모습을 처음 봤던 기억을 떠올렸다. 하도 신기해 주위도 잊고 한참을 멈춰 서서 그 모습을 올려다보았다. 오래 전, 겨울의 끝자락 눈 덮인 법흥사 숲길에서였다.

산이 좋아 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혹은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게 저자

산사의 숲, 생명을 품다 | 김재일 지음 | 지성사 펴냄 | 1만7000원

강지숙 / 서울 상계동에 산다.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남자아이를 키우며, 세상 일에도 관심이 많은 주부다.

현대인 눈높이 맞춘 '禪'

'선문보장록' 번역한 현각 스님의 '아난의 입 가섭의 마음'



근본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근본을 알려면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하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책이 있다.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이 그 책이다. 이 책은 고려 때 진정 대선사 천책 스님이 찬술한 책이다. 최근 <선문보장록>을 번역해 <아난의 입 가섭의 마음>을 출간한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현각 스님은 "<선문보장록>은 현대인들의 근원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책"이라고 말한다.

천책 스님은 <선문보장록>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선법(禪法)의 등불을 가섭의 마음에 점등하셨고, 교학의 바다를 아난의 입에다 쏟아 부어 주셨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천책 스님의 말을 빌어 현각 스님은 선의 특징을 쉽게 풀이했다.

스님은 "<선문보장록>은 조사선 위주의 선풍이 대세이던 때, 조사선풍은 여래선에 비해 우월 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으며, 더불어 교학에 대해 비교우위를 주장하는 풍조 속에 쓰여졌다"고 말했다. 선학자인 현각 스님은 이 책에서 선문이 교학보다 한 차원 높았다는 천책 스님의 논지를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게 소개했다.

하지만 책이 단순히 교학을 부정하는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 책은 선의 저변에 교학자를 내세워 선교가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

책은 '권상' '권중' '권하' 3단계로 구성돼 있다. '권상'은 선과 교학을 상대적 입장으로 간주해 그 차이 및 우월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권중'은 교학자가 선문으로 귀의하게 된 내용, '권하'는 재가인들 중 선문에 귀의한 이들의 활동 내용을 적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장애인입니다. 외적 장애 못지 않게 내적 장애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책은 이런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총 86칙의 전거를 선지로 풀어낸 '아난의 입과 가섭의 마음'이 어디에 들지는 독자가 판단할 몫이다. 책은 선주교종(禪主敎從)의 입장에서 선과 교학의 일체와 합일을 보여주고 있다.

아난의 입 가섭의 마음|천책 찬술 · 현각 역해|동국대학교출판부 펴냄|2만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사람이 그리운 날에는…



"그 짐이 무슨 짐인가요?"
"출가하는 짐입니다."
"다시 풀 수 없나요?"
"장부의 결심인데 어찌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출가를 결심한 스님이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 친구와의 만남에서 나눈 대화이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떠오르게 하는 이 대화는 책의 저자인 법광 스님의 실화이다. 크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스님들에게도 이런 아련한 추억담이 있었다니, 굳이 책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스님의 성품이 느껴진다.

불가(佛家)에서는 참선하는 스님을 일컬어 '선객(禪客)'이라 말한다. 나그네를 뜻하는 이 말은, 아마도 어느 곳에도 매이거나 집착함 없이 정진하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스님은 선객이란 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 "지는 노을에도 가슴이 설레인다"고 말할 만큼 스님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 같다. 그렇기에 자신의 수행담을 영사기가 돌아가는 오래된 영화관에서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보는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아련하고 애틋하게 풀어놨다.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스님의 글들은 자연스럽게 읽는 이의 마음을 울린다. 그 파장이 읽는 내내 따뜻한 전율로 다가오게 한다. 눈에 띄게 특별한 구석이 없어 보이는 책 같으면서도,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옛 사람의 향수가 묻어나는 스님의 수행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선(禪)적이다. 어려운 말들로 한껏 풀어놓은 재미없는 수행담이 아닌, 사람이 그립게 만들고, 가슴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이야기들로 감동을 선사한다.

선객(禪客)|법광 스님 지음|한걸음더 펴냄|1만원

참된 행복 찾아 떠나는 길 안내서

'김영로의 행복수업' 영어도 한 번에 OK



행복인 줄 알고 무작정 쫓던 것이 일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행복해질 것이란 믿음이 한 순간에 불행으로 바뀌는 상황. 어쩌면 행복과 불행을 넘나들며 갈팡질팡 하는 것, 그대로가 삶인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일까.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한번 쯤 하게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진정한 행복은 뭐지?"

이런 고민에 답을 얻기 위해 미국 · 영국의 학교에서는 '행복수업'이 진행 중이다. "행복해지려면 이제 수업까지 들어야 하는 건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스스로 행복을 찾지 못하면 삶은 불행해진다.

우리 삶이 행복해지기 위한 지침서들은 세상에 널렸다. 하지만 이 책은 여느 책들과 다른 행복 지침서이다. 저자는 행복수업 시대의 문을 열고자 한다. 수행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은 저자는 귀한 가르침을 찾아 행복의 여행길에 오른다. 수행을 하며 붓다, 아띠샤, 빠드마삼바와, 샨띠데바, 아인슈타인 등 인류의 의식을 향상시킨 분들의 가르침을 찾아 행복 전도사로 나선다. 일반인에게는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려주며, 수행자에게는 수행 자료를 제공해 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책은 단순한 명상집이 아니다. 영어공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편집됐다. 영어를 전공한 저자는 진리의 말들을 부드럽게 영어로 바꿔 영한 대역을 편찬할 수 있었다.

명상과 함께 영어공부도 하고, 행복의 길까지 안내해주는 책은 인생에서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값진 선물이 될 만하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음미할 수 있는 책이다.

김영로의 행복수업|김영로 지음|불광출판사 펴냄|1만3800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2	나는 걷는다 붓다와 함께	청전	휴
3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석인은 물을 긷고 목녀는 꽃을 따네	진제	매일경제신문
5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6	내 마음은 금부처	대행	한마음선원
7	날마다 웃는 집	법륜	김영사
8	열두 달 절집 밥상	대안	웅진리빙하우스
9	땅끝 마을 아름다운 절	금강	불광출판사
10	조용한 행복	도현	뜰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 주 사 02)3672-7181~5

불교의 여성관을 말하다



불교에서 여성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저자는 오늘날 대두되는 불교의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제시하며, 이런 관념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인도사회의 여성관을 비롯해, 초기불교의 여성관, 부파불교의 여성관, 대승불교의 여성관으로 나눠 불교가 여성을 논함에 있어서 어떠한 시기에 어떤 시각으로 변화됐는지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

여성성불의 이해|구자상 지음|신국판 펴냄|1만5000원 **이은정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으로 오세요 www.hyunbul.com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할 수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대원 선사 서문 중에서...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중 15권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사찰 건축의 얼굴 門 "문"
확! 바꿔드립니다
빗살문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홍송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도록 견고합니다.
◆문짝의 종류 :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빗살문, 사천왕문 금강역사문, 33관음문, 16나한문, 동자문, 조각문 주문제작
◆1,250나한 그림책 1권 - 판매금액 180,000원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 : 이애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1 성불사내
◆불사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목조 · PC고건축 · 사찰문 · 나한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한국고건축 금호 임영창 합장


福 지리메주
수행자들의 정성으로 만든 자연 발효 식품
100% 순수 국산콩으로 만들었습니다.
(생산지 : 경북 영주)
우리 땅에서 자란 콩으로 빚은 복메주는,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얼이 베어있는 순수자연 발효식품입니다. 자연에 의존하여 만들어지는 전통 메주는 햇살과 바람의 숨결로 말려지고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숙성되는, 하늘의 기운을 머금은 자연이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특징
· 국산콩을 가마솥에 장작불로 삶아 나무틀에 한장 한장 정성으로 넣어 만든 수공메주 입니다.
· 발효균을 인공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발효로 띄워서 깊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금강정사 복식품
서울법당 : 02)742-0172 대구법당 : 053)425-3063
포항금강정사 : 054)261-2231 울산법당 : 052)211-2161
부산법당 : 051)514-3566 대전법당 : 042)862-5539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본지 연재 '가야산 정진불' 회향한 작가 정찬주

"새벽이면 휘파람새가 웁니다"


작가 정찬주씨. 승군의 입장에서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작품을 구상 중이다.

和順. 지명으로 이만큼 포근한 곳이 또 어디 있을까. 어감도 부드럽거니와 뺨에 스치는 바람결이 잔잔하다. 언제 겨울이었던가 싶다.

본지에 지난 1년 동안 연재했던 구도소설 '가야산 정진불'이 대미를 장식했다. 작가 정찬주는 순하디 순한 화순의 쌍봉사 너머에 산다. 쌍봉사를 감싸고 있는 산이 들판으로 몸을 바꾸는 즈음에 이불재(耳佛齋)가 있다.

"매화꽃이 곧 필 것 같습니다. 새벽이면 휘파람새가 웁니다"라는 말로 기자를 반겨주었다. '가야산 정진불'은 지난해 1월 연재를 시작해 60회를 달려왔다. 돌아보니 꽤 먼 길이었다.

"마라톤을 완주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어려웠지요. 이전의 소설들과 구성을 달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제가 사는 산방에서 가까운 봉갑사에 혜암 큰스님의 사리가 봉안돼 있었기 때문에 구성의 실타래가 쉽게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혜암 큰스님의 영롱한 사리를 친견하는 것으로 소설을 시작하니 구성이 술술 풀렸습니다. 중간에 고비도 있었습니다만, 원각 스님과 각안 스님, 현오 스님의 도움으로 한 회도 거르지 않고 회향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회를 신문사에 송고해놓고는 이틀 동안 내내 죽은 것처럼 잠만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일상으로 겨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문을 던졌다. 선생님께서 '가야산 정진불'을 통해 그리고자 했던 것은 혜암이라는 큰스님이면서 동시에 '장좌불와를 하는 것이 이뭐고'를 깨달은 대연 거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작품이 가리키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혜암 큰스님은 말법시대 밝히는 등대
극기 · 자비 등 고승 삶으로 보여주고파

"대연 거사는 혜암 큰스님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지만 작가인 제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이기도 합니다. 흔히 이런 소설을 액자소설이라고 하는데, 어떤 독자는 왜 혜암 큰스님 얘기만 쓸 것이지 상상의 인물까지 복잡하게 서술하느냐고 묻더군요. 그러나 대연 거사가 마지막 회에 화두 드는 것을 보고는 혜암 큰스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좋아하실 거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의 의도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재가불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화두를 들고 '자기가 누구인지' 본래면목을 묻는다면 조금이라도 성공한 불교소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성철, 일타 등 큰스님들의 삶을 소설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줄곧 해오셨습니다. 이번 혜암 스님도 그렇고요. 혜암 스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요?

"평생 단 한번도 정진 이외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견성성불의 확신을 가지고 한길을 걸으신 분입니다. 용맹정진의 전범을 보이신 교과서입니다. 수행풍토가 흐려진 말법시대에 더욱 빛이 나는 등대 같은 존재입니다. 마하가섭존자의 두타행의 전통을 이으신 분입니다."

–성철, 일타, 혜암 스님 모두 수행에 투철했던 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큰스님들의 삶을 좇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고승을 소재로 한 소설을 십 수 년 쓰다 보니 이제는 불교전문작가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교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소설가라는 이니셜이 더 편합니다. 어쨌든 불가의 인연이 깊다 보니 그리 불리게 됐습니다. 저는 고승을 소재로 소설을 쓸 때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뛰어난 덕목이라고나 할까요, 예컨대 자기를 극복하는 극기,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 남을 배려하는 자비심 같은 인간적인 덕목을 고승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지요. 국민 모두가 존경받을 만한 진정한 한국인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실제로 원효 대사나 사명 대사 같은 분은 지금도 국민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그러한 인간적인 덕목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일깨우고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하지요."

–선을 그어 이것과 저것을 가르는 것이 마땅치 않지만, 활발한 불교문학의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다시 우문. 불교문학, 특히 소설의 생산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불교문학의 역할이 적지 않은데, 흉작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교문학을 우리 불자들 일부가 주변문학 혹은 변두리문학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요. 불자 내부에서부터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두 분의 조계종 종정, 두 분의 현대고승을 소재로 해서 장편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 어느 분으로부터도 격려의 전화 한 통 받지 못했어요. 신라시대에는 불교문학이 중심부 문학이었습니다. 신라 향가를 보시면 알 겁니다. 고려시대 때도 불교문학은 대단했지요. 동국대가 종립대학인데 불교문학상 하나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언론 매체도 마찬가집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문학의 깊이와 다양성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문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교문학에 대한 반성과 창작 분위기 조성이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작품에선 어떤 세계를 펼쳐 보여주실지 궁금합니다.

"임진왜란을 승군의 입장에서 한 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임진왜란은 종교전쟁 측면도 있습니다. 왜군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는 종군 신부가 가담한 기독교 군대였으니까요. 또한 거북선을 승병장이 만들었다는 설이 있지요. 절에 가면 볼 수 있는데, 고승 탑비의 석물이 거북과 용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거북선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러한 숨겨진 승군역사를 한 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역사를 바로 알리고 불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가야산 정진불'은 5월 초 혜암 스님의 생신일 즈음에 책의 모양으로 세상에 나온다. 랜덤하우스에서 눈여겨보았다고 한다. 영어본 출간도 기대해 볼만하다.

정성운 기자 woon1653@hanmail.net



추노 열풍 속 절경 인기

최근 KBS 2TV에서 방영중인 드라마 '추노'가 인기다. 일명 '추노 열풍'을 일으키며 사람들의 새로운 관심사로 급부상한 추노는 드라마 전개를 비롯해 제작스토리, 배우의 사생활까지 모두 '핫 이슈'로 떠오를 만큼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긴박감 넘치는 스토리와 화려한 영상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추노의 촬영지도 이슈다. 추노의 촬영 로케이션 담당자인 윤종훈 디렉터가 "지금껏 사극에서 촬영되지 않은 촬영지를 섭외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뒤졌다"고 말할 만큼, 추노의 촬영배경은 그야말로 한시도 눈을 떼기 힘들 정도로 수려한 장관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촬영지로, 장소 중 대다수가 사찰 풍경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현재까지 추노에서 소개된 사찰들은 전남 화순군 운주사, 구례 사성암, 여주 신륵사, 해남 도솔암 등이다. 그 중 구례 사성암과 해남 도솔암은 윤종훈 디렉터가 꼽은 가장 경관이 좋은 사찰이다.

운주사 관계자는 "드라마 등에서 운주사 풍광이 소개되고 나서 평소보다 관광객이 2~3배 정도 늘어났다"며 "최근에는 주말마다 1500여 방문객이 운주사를 찾는다"고 말했다.

최근 TV나 영화에 소개된 촬영지를 필수여행코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운주사를 찾는 대중의 발길이 잦아진 이유이다. TV, 영화 등 영상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대중들의 입소문을 통해 알려진 촬영지를 답사한 이들이 개인 블로거 등에 또 다시 운주사 등을 소개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정재형 교수는 "미국에서 드라마가 성행하면 드라마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슈화가 됐다. 일명 '미드열풍'이 분 것처럼, 우리나라도 점점 선진화 돼 가면서 이러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 교수는 "점점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풍족해 지면서 여가와 레저 활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 때문에 드라마 속 사찰들이 더욱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아마도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화순 운주사의 와불.

서울서예박물관서 행오 스님 사경전 열려

10여 년 넘게 사경으로 수행에 매진해 온 행오 스님(서울 길상암 주지)이 3월 4~10일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사경전을 개최한다. 이번 '제7회 서예문화 축전 야납 행오 사경전'은 서예문화대전 서예축전의 사경부문 우수작가 초대전으로 이뤄진 전시이다.

행오 스님은 이번 전시회에 전통사경과 현대사경 등 약 30여점에 달하는 사경작품을 전시한다. 금니, 은니, 경면주사, 묵서 등으로 그린 권자본, 절첩본, 선장본인 전통사경부터 액자, 족자, 병풍 등으로 표현한 현대 사경까지 다양한 사경의 세계를 선보인다.

행오 스님은 "사경은 서예의 영역을 심화시킨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서예계에서 홀대받아 온 경향이 있다"며 "이번 전시가 많은 분들에게 사경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화엄경 약찬게> <화엄경 보현행원품 변상도> <수월관음도+반야심경> <금강경-8폭 병풍> <반야심경> 등의 주요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 대구불교박람회 (대구엑스코, 3월 18일부터 ~ 21일까지) 에 오시면 직접 상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제화 고무신코 만 행 화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최고의 선 물
특무명 3목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80mm (5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 · 동 깔창
조극제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20,000원 • 사이즈 : 230-280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조각무명 3목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80mm (5mm단위) • 색상 : 회색
지압동 깔창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 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85mm • 색상 : 검정,회색
망사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 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85mm • 색상 : 검정,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최연의 산 이야기 <1> 연재를 시작하며

산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두를 감싸 안는다



풍수 · 풍속 · 산에 기댄 사람들을 만나는 인문지리

동양에서는 세상 만물을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의 유기적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하늘이 때 맞춰 햇빛과 비와 바람을 내려주고(天時), 땅은 하늘이 내려준 기운으로 자양분(滋養分)을 만들어 인간을 비롯한 땅에 기대어 사는 수많은 생명들의 삶을 이롭게 하고(地利), 하늘과 땅이 베푼 풍요로운 삶의 터전에서 인간은 함께 일하고, 나누고, 즐기며 화목하게(人和) 살아간다고 보았다.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땅은 크게 보아 산(山)과 강(江)으로 이루어졌다.

두 산줄기 사이로 물길 하나 있고 두 물길 사이로 산줄기 하나 있듯이 산과 강은 영원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맞물린 역상관계(逆像關係)이다.

그래서 이 땅을 칭할 때 산과 강을 합쳐 강산(江山) 또는 산천(山川)이라고 한다.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라는 <산경표>의 명제에 따르면, 산줄기는 물길의 울타리며 물길은 두 산줄기의 중심에 위치한다.

두 산줄기가 만나는 곳에서 발원(發源)한 물길은 그 두 산줄기가 에워싼 곳으로만 흐르는데 이를 유역(流域)이라 하며, 사람들은 이곳에서 산줄기에 기대고 물길에 안기어(背山臨水) 삶의 터전인 '마을'을 이루며 살아간다.

'마을'에서 볼 때 산줄기는 울타리며 경계(境界)인데 물길은 마당이며 중심(中心)이다. 산줄기는 마을의 안쪽과 바깥쪽을 나누는데 물길은 마을 안의 이쪽저쪽을 나눈다.

산이 건너지 못하는 물길의 이쪽저쪽은 나루로 건너고 물이 넘지 못하는 산줄기의 안쪽과 바깥쪽은 고개로 넘는다. 그래서 나루와 고개는 '마을 사람들'의 소통(疏通)의 장(場)인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희망(希望)의 통로(通路)이기도 하다.

산(山)에 대한 인식은 동양과 서양이 큰 대조를 이룬다. 동양에서는 산에 들어(入山) 안기어 하나가 되려 하는데, 서양에서는 올라(登山) 타서 정복하려 한다. 동양의 산에 대한 인식은 천시(天時)의 기운을 받아 풍부한 자양분을 만들어 지닌 지리(地利)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산에 든다(入山)는 것은 다양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하나 같이 부족함을 채우려 어머니 품에 안기는 자식의 심정일 수밖에 없다.

수련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산에 든 수행자들, 풍년을 기약하고 마을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며 하늘과 땅에 치성을 드리러 산에든 '마을 사람'들, 잘못된 질서를 혁파하고 대동의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창의(倡義)하였으나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몸 하나만 겨우 건사하여 산으로 숨어든 숱한 혁명가들, 가렴주구에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탐관오리들의 착취에 더 이상 못 견뎌 도적질이라도 하려고 화적당이 되려고 산에 숨어든 신산스런 삶의 백성들, 그러나 때론 거들먹거리며 산천경계를 유람하러 산에 든 양반네들도 있었으나 산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두를 감싸 안아 주었다.

그래서 이번 연재를 통해서 산의 웅대함과 강의 유장함이 마을과 조화롭게 자리 잡은 모양새와, 이런저런 이유로 산에 들었던 다양한 사람들이 산속에서 살면서 이루어 놓은 삶의 궤적과, 산에 기대고 강에 안기어 마을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풍습과, 마을의 내부와 외부의 소통의 통로인 고개와 나루에 얽힌 사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 볼 예정이다.

당연히 이야기의 중심은 산으로 하고 그로부터 파생된 풍수지리, 마을 풍속, 산에 들었던 사람들이 남겨 놓은 문화적인 유산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아마 산에 대한 인문 지리적 이해가 이번 연재의 핵심내용일 것이다.

이야기의 중심이 될 산은 떨어져 있는 독립된 봉우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줄기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다룰 산은 산줄기와 물길과 마을과 그곳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진솔한 삶이 한데 어우러진 것으로서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다.



최 연

아시아네크워크 이사장. 불교환경연대 부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전 사무총장 역임. 산문집 <얕은 물도 깊게 건너라>.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겨울비 내리는 날에

조용히, 겨울비가 내린다. 얼었던 땅이 말없이 녹아, 내딛는 내 발을 질척질척 잡는다. 음지에 허연 빛으로 누웠던 눈도 말끔히 자취를 감췄다. 흙이 되어 가는 낙엽과 풀들이 젖은 몸으로 지난 시절을 말하고 있지만 푸르름의 소리들은 들려오지 않는다.

머리를 적시는 빗방울을 개의치 않고 집 주위의 산등성이와 숲을 둘러보다가 방으로 들어와 창가에 앉았다. 산 아래 골짜기에서 구물구물 몸을 일으킨 안개가 거무튀튀한 땅을 덮으며 나를 향해 오른다. 곧 내가 사는 산 중턱의 오두막도 그 안의 나도 안개가 됐다. 세상은 적막한 가운데 흐름이 멈춘 것만 같다. 그것도 잠시였다. 한복을 차려입고 춤을 추는 여인이 슬쩍 치마의 한쪽을 들어올리듯 벌거숭이 나무들을 슬쩍 드러내는가 싶더니 안개도 그만 산 위로 올라간다.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도 그만 물러나려는 것일까? 나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때가 되면 오는 봄이건만, 은근슬쩍 기다려지기도 했던 예년과는 달리 올핸 기다림마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오면 오는 대로 맞이하면 그뿐, 기다리는 마음도 거부하는 마음도 나를 떠났다. 할 수만 있다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고 싶다. 현실을 회피하고 싶지 않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내게 다가오는 세상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싶다. 나의 어제와 오늘 또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상태로 받아들이고 싶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가 긍정하지 못한다면 나는 누구일 것인가?

방구석 어딘가에서 겨울을 나고 있던 파리 한 마리가 은신처에서 나와 유리창에 붙어 기고 있다. 엉금엉금, 밖으로 향하는 몸짓이 어설픈 것이 정신없이 거니는 모양새다.

어수룩한 파리의 모습에 눈길을 주고 있자니 지난날의 내 모습이 검은 등에 겹쳐 보인다. 세상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만큼 타협하지도 않으며 살고자 했으나, 술에 의지한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서 술주정으로 나날을 보내며, 세상과 맞붙어 싸우지도 못했고 짝짜꿍 타협하여 내 안일을 구하지도 못했으니, 어중이떠중이라는 말이 그럴싸하게 맞는 삶이었다. 어리둥절 헤매는 파리와 같이 꽉 막힌 공간에서 버둥거리며 살아온 지난날들이었다.

잠시 나도 모르는 쪽잠에라도 들었던 것인지, 꿈속에서 빗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 같아 눈에 힘을 주고 앞을 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조용한 가운데 촉촉이 젖었다. 집 앞 뽕나무 가지가 어두운 빛으로 젖은 채 물방울 구슬들을 몸 아래에 매달았다. 눈은 나뭇가지 위에 쌓이건만 비는 가지의 아랫부분을 잡고 땅을 향해 매달린다. 눈이 나뭇가지를 적시지 못하는 이유다. 그런데 잠자고 있는 나무를 적셔서 어쩌자는 말인가? 눈송이처럼, 그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짝 가지 위에 내려앉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 아니던가? 겨울나무에겐 비보다는 눈이 맞춤하다. 그렇기는 하나 벌거벗은 가지들에 맺힌 빗방울을 바라보는 맛도 썩 괜찮으니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한다는 것이 민망스럽다. 겨울비가 오는 날은 비가 땅으로 스며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침묵해야 하는 까닭이다.

불현듯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빗소리가 나를 감싼다. 깊은 세상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무의 뿌리들이 금방이라도 몸을 움직여 나뭇잎을 피워낼 것만 같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자니 내 가슴에도 차오르는 기운이 느껴진다. 땅 속 깊이 잦아드는 것들로 꽉 찬 세상에서 가라앉지 않고 떠오르는 이 기운은 어디에 있던 것일까?

너무 움츠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인간 세상은 10년 전이나 혹은 20년 전이나 30년 전과 다름없이 뒤숭숭하고 어둡다. 학교 근처 공터 옆을 지나다 불량배들에게 걸려 집단 폭행을 당하다 의식을 잃었던 중학생 시절의 어느 날도 잠시 전의 꿈인 듯 선명하고, 군사 독재자의 그늘이 짙던 시절에 군인의 불심검문 앞에서 공손하게 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끌려가 피범벅이 됐던 시간도 내 옆에 붙어 있는 것만 같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한순간이나마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감옥에 가기는 군대에 가는 것보다 더 싫었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 보낸 젊음의 날들도 바로 어제다. 민주화가 됐다고, 세상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느끼던 거리감을 좁힐 틈도 갖지 못했건만 자본의 독재가 시작됐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는 시절이다. 장애물을 하나 넘으면 또다른 장애물이 앞을 막는 장애물경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흘러오고 흘러가는 세월이 보인다. 그 속에 내 모습도 보인다. 빗소리가 무겁다.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이 무거움.

군청에서 나온 봉투 하나를 건네고 비를 맞으며 가던 이장의 뒷모습에도, 집 앞 길을 지나가던 아주머니 둘의 두런두런 이야기 속에도,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의 얼굴에도, 읍내로 나가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의 얼굴에도 겨울비의 무거움은 스며 있다. 그들 또한 나와 같이, 지금 내리는 이 비와 다를 것 없는 존재들이 아닌가?

겨울비의 이 무거움과 어두움 속에서 봄날의 푸르름이 싹튼다고는 해도, 그 새싹들에서 맑고 밝은 빛이 번져나와 세상을 가득 채운다고는 해도 지금은 겨울비가 내리는 날, 가만히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멍청히 하루를 보낸다.





유승도

시인. 1960년 충남 서천 생. 1995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 시 '나의 새'로 등단. 시집 <작은 침묵들을 위하여>, 산문집 <촌사람으로 사는 즐거움> < 고향은 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 학 · 빙의 · 퇴마
스님이 쓰는 역학과 최면 영가와 명리를 실전위주로 확실한 비법을 개인 지도함.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역학 : 귀신 빼는 명리(우주물상을 연상법으로 사주, 궁합, 택일,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귀신든 병
스님 : 염불, 사물, 사찰 운영법 지도
부산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역학 동영상 CD 판매
역학! 집에서 혼자 학습 할 수 있습니다
www.saju.or.kr
010-4800-2378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역학 동영상 교육
기초부터 실무까지 책임지도
개운명리학회 지도교수
(개운정사 남광스님 특강)
1. 인터넷 고화질 동영상 강의
2. 개인지도, DVD 교재 판매
●다음카페 : 개운명리학
010-7227-6007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금년 봄부터 따는
최고 영양좋은 동고버섯
(종균 주입 후 1년 숙성된 것)
표고버섯목 판매합니다
만성스님
010-4773-3688

경북지역 천년고찰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527-0637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 법당 보살
함께 모십니다
▷ 인천에 있는 사찰.
032)522-8131
016-302-7711

기도스님
모십니다
▷세수 40세 이하 비구스님,
경북 칠곡
054)976-8116

기초(명리학). 작명학 수강생 모집
- 기초에서 응용까지
- 3개월 완성
- 개인 및 단체강의
- 저렴한 비용

문의 전화 : 011-711-5072

염불 역학
조용한 산사에서 승려가 개인지도
스님, 예비스님,
법사, 사찰운영자
염불역학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기회 (숙식제공)
011-716-3811

수행기도 · 영험도량
잠시, 한,두달 쉬실 분
공양간 일보며
기도 할 분 공부
1,3주 금,토,일 실참지도
031)674-7188 백마사
033)441-0664 장안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011-9854-98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밀양
017-802-3290

기도스님,
처사, 공양주
모십니다
010-2296-7588
061)332-4854

공양주 구함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대사
(전남 여수시 소재)
*주변에 아시는 분 계시면 소개를 부탁합니다.
061)644-1244
010-4442-6789

비구니 스님이 계신
사찰로써 불심과 신심이 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 중반 환영, 숙식 제공)
울산시 북구 연지암
052)298-9911
010-4030-8188

비구니 스님들과
평생을 함께 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8916-0408
043)832-9921

비구니 부전
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010-9469-6625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연변 보살님 환영
전남구례 화엄사
010-3639-9662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모집
백고좌 대법회 봉행도량에서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을 함께 모십니다.
- 누구나 수행하는 열린도량!
- 개성존중 및 자율적인 분위기로서 수행공부와 수계이후의 모든 지원
- 성 별 : 남자 (행자) ● 학 력 : 고졸이상
- 비구.비구니 : 각각 1명(기도&법사) ● 공양주 : 2명 (숙식제공)

※매년 1회이상 백고좌 대법회를 봉행하며 법납 30년 이상 비구.비구니 법사스님의 추천을 원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1길 2-9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 법왕불교대학
www.bubwangsa.or.kr 053)766-3742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 부산
011-551-171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지역 사찰
011-840-2500

단 1회 시술로 통증을 멈추는 기적의 수기요법 특별 전수
목디스크, 40견, 50견, 테니스엘보, 골프엘보, 척추,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측만증, 좌골신경통 등 목과 허리의 모든 병증 치유기법.
침, 뜸, 부항이나 경락마사지, 지압요법 등이 아님.
전 세계 유일한 기법으로 2009년 12월 특허청에 특허로 등록된 특별 수기공요법 (전 세계 20개국 특허 출원중임)
20여년의 많은 임상중 단 한번의 재발도 없었으며, 전 세계 어디서나 환영 받을 수 있는 기법으로 약간명만면담 후 1:1 특별 전수함 (국내외 활동 가능한 분)
◇ 전수자 중에서 특별 수제자 선발 ◇
개인별 맞춤 전수 (1:1 교육 후 무료 상시 재교육)
- 전수금 : 오백만원 ◦특 전 : 지부 자격부여
- 특별 수제자 특전 : 풍수, 명리, 수맥, 최면, 기공, 침, 뜸, 약리, 대체요법 등 각종 병증별 치유기법 무료 전수함.
- 한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침구사, 대체요법사, 스님 등 종교인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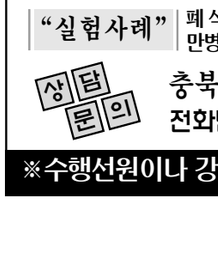
(사)세계대체요법학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0-8호 5층
문의 : 전화 02)529-1390 / 010-6739-6426

하루 저녁에 깨우치는
종수지리 이론
나경 사용법
입승공 19종 감라 나경 도해 삽리
나경을 쉽게 배운다
양택론 음택론
명당 잡는법
수맥 측정과
수맥파 차단법
진산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면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권 (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c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침 술 秘 法 무 료 강 의
'초종파! "본 강의와 因緣되어 佛事에 도움 되소서!
제1강 : 빙의(최면), 신병, 용신이름법, 초간단명리(적중율 90%)
제2강 : 오행은 삶의 지혜, 오행과 침술, 내몸 내가 고친다
제3강 : 정골요법, 일침요법, 각종처방(견비,허리,무릎,중풍,심장질환)
*침, 특수활용법(한의학박사 특별강의)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수요일 10시~16시까지 (1박2일) 장 소 : 경남 마산시 법향사 법당
연락처 070-8861-3359 핸드폰 010-9027-3117
- 좋은 인연 되소서 -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이름 · 상호 팔자에 맞게끔 찾아드립니다.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경산,칠곡,구미,포항,서울,뉴욕,갑포 4월 동시모집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 문의
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정약수 토굴암
전화번호 : 043)214-1280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사용처
사찰, 선방, 신행단체, 심신수련단체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석
氣 giban 기반

기반은 선문화 및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 진 명품 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걱정 근심이 저절로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꾸준히 수행하거나,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강의료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익)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10%DC

※ 제품의 특징 ※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옴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氣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현불샵만의 특별한 소식!!
현불샵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기반방석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량주문을 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 50개 이상 주문시 25% 의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F. 02)737-0696
현불샵 온라인쇼핑몰 www.hyunbulshop.com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부지 : 500평
- 가액 : 1억7천

- 위치 : 논산
- 법당 : 20평
- 요사 : 34평
- 부지 : 240평
- 가액 : 1억 8천

- 위치 : 전남 나주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부지 : 620평
- 가액 : 3억8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40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가액 : 15억

- 위치 : 인천바닷가
- 부지 : 7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100평
- 가액 : 11억

- 위치 : 서울산사
- 부지 : 3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 5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알선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및 토굴안내

시내 아담한 법당
- 대지 평수 : 86평
- 2층 : 법당 26평
- 1층: 요사, 방 4칸
- 주차장 40평, 지하철 인접
- 가액 : 3억 7천

부산 근교 아름다운 절
- 총 대지 : 약 3,000평
- 목조법당 및 건물 6동
  (요사채, 산신각, 종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주차장 300평 ●총금액 : 15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포 교 당 (급)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 평수: 3층, 4층, 5층(135평)
- 3층: 방 4개(처소, 친견실, 종부소, 부전실 外)
- 4층: 공양실 및 큰방 3개 ●5층 : 대법당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2,800만원(절충가능)
- 도심 포교당 최적지, 좋은 조건임

010-2599-60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동시장 내
  옛날 한옥집
- 삼존불, 신중탱,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약간

010-6440-55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광주 퇴촌
- 대지 100평, 전 320평
  도합 420평
- 법당 15평(조립식),
  요사채 슬라브(30평)
- 가액: 4억 7천만원

011-739-0968

포교원안내

- 위치: 5호선 목동역 도보 10분
- 4층건물의 2층, 3층
- 2층: 70평, 넓은 거실, 방 4, 공양간
- 3층: 70평, 종무소, 법당
- 2~3층 강화마루와 전기필름난방
- A급 시설, 현재 법회중
- 보증금 3천만원에 월 220만원
  시설비 있음

010-3422-257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 평수 35평, 5층 건물중 4층
  청동 삼존불 외 탱화
- 방1, 주방1, 시설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3000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1-317-0582

사 찰 안 내

- 위치: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 대지 : 도로 부지 포함해 160평
- 건평: 법당(25평),
  요사채(32평)
  산신각(방1 별도)
- 가액 : 4억 (가격절충가능)

010-6286-5152

토 굴 안 내

- 위치: 충북 괴산 읍서 10분거리
- 건평 30평
- 창고 있음, 산밑
- 우물, 텃밭 있음
- 가액 : 2천 5백만원
  (1년 토지세 3만원)

010-4860-6377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40평
- 요사채(1,2층):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3억 7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즉시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위치 최상)
- 평수: 약 400평
- 요사채 방 4칸 , 창고1
  대웅전, 산신, 용왕, 칠성
- 주차시설양호
- 가액: 평당 93만원(가격절충)
- 주지스님 건강 상 양도

010-2954-1288

암 자 안 내

- 위치: 강원도 강릉
- 법당 20평, 요사채 60평
- 별채 8평,
- 부지 400평(등기 150평)
- 가액: 9천 8백만원

010-6695-0115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법당 30평
- 전체평수 대지 500평
- 요사채 2동
- 가액: 2억 8천만원
- 주차장 확보

010-9798-1091
영주불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지하철 1분거리
- 3층, 총 32평 ● 방1, 공양간 1,법당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700만원
- 재래시장 버스 종점,
- 위치는 최상급. 몸만 오실분

010-2204-837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막리동
- 평수 : 31평, 4층건물 중 3층
- 시설 : 원목단, 동불, 삼존불,
  공양간, 방2, 시설완벽,
  위치 최고 요지,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00만원

019-9382-0504

사찰및팬션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주 순흥면
- 약1천여평. 건축허가 유
- 토목공사. 수도전기 완료.
- 소수선원 인근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697-2290

포 교 원 안 내

- 서울 청량리역 부근
- 요사채1동(방2, 거실, 욕실, 부엌)
  법당(30평), 다락방, 주지실,
  부엌, 마당(30평)
- 삼존불, 지장단, 1자원불 500불
- 보증금: 1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5500만원 ●교통 편리

010-5040-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20평,요사채25평,부지 350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전체 동 기와단청
-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 포함)

018-603-1456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북구 구포 3동
- 반지하 포함 4층건물 전체
- 주차시설 좋음
- 큰법당 35평, 지장전 30평,
  공양간 및 방 35평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 가액: 2억 3천만원(대출 5천 포함)

010-9665-0209
010-3848-16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140평
- 가액: 전세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봉천동
- 5층 건물증 3층
- 평수 45평
- 내부시설 완벽
- 보증금 1,100만원
  월 11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6569-101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약 54평, 건평 약 28평
- 법당, 요사(방2)
- 주방, 욕실, 심야보일러
- 가액: 8천 2백만원
  (시설비포함)

010-7325-125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내방역 2번출구
- 4층건물 중 3층 전체
- 평수 약 50평
- 삼존불 (동불)
- 가액: 8천만원 중 ,
  보증금 2천만원
  시설비 6천만원 월 245만원
  부가세 별도

02)522-4984
010-5851-4984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0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목조): 약 20평,
  산신각, 요사채
  2동 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 4억 (가액 조정 안됨)

011-816-9104
011-815-910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군포역 앞
- 주차장 완비
- 평수 80평
- 법당, 방3, 스님 별도 화장실
-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 스님 병안 문제로 급 양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011-685-6740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2억 2천만원

016-9290-4656
032)347-4656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대지: 45평, 법당 30평
- 요사채 방 6개, 지하창고 6평
- 전망 좋으며 바다가 보이는
  기도도량
- 주차시설 완벽
- 가액: 2억 1천만원

010-3852-8252

조용한 토굴(급)안내

- 위치 : 공주시 정안면
- 평수 25평, 20평(등기필)
- 황금벽돌
- 시설 완벽하게 갖추어져있음
- 가액 3천 5백만원정
- 중국 청도 이주로 급 양도

011-9405-8186

서울 도심 포교원

- 위치 : 용산구 동자동
  (갈월동버스정류장)
- 4층건물에 3층
  법당, 상담실, 화장실
- 4층 요사방, 부엌,
  전체 약 25평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9105-002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8천만원
  (답사 후 조절 가능)

011-297-9149
010-5483-750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빌라 주택 밀집 지역
- 시장입구
- 법당 40평, 방2, 공양간, 화장실
- 삼불, 후불탱화는 인등으로
  설치되어 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1-544-97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삼방동
  인제대 부근
- 평수 : 총 50평
- 3층건물 중 2층 전체
- 방2, 주방, 욕실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비, 즉시법회

055)328-2509
019-549-3521

명 당 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 도로, 계곡, 전기 접한
  암자, 전원주택, 펜션 등
  다용도 가능한 부지 1,600평
- 토목공사 완료
- 가액: 1억 2천만원

011-570-131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 현재 법회 기도중
- 서부 정류장 지하철 5분거리
- 2층 건물 중 2층 70평
- 주차장 시설 완비
- 제반 시설및 모든 집기일체
- 스님 공찰임명 관계로 급 양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시설비 절충

017-501-24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 6개. 시설 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4199-004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 법당(삼존불 외 호신불),
  방2, 공양간 – 3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055)364-3525
010-4531-35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북구 읍내동
- 평수 약 50평, 삼불, 소불 53위,
  신중탱화, 종
- 방 5(큰방1, 작은방3, 공양간1)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1-9987-4100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 대지 200평, 법당 25평,
  전답 1,5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대추나무 400주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가액: 평당 18,000원
-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9967-9832

사 찰 (급) 안 내

- 위치: 울산시울주군 청량면 율리 751번지
- 대지 250평, 법당, 45평
- 요사채: 20평 ●이층(산신각)
- 가액: 4억 (현 시세 평당 200만원)
- 상담 후 조절 가능
- 전원주택별장으로 사용가능

011-847-1556
052)224-5588

현대식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밀양시 무안면 국도변위치(교통 시,내외 정류소옆)
- 대지: 210평, 주창장 넓고 정원수 많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양옥 65평 1동
  (최고급 실내 원목 사용, 태양열, 단독지하수 설치)
- 법당: 20평 1동(현대식법당 법사님 보살님 적합)
- 가액: 2억 4천만원(은행융장 7000만원 포함)
- 가액절충 전세도 가능

010-7448-79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 3동 망미역
  1번출구 근처 2층
- 법당 50평 ● 관음보살,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방2칸, 주방, 화장실 2칸, 다용도실, 창고, 다락
- 가액: 전세 15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8740-3754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촌IC에서 10분이내
- 부지: 9630평 (1523여평+임야 8000평)
- 한옥신축대웅전, 신축황토방 요사채
  조립식건물+산신각
- 추가건축허가유(사회복지시설 가능위치)
- 바로앞 홍천강 경관과 기도도량
- 가액: 15억

011-9888-156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중구 유곡동
- 대지 50평, 건평 50평 ● 1층 요사채, 2층법당
- 가액: 보증금 5천만,월 50만원
- 전월세 가능, 전세 1억원
- 23년째 운영중

010-2785-952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영등포시장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번화가
- 4층 건물중 4층 옥탑방, 옥상사용
- 법당 20평, 방2, 욕실 주방 살림가능
- 후불탱화, 삼존불, 산신 지장小불
- 현성업중,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2300만원
- 확장불사관계로 급 임대함

010-3552-3351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사찰양식,아담한 사찰
- 법당 30평(단청) ● 요사채3, 방 3, ● 2층 공양간
- 산신각, 독성(용왕단) , 소불 1500불, 용왕당,
  문수동자200불
- 대지 50평에 약 100평사용
- 가액: 4억 (절충가능)● 주차장 확보 (주인직)

017-516-0773 (주지스님)
010-3550-6771 (보살)

이상적인 토굴터

- 위치 :홍천군 서석면 동서고속도 10분거리
- 평수: 382평, 지목 전
- 특징 : 옛날 고가자리 옹달샘
- 일조량 풍부, 배산임수, 정남향
  진입로 아스콘포장 , 전기바로 접
- 대지 : 130평 형질변경 및 황토방 35평
  건축 신고한 상태
- 절대가액: 7천만원

010-2871-6668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8 척추 측만증

바른 자세 게임 해볼까?

척추 측만증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발병하는 것일까요? 척추 측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뼈와 근육이 연약하고 허약한 성장기 여학생에게 많이 발병하며, 초경 전의 초등학교 3~5학년 정도에서 두드러진 분포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료들보다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육 양 부족이 심각할 만큼 평소 운동을 싫어하며, 오랜 시간 구부정하게 앉는 등 자세가 불량합니다. 수면 시 옆으로 몸을 비틀어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고, 시력은 나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척추 측만증이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의 경우 브래지어 끈이 한쪽만 유난히 흘러내리거나, 치마나 바지가 자꾸 한쪽으로 돌아간다던지, 바지의 한쪽 기장이 유난히 길거나 짧으며, 신발 밑창이 한쪽만 닳는 경우입니다. 물론,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경우 별거 아닌 것쯤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소소한 현상이 척추가 휘어지고 구부러지는 초기 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척추가 휘어지는 방식에는 변형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척추를 지탱하는 좌우 골반의 높낮이 차이와 불균형한 변형 증상이 진행되면서 처음 유발됩니다. 그다음 상추부의 24개의 척추 마디가 동시에 중심축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어깨 높낮이가 달라지고 결국 척추 측만증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척추의 기울어짐 증상이 일정 단계 이상의 범위까지 기울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척추 비틀림과 틀어짐의 증상으로 악화된 후 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C자형으로 휘어지며 계속해서 방치할수록 S자형으로 변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척추의 휘어짐이 20도 이상 휘어지는 후기 단계에 도달해서야, 외관상으로도 판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체 변형으로 가슴 답답함, 폐활량 저하 등의 이상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외관상 척추 측만증이 의심되어 검사를 받으면 대부분 측만증 후기 단계 이상의 진단이 나와 척추절개 나사고정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의 적응증을 각도로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40도가 채 안 되는 측만증이라도 신체 불균형이 심하면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고, 50도 가까이 되더라도 환자에 따라 체형교정으로 상당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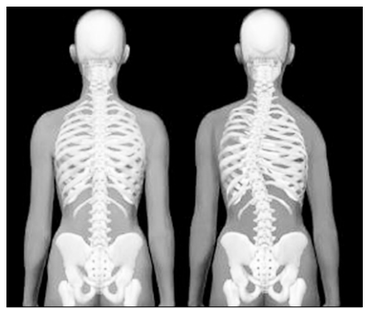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척추 측만증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방을 맬 때는 양쪽으로 맵니다.
2.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는 들어서 움직이는 것보다 끌어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들어 움직여야 한다면 물건을 몸 쪽으로 바짝 붙여 나르도록 합니다.
3. 청소기를 사용할 때는 상체가 앞으로 구부리지 않도록 청소기의 봉 길이를 조절하여 똑바로 선 채로 사용합니다.
4.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합니다.
5. 척추가 20~40도 정도 휘어진 경우 보조기를 사용하는데, 보조기는 성장이 끝나는 15~16세까지만 착용합니다. 보조기를 이용한 조기 치료는 각도가 20~40도 이하이고 성장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진행성 환자에게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휜 각도가 50도 이상이거나 성장이 거의 완료되어 유연성이 없는 환자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보조기의 역할은 측만증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므로, 가장 뛰어난 치료는 체형교정을 위한 운동요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는 6살 된 딸이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지금 한창 한글과 덧셈 뺄셈을 배우면서, 받아쓰기 놀이에 재미를 붙이는 딸의 모습을 보면 기쁨과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부터 구부정하게 숙이면서 글씨를 쓰는 모습을 보면 의사라는 직업 상, 벌써부터 꼬맹이의 자세가 망가질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받아쓰기 놀이를 하자는 딸에게 저는 '바른 자세 게임'을 해볼까? '바른 자세로 앉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의 딸은 신기하게도 반듯하게 다리를 피고, 예쁘게 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자녀분들의 척추가 휘어지지 않도록 바른 자세 게임을 시작해 보십시오.

PnP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척추가 바로 선 모습(왼쪽)과 척추가 휘어진 골격 모습.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8

지역적 특성 · 기술로 나뉜 권법

권법에서 남권과 북권, 그리고 외가권과 내가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영토를 표현할 때 '좁은 땅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볼 때 꼭 그리 작은 것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쓰는 이유는 인접한 나라(중국)의 땅이 너무 커서 그런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좁은 땅에서도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음식이나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제주도 사투리를 보면 어느 단어는 누가 해석을 해 줘야 알아듣는 것도 있습니다.

권법도 마찬가지로 보급되어 온 그 지역적 특성이나 기술에 따라 남권과 북권으로 나뉩니다. 지역적으로 양자강을 경계로 해 광둥 성 · 푸젠 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성행한 권법을 남권이라 하며, 황하 유역에서 실시되었던 권법을 북권이라 합니다. 또 북권은 남권지역을 제외한 중국전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황하 지역의 무술이 북권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신체를 부드럽게 해 도교 산술의 호흡법을 사용해 내공강화가 주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권법은 보통 氣(기)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두 권법의 특성상 북권은 힘이 숨겨져 있다고 보는 반면 남권은 힘이 밖으로 나타나 있는 권법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북권과 남권으로 구별되게 된 것은 청조 때 소림사 승려들이 정부에 반항해 감시가 소홀한 남방 지역으로



소림사 내의 외공 단련 도구.

이동해, 한민족 정부의 재건을 위한 권법을 사제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합니다. 그것이 남권(소림권)이 됐습니다.

소림사 무술에 대한 역사를 하나 더 소개하자면, 명대 중기까지는 권법보다는 곤(棍:몽둥이 곤), 즉 봉술 쪽이 더 유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대의 병서인 <무비지>는 '모든 예는 곤을 시초로 하며, 곤은 소림을 시작하게 한다'라는 말이 담겨있는 습니다. 이 책을 보면 봉술이 소림사를 대표하는 무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권 무술은 권법 중 80% 이상 상체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남쪽 지역의 특성상 배 위에서 싸움이 많았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아야 했고, 인구밀집도가 높아 좁은 공간에서 싸움이 가능하게 발전한 것입니다.

반대로 북권은 대륙에서 싸움이 많았기에 발기술 위주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북방과 연결된 우리나라는 자연히 발기술에 영향을 받아 태권도와 같은 형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남권이라 해도 발을 사용해야만 하는 때가 있고, 북권이라 해도 손을 쓰는 경우가 있어 어느 한 부분만을 사용한다고 나누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국무술은 하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권법은 기술상의 차이로 나누는 내가권과 외가권이 있습니다. 남권의 대표적 무술인 소림권을 외가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외가권은 보통 근력강화나 신체 일부를 주기적으로 단련해 강하게 만듭니다.

내가권과 외가권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가권은 내가권에 비해 경력(勁力)의 운용보다는 외적인 형태에 중점을 두며, 내가권은 외적인 형태와 함께 경력의 운용과 의념(意念)을 강조한다. ② 외가권은 일반적으로 자연호흡을 취하며, 내가권은 호흡법을 강조한다. ③ 외가권은 발경(發勁:힘을 집중해 큰 위력을 쏘아냄) 방법에서 내가권에 비하여 길고 곧게 뻗으며, 내가권은 굴곡을 유지한다. 이 때문에 외가권을 장권(長拳) 이라고도 한다. ④ 외가권은 발경 방법에서 사지가 극대칭을 이루며 외부로 벌어지는 자세를 주로 취하며, 내가권은 안으로 합축하는 자세를 취한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 37수도장



국순려의 괄사이야기 8

뇌 활동을 돕는 최상의 환경

학습 능력 향상

학습능력은 수험생, 고시생을 비롯한 학생들에게나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일 자체가 학습의 연속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나이와 상관없이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 되는 괄사법을 알아두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 하겠다. 두개골 안에는 6개의 뇌가 있다. 대뇌(큰골), 소뇌(작은골), 교뇌, 중뇌, 간뇌, 연수이다.

중추신경을 맡은 대뇌를 중심으로 한 5개의 뇌는 맡은 바가 각각 다르지만 우리의 생명과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뇌 무게는 자기 몸무게의 1/40 즉 1.4~1.6㎏내외 밖에 안 되지만, 산소 섭취는 몸 전체의 1/5, 영양(포도당) 섭취는 1/4을 소비해야 할 만큼 뇌기능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뇌에는 모세혈관이 헤아릴 수 없이 분포되어 있어서 산소와 영양공급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한다.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괄사기법.

그런데 뇌에는 산소나 영양(포도당) 저장탱크가 없어 40초만 산소공급이 중단되어도 뇌세포 괴사가 발생한다. 또 포도당 공급이 부족해지면 뇌 활동 에너지원이 고갈되므로 한 찰나(1/60초)에도 수천에서 수만 가지의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뇌 작용에 두통을 비롯한 이상이 온다. 그렇게되면 집중력이나 이해력, 사고력, 암기력, 추리력, 판단력은 물론 생명의 근간이 되는 건강능력까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괄사기법으로 두피를 자극하면 혈관과 림프관은 확장되며 신경세포는 전이가 빨라지고 영양공급, 혈액순환, 노폐물 및 독소 배출 등은 원활해 질 것이다.

따라서 뇌 활동을 최상의 환경으로 만드는 것은 피로나 졸음, 스트레스를 해결해 학습능력이 향상된다.

⑴괄사법

<전신 괄사>

1. 전신괄사를 주 3~4회 실시 한다.

※ 수험생은 전신괄사를 2시간 주 1회(필수:3회 해도 좋음)전신괄사를 1시간 주 2회~3회

2. 매일 머리 전체와 얼굴 10~15분 괄사 하기.
3. 귀 뒤쪽 머리와 양 옆 머리 튕기기, 긁기.
4. 귀속을 보라매소로 가볍게 돌려서 자극주기.
5. 뒷목 경추에서부터 미골(꼬리뼈)까지 아래로 괄사하기.
6. 복부 전체를 긁기 괄사한 뒤 튕겨준다.

⑵괄사판

1. 해오름, 2. 학여울, 3. 달오름, 4. 미모사, 5. 보라매소, 6. 보라매대7. 보라매특대

⑶유의 사항

1. 졸음과 피로가 느껴질 때 머리의 정수리, 눈두덩, 귀 뒤쪽을 괄사하면 졸음이나 피로가 씻은 듯 가신다. (02)557-1628 ~9

국순려건강능력개발원장

불자정보 773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태화동
● 평수 : 3층 실평수 40평
● 가액 : 합 3,5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9327-341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459번지
● 대지 약 900평, 법당 50평,
● 요사채: 50평 산신각 6평,
● 주차장 약 500평
● 전세 45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1-1703-2770

사 찰 안 내
● 위치 : 논산시 상월면
● 부지: 520평, 건평 40평
● 가액: 2억 5천만원
● 일체 시설 완비
041)733-0925

사 찰 안 내
팔공산 수천평 대 도량터
참 인연자께 싼 값으로 양도합니다
전기, 수도, 사찰 부지 허가 필
부동산 절대 사절
주인 010-4512-0813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서구 비산동
● 법당 30평 삼존불
● 가액: 보증금 200만원
● 월 20만원(시설비 500만원)
010-5340-6357
053) 324-5357

포교원안내
● 현 포교당(60평) 인수하실 분
● 위치: 부산시 북구 구포2동 시장입구
● 가액: 전세 5천만원(월세 가능)
● 지하철 2호선 구병 · 구남역에서 2분거리
011-9515-8606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 법당 : 40평
● 요사 : 120평
● 부지: 62평
● 가액: 17억(지하철역 60m)
011-713-5634

포교원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옥산동 (상가3층 건물 3층)
● 건평 30평(방1, 법당)
● 관세음보살,칠성산신탱화
● 가액: 보증금 300만,월25만원
● 시설비 일절 800만원
관심있는 스님, 법사, 보살님, 불자가족 환영합니다
010-3780-6183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공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고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다구를 찾아서



3 청자

녹색으로 보이는 청자 잔 으뜸으로 여겨

웨저우요(越州窯)는 한대에서 북송대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 동안 중국 청자의 중심지였다. 웨저우요는 저장성(浙江省) 동북부지역의 옛 지명 웨저우에 분포돼 있는 가마터를 통칭하는 것으로, 사오싱(紹興)과 닝보(寧波)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웨저우요 청자는 당대(唐代) 문인들에게는 차를 감상하는 다구(茶具)였다. 육우는 탕 색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다구로 칭송했다. 비색청자(秘色青瓷) 또는 비색자(秘色磁)로 불렸던 웨저우요는 당대 말에서 오대까지 왕들에게 공납되기도 했다.

청대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전당시(全唐詩)>에는 웨저우요의 청자를 언급한 시가 여러 편이 남아 있어서 이를 통해 웨저우요의 비색에 대한 변화를 알 수 있다. 고황(顧況)은 <다부(茶賦)>에서 웨저우요 청자를 옥에 비유했는데(越泥似玉之甌), 이와 같은 비색은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9세기 중엽, 육구몽은 <비색월기(秘色越器)>에서 '천봉취색(千峰翠色)'으로 표현했고, 서인은 <공여비색차잔(貢餘秘色茶盞)>에서 '취색에 청색이 녹아나서 또렷한 빛이 신선하다'라고 해 웨저우요의 비색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대에는 청자의 색이 푸른 녹색에 가까웠고 당대 말에는 영롱한 비취색으로 변화됐다.

<다경>의 다구조에는 차를 달이는데 필요한 다구를 열거해 놓았는데, 찻잔으로는 '완은 웨저우가 으뜸이다. (중략) 웨저우와 웨양의 자기는 모두 푸르다. 푸르면 차에 유익하고 차는 연한 누른빛을 드러낸다. 상저우의 자기는 희어서 차의 빛깔은 붉다. 수저우의 자기는 누래서 차의 빛깔은 자줏빛이다. 홍저우의 자기는 갈색이어서 차의 빛깔은 검다. 모두 차에 마땅치가 않다(盌越州上 (中略) 越州瓷岳瓷皆青 青則益茶 茶作白紅之色 邢州瓷白茶色紅 壽州瓷黃茶色紫 洪州瓷褐茶色黑 悉不宜茶)'라고 했다.

이는 웨저우요의 자기를 극찬함과 동시에 다른 가마에서 생산된 자기가 차를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했다. 그리고 상저우에서 만들어진 다구가 웨저우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로 "상저우의 자기는 은색과 비슷하고 웨저우의 자기는 옥색을 닮았다. (이것이)상저우요의 자기가 웨저우요의 자기만 못한 그 첫 번째이다. 상저우요의 자기가 눈과 같다면 웨저우요의 자기는 얼음과 같다. (이것이)상저우요의 자기가 웨저우요의 자기만 못한 그 두 번째이다. 상저우요의 자기는 흰색이어서 차색이 붉고 웨저우요의 자기는 푸르러서 차색이 녹색으로 보인다. (이것이)상저우요의 자기가 웨저우요의 자기만 못한 그 세 번째이다(若邢瓷類銀 越瓷類玉 邢不如越一也 若邢瓷類雪則越瓷類氷 邢不如越二也 邢瓷白而茶色丹 越瓷青而茶色綠 邢不如越三也)"라고 했다. 이것은 당시 북방사람들이 선호하던 상저우요의 자기를 낮춰 보는 육우의 시각을 드러낸 부분이다.



웨저우요(越州窯) 청자. 롄윈강시(連雲港市) 박물관 소장.



웨저우요 청자 굽.

이어 웨저우요 자기의 기형(器形)을 설명했는데 "웨저우요 완의 구연부(口緣部)는 바깥으로 말리지 않고, 굽은 말려서 얕다. 반 되 이하를 담는다"라고 했다.

육우는 잔에 담겨있는 차가 녹색으로 보이는 청자 잔을 으뜸으로 여겼다. 차를 마실 때에는 오관(五觀)을 동원하는데 특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차 맛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이것은 탕 색을 돋보이게 하는 자기를 선호할 만큼 차에서 예술성을 찾으려는 심미안이 발전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차의 다각적인 안목은 송대의 음다법과 도자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위 사진의 청자 다완은 웨저우요에서 생산된 것으로, 1972년 장삭성(江蘇省) 롄윈강시(連雲港市)에서 출토됐다. 완의 높이는 3.8cm, 지름은 14.9cm, 바닥 지름은 6cm로, 완의 몸통 부분이 약간 비스듬하고 두께는 비교적 얇은 편이다. 안팎으로 유약이 고루 발려있고 색이 균일하며 윤기가 흐르면서 광택이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다.

백기란 ·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 24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서



오래 전에 영주 부석사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적이 있었다. 만나기로 한 사람은 아직 오지 않았고 부석사엔 아침 안개만 자욱했다. 멀리서 운해를 걷어낸 소백산 능선들이 하나 둘 깨어나고 있었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아무도 없는 무량수전 마당을 마음껏 거닐게 했다. 이슬에 젖어있는 배흘림기둥의 간격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사뿐히 날아와 앉은 추녀의 곡선도 여전히 우아했다.

이른 아침 안개 속에서 보는 무량수전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 날, 약속이 잘못되어 만나기로 했던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 먼 거리를 달려온 시간과 수고가 허망했지만, 이른 아침 아무도 없는 무량수전의 마당을 마음껏 걷게 해준 그 잘못된 약속이 고맙기도 했다. 나는 그 때 부석사가 서산에 또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옛 판화의 세계

법을 듣고 활연히 깨닫다 (聞法頓悟)

이 삽화는 덕소 스님이 법안종의 개조인 법안 문익 선사의 상당법문을 통해 깨닫는 장면을 아름다운 주변의 풍광과 함께 판각한 작품이다.

덕소(德韶, 891~972) 스님은 중국 송나라 때 승려로 속성은 진 씨이며, 법안 문익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아 후한 건우 원년(948)에 오월국 충의왕의 국사가 됐다. 천태종의 교적이 고려에 구비돼 있음을 듣고 충의왕에게 청해 교적을 구했으며, 그 후 법안종의 2조가 됐다. 스님은 82세 나이로 입적했다. 하루는 법안 스님이 법좌에 오르자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조계의 근원이 되는 한 방울 물입니까?" "이것이 조계의 근원이 되는 한 방울의 물이니라" 덕소 스님은 대중 속에 있다가 그 말을 듣고서 완전히 깨쳤으며, 자신이 깨달은 것을 법안 선사에게 알리니 법안은 이를 인가하면서 말했다.

"그대는 국왕의 스승이 돼 조사의 도를 크게 빛낼 것이다. 나는 그대만 못하다."

당시 사람들이 덕소 스님을 지자대사의 후신이라 말했으며, 오월의 충이왕은 국왕의 자리를 이어받자 덕소 스님을 국사로 모셨다.

당시 지자대사의 가르침을 전수받은 의적 스님은 "지자 대사의 가르침이 세월이 침원(寢遠)해지자 많은 것이 산락(散落)될까 염려됩니다. 지금 신라국에는 그 원본이 갖춰져 있으니 본래 스님의 자비함이 아니고는 누가 능히 이것을 중국으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덕소 스님은 이 사실을 충이왕에게 알리니 왕은 신라국에 사신을 보내어 경전을 베껴오게끔 했다.

당시 회창(會昌)의 법난(845) 때문에 천태지자(天台智者) 대사의 저술들이 대부분 해동(海東, 고려)으로 흘러갔었다. 이러한 사실을 충이왕에게 알리자 왕은 특별히 열 사람의 사신을 파견해 경전을 베껴 돌아오게 했다. 그리하여 불법이 다시 일어나 지금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 이는 덕소 스님과 의적 스님의 덕택이며 고려의 융성했던 불법 덕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이 인도에서 탄생됐지만 중국과 한국을 거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통되고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문법돈오(聞法頓悟).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

불기 2554년 경인년 부처님 출가재일 기념

민족화합평화기원불교도대법회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6대 임원진 취임

• 일 시 : 2010년 3월 23일 (음, 2월 8일) 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충북 옥천 IC 입구 명가 연회장

귀의 삼보하옵고
만물이 생동하는 경인년 새봄을 맞아 부처님 이름으로
2천만 불자의 안위를 기원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과 혼돈이 점철되어 세간에서는
국기가 흔들리는 염려할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 이제 불교가 다시 국난극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신라 고승 원광법사의 세속오계를 거울삼아 호란과 왜란을 물리친 승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는데 사부대중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지금까지 오매불망 불국정토 구현을 위해 원력을 다져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는 국난극복과 더불어 제2의 불교중흥을 위한
대법회 법석을 마련코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불교중흥과 국가 발전을 위해 큰 원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최 :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세계불교승왕청 CBC108. TV연합불교방송 일붕신문사

■ 문의 : 02)837-2003, 011-356-3427

◆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6대 임원진 명단 ◆

총 재 세계승왕 인왕 신판석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부 총 재 보 리 현 광 (대한불교달마선종 종정)
청 원 박수웅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법 각 지 오 (대승불교조계종 원로원장)
안신풍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회 장 의 륜 서주범 (근본불교조계종 창종주)

부 회 장 법 진 신승도 (호국불교효예종 종정)
청 암 도한수 (충남불교조계종 종정)
만 주 조성수 (한국불교대불종 총무원장)
심 향 법 장 (한국불교구산선문회 회장)
연 화 덕 산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총무원장)

자문위원 대 천 문연우 (한국불교지장조계종 종정)
월 담 성 인 (세계불교화엄종 종정)
향 덕 박승억 (대중불교조계종 종정)

회 원 법 안 이기욱 (통합불교아미타종 종정대행)
청 산 성 운 (대한불교천인종 종정대행)
일 응 김철우 (한국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법 정 구철회 (대원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은 곡 조병남 (한국불교극락조계종 총무원장)
원 각 한경수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해 광 문동춘 (대승불교달마종 총무원장)
대 성 김영기 (대한불교대성종 총무원장)
해 광 전충열 (한국불교자비종 총무원장)
원 공 유명곤 (현대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안 심 박영주 (종단세계선불교 총무원장)
혜 륜 백선권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장)
혜 봉 김일석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덕 정 이형덕 (대한불교참수행정각종 총무원장)
청 담 윤문봉 (한국불교내외종 대표)
법 정 덕 암 (대한불교정법종 종정)
지 법 반동환 (대한불교지법태고종 총무원장)
혜 덕 월 명 (대한불교여래조계종 대표)
관 행 정숙자 (대한불교관음성종 대표)

※연합불교방송/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홈페이지 참조



제 뿌리에서만이 제 나무를 푸르게 살게 할 수 있어

푸르게 살고 싶어요

질문: 선법가 중에 푸르게 살라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진정으로 사계절 없는 봄 속에서 내 마음의 푸르름을 잃지 않고 푸르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샘솟듯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는 왜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조상의 덕도 없어서 이 모양 이 꼴로밖에 살지 못하는가 하는 절망이 밀려옵니다. 스님,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 우리가 종교라는 것도 종교라는 이름 이전에 생활이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생활이 종교니까 그대로 생활 속에서 지혜를 넓히려면, 아주 못생긴 사람이든지 얕은 사람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하여간에 애라도 똑바른 말을 하면 귀담아 듣고 그것을 흘리지 말라 하는 거죠. 사람만 스승이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저 나뭇잎들도 봄이 되면 피어났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서 떨어집니다.

그래도 나무는 겨울 내내 하얀 눈과 비를 다 맞고 그 비바람에 조금도 끄떡없이 인내롭게 봄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이 마음을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는 게 있고 기다리는 게 있고 여유가 있어야 빛을 볼 수 있고 화목을 가져올 수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지, 그 인내로움이 없고 불끈불끈 그냥 화나는 대로 해 버린다면 그거는 포근한 화목을 가져올 수도 없거니와 재물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도 생각이 있거든요. 들어오려고 까딱까딱하다가 말입니다, 그 집이 시끄러우면 '에이! 이 집에 들어가 봤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그러니까 귀찮다!' 그러곤 딴 데로 가요. 이만물이 다 그러해서 스승이 아닌 게 없습니다. 나무를 봐도 스승이요, 풀 한 포기를 봐도 스승이요, 물 흘러가는 걸 봐도 스승이요, 집들을 올망졸망 짓고 사는 것도 스승이요, 비가 오는 것도 스승이요, 비가 안 오는 것도 스승이요, 모두가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그걸 보고 모두 배우라고 하는 게 팔만대장경 아닙니까? 책에 쓰여 있는 것만 팔만대장경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지금 듣고 보고 행하고, 공생(共生) · 공용(共用) · 공체(共體) · 공식화(共食化) 하고 돌아가는 이 자체 모두가 스승이자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망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망상을 칼로 자르듯이 끊는다면 망상이 끊어집니까? 그것을 물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없이! '흘러가는 물을 너희들이 아무리 잘라 봐라, 잘라지나!'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공생으로서 돌아간다는 그 자체를 알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돌아간다는 걸 알면 망상이라고 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인연이 돼서 내 몸뚱이 속에 있으니, 그것을 불가에선 숙명통이라고 합니다마는 '숙명통' 하면 그게 다섯 가지가 한데 합쳐진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인간에게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컴퓨터에 입력이 된 대로 지금 현실에 자꾸 나오는 것을 망상이라고 한다면, 그 망상을 끊는다기보다는 그냥 그 나오는 데다 되입력을 시키면 앞서 입력된 거는 없어지지 않느냐, 이게 하나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없어지는 것도 아닌, 즉 말하자면 일어났다가 꺼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끊으려고 애쓰고 잠을 몰아내려고 애쓰니, 잠이 몰아내지는 것이며 망상이 끊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물은 나같이 살라 하며 저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천초목은 초목대로 나같이 살라 하고 저렇게 푸르게 하고 있고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어떠한 애고나 병고, 즉 말하자면 세균성 업보성 영계성 인과성 유전성이 자체가 전부 마음으로 해서 오는 거다 이겁니다. 이처럼 전자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오는 모든 거를 재료로 알고 몽땅몽땅 갖다가 집어넣어 입력을 한다면 그것들을 녹일 수 있습니다.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놓고 또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그러고 거기다 놓는 겁니다.

나무뿌리가 말입니다, 제 나무의 뿌리가 제 나무를 돕지, 딴 나무의 뿌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복으로 만날 딴 뿌리에다가 달라고 빌어도 그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 뿌리에다가 "나, 지금 수분이 적어." 한다면 이 뿌리는 수분을 흡수해서 올리지만, 딴 뿌리에다가 "나, 목이 말라." 한다고 그게 목을 축이게 해 줍니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빌지 말라. 상대에게 기도하지 말라. 궁색하게 노예가 되지 말라. 지금 노예 노릇을 하면 세세생생에 노예가 된다. 내 뿌리에서 나온 싹이니까 내 뿌리만이 이 싹이 병통이 나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인간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뿌리를 못 보듯이 나무도 흙에 덮여서 자기 뿌리를 못 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뭐가 덮여서 못 보느냐? 무명이 덮여서 못 본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한마음 도리를 공부하면서 체험도 하고 감응이 되고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짐작이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물리가 터지는 거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모두가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싹이라면 뿌리가 있는데 그 싹이 뿌리를 믿지 어디를 믿습니까? 네? 딴 나무를 믿고 딴 이름을 믿고 딴 형상을 믿는데 에너지가 자기 나무로 가겠습니까? 그건 공덕이 하나도 없어요. 제 뿌리에서만이 제 나무를 푸르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 뿌리에서만이 너그럽고 지혜롭게 이끌어 가는 거고 물리가 터지게도 하고 깨치게도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모든 에너지를, 즉 말하자면 철분 황분 흙의 지분 등 모든 것을 위로 올려보내고, 나무는 공기력과 태양력을 흡수해서 또 내려보내고, 인간의 정맥과 동맥이 돌아가듯 이렇게 해서 자기 나무를 푸르게 살게 하고 깨치게 하고, 문 없는 문을 넘게 하고 빗장 없는 빗장을 쥐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있거늘 내가 항상 바깥으로 찾는다면 아무 공덕도 없고 이득도 없고, 만날 끄달리다가 이 차안 속에서, 즉 말하자면 어항 속에서 고기가 바깥으로 못 나가듯 그렇게 피안의 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차안의 세계와 피안의 세계가 백지장 하나 사이도 안 되는 것을, 한 찰나도 안 되는 것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관습 때문입니다. 먹어 보지도 못했고 맛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수박이라면 과감히 그냥 동강을 내서 맛을 보고 씨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그 씨를 되심어서 고다음 해에 수박은 되남고 되남고 해서 영원한 진리의 수박이라는 걸 알게끔 돼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근본 뿌리를 믿고 거기에다 모든 걸 맡겨 놓는다면 언제나 푸르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재사 방식에 혼돈이 옵니다

질문: 어느 절에서는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 하면서도 천도재를 올릴 때는 속가에서보다 더 수북하게 재물을 준비해서 재(齋)를 지내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다 먹을 수도 없는 음식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스님의 법문을 듣기로는 영가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지내는 스님들의 차원에 따라서 천도가 되고 재주들의 정성을 통해서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 말씀하고 이게 혼동이 옵니다.

답변: 혼동할 거 없습니다.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꼭 그렇게 해야만이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이 안심이 안되는 그런 근기를 가진 사람 앞에는 잘 차려 드려야죠. 안 그래요?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자기 먹는 밥 한 그릇을 놓고도 천도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아, 사람 근기에 따라서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도 잘못되는 게 없고 저것도 잘못되는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또 이것 보십시오. 사람이 상을 크게 차려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뭐 뭐뭐 비싼 걸 사다 놨는지 뭐 싼 걸 사다 놨는지 그걸 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다 놓은 것은 혼백도 다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 제사(祭祀)를 지내는데 며느리가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거 안되겠거든요. 남편이 돈 십만 원을 주는 걸 가지고 오만 원은 떼 놓고 오만 원 가지고 가서 장을 다 봐 왔단 말입니다. "여보, 장 봐 왔소? 어머님이 잘 잡숫던 것도 사오고?" 그러니까 "예." 그러기에 아들은 그런 줄로 알고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싼 거를 사다가 이렇게 상을 차려 놨어요. 그래도 그 아들은 그것을 의심 안 하고 그냥 지극한 마음으로 했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싼 거를 그만큼 해 놨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그만큼 차렸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꿈에 "얘야, 네가 싼 것만 요렇게 해다 놨으니 지금 너의 할아버지도 모두 계신데 내가 가져갈 것이 없느니라." 아, 그러거든요. 그러고 꿈을 딱 깼어요. 그래서 날더러 와선

☞26면으로 계속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창업을 위한 전문자격증 교육생 및 지부모집
제7기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월요일 반

교육기간 : 2010년 2월 20일 - 2010년 5월 22일 / 모집기간 : 매월 상시모집 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본부교육원 055-543-3155 / 부산해운대지부 051-757-9990 /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 호남본부교육원 063-254-5500 /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636-2972 / 광주교육원 062-672-5432 /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부모집-
현재 9개 운영 중 아래 9개 지부를 상시 모집합니다.
강원남부 / 강원북부 경기남부 / 경기북부 충청남부 / 충청북부 대전 / 인천 / 수원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선어록의 최고봉 임제록 강좌 및
참선실수 수강생 모집

◆ 개강일시 : 3월 22일 오후 2시
(매주 월요일)
◆ 대 상 : 스님, 일반인

무료 명상치료법회

◆ 대 상 : 각종 질병 및 비만 왜소한 몸 체질개선
◆ 일 시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3시 30분까지

접수처 : 임제선학원 ☎ 02)496-3952~3
서울 중랑구 망우 3동 120-7

buddhanews.com

붉다 검다 모른다 안다에 속지 말아야 해요

☞25면에서 계속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그러기에 허, 내가 웃었어요. 세상에 자기 마음먹는 대로 조상도 알게 돼 있고 우주간 법계에서도 알게 돼 있고 보살도 알게 돼 있고 부처님도 알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아직 진화가 되지 않은 어떠한 짐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시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을 통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그만큼 아는 사람이 이것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어 주니까 그때서야 그쪽에서 아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영령들도 그래서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도시킬 때 여러분이 상 하나 차렸다고 해서 그런 것만 생각지 마시고, 이 모든 걸 둥글려서 마음의 원을 그려서, 원으로서 그 원심력을 생각하면서 둥글려 놓는다면 이 원 속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일체가 다 있는데 아니, 거기에 뭐 그리운 게 있겠습니까? 이 세계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있는데 모자랄 게 뭐 있겠습니까, 원을 그려 놓으면. 그 원심으로서 제사를 지극하게 드린다면 아마 어디 좋은 데로 아니 다니는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절에서 천도재를 하거나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제삿상에 음식을 많이 차려 놓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왜 떡을 둥그렇게 몇 조각 해 놓으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반찬을 해서 놓고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도로 묶어 놓으려면 반찬들을 해 놓고 그렇게 뚱땅거리고 지내도 되고, 그렇지 않고 부처님하고 한자리를 하게끔 하려면 그냥 둥그렇게 떡을 하나 해 놓고 삼색 과일을 한 그릇에 이렇게 놓고 초 향을 켜고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살면서 지어 놓은 그 먹고 살던 습이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죽어서도 자기가 먹고 살던 그 생각이 나서 자꾸 뭘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먹지도 못하면서 먹게 해 달라고 하고 성가시게 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가시게 군다 하더라도 잘되기만 하면 좋은데 잘못됐으니까 성가시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 있는 양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떡을 하나 해 놓고, 지내는 사람이 떡 안에 다 한마음으로 넣어야 된다. 그리고 지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음' 하면 벌써 떡 하나예요. 떡 하나로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좁쌀 알갱이 하나에다가 일체제불의 마음을 다 넣어도 이게 두드러지지도 않으면서 똑 알맞고, 일체제불의 마음을 이 큰 그릇에다가 넣어도 또 크면 큰 대로 차고 작으면 작은 대로 차고, 아주 그렇게 여여하다 이 소립니다.

자손들이 부모에게 제사 지낼 때에 조상들이 살 때의 그 습기를 다 떼게끔 내 마음과 둘 아니게 만드세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상의 마음도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굴려서 놓으면 거기에서 굴려서 다 세척이 되듯이 깨끗하게 모두 나오죠. 왜, 세탁소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빨래가 돼서 나오죠? 그런 거와 같이 된단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그 떡 하나도 족하다 이런 말이죠. 이 떡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 먹이고도 떡 하나는 되남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마음 쓰는 자손들의 영령들 조상들은 그냥 항상 뷔페식 하는 데 가서 잡숫고 상점에 가서 항상 자기 가지고 싶은 대로 갖고 또 상점에 가서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입을 겁니다, 아마. 벽도 없고 봇장도 없으니까. 물도 없기 때문에 건너갈 것도 없고 오고 가고도 없이, 시간 공간도 없이.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을 넓게 쓰세요. 무슨 요거 하나 있다, 요거 차렸다 하면 영령들도 조상들도 요거 하나 차린 것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좀 넓게 가지세요.

모든 게 운명이고 필연 아닌지요

질문: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은 필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 몸을 이끌고 나가는 그 주인공도 태어날 때부터 저의 운명대로 이 필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닐까요?

답변: 내가 수차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짓고 산 그 차원대로, 즉 말하자면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 속에 들어가서 몸 하나를 받고 나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뼈, 어머니의 살을 받아서 몸 하나를 딱 받죠. 그럼 수십억 마리가 모였다가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지고 그 한 몸 받은 데에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의 악업이나 선업 즉, 그 의식 자체가, 업식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서 이 세상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의 인연에 따라서 좋게 한 것은 좋게 받을 것이고 언짢게 한 것은 언짢게 받을 것입니다. 모르고 저지른 것은 모르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지은 것은 알고 받게 마련이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 속에 그냥 수십억 마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식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때는 기쁘게도 해 주고 어떤 때는 잘되게 해 주다가도 어떤 때는 그 잘된 것이 망하게도 해 주고 어떤 때는 속상하게 해 주고 어떤 때는 병들게 해 주고 어떤 때는 남편하고 이혼하게 해 주고, 여러 가지로 고정됨이 없이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럼 그것을 고(苦)덩어리라고 이름하죠.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과거도 현실에 짊어지고 나왔으니, 짊어지고 나온 데서 나오는 데에 따라 되놔라 이거야. 자주 카세트 얘기 했죠. 카세트에 담긴 말도 내가 지금 또 집어넣으면 앞서 넣은 거는 없어진다. 그러니 연방, 넣으면 없어지고 넣으면 없어지고 넣으면 없어져서 그것이 과거에 어떠한 인과로 인해서 업을 가졌어도, 지옥고를 당해도, 악업을 지었어도 다 녹아들고 무너진다 그 소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듯이, 그렇게 나온 자리에다 되놓는다면 그 카세트에 넣는 것처럼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모든 걸, 업이 있다, 나는 죄가 많다, 이렇게 수많은 이름들의 업, 팔자 운명 이런 것들을 넣지 마시고, 팔자 운명이라는 언어도 붙이지 마시고 '내가 죄가 얼마나 많기에 이러나?' 하는 생각도 마시고 그런 생각이 나거든 그냥 자기 주인공에 맡겨 놓으세요. '모든 게 당신 속에서 나온 거니까 당신 알아서 할 수밖엔 없지.' 하고 놓고 모든 게 좋게 되면 '아, 감사하구나!' 하고 또 놓고 아, 그럭하라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게. 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두 과거에 지은 것이지 어떠한 물질이 아니에요. 자꾸 물질에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내 몸에, 내 가정에 다가오니까 일차적으로는 그것을 녹이는 데 이익이고 내 마음을, 내가 참나를 발견하는 데도 또 이익이고, 내 자식들을 이끌어 가는 데도 이익이고, 부부지간에도 이익이고, 모든 게 나 하나의 자가발전소에서 불 하나 켜면 내 아들이다 딸이다 뭐, 부부다 부모다 형제다 하는 데 가설이 다 돼 있거든요, 본래.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치켜 올리기만 하면 그쪽으로도 다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다 녹아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 **내 마음으로 창살 없는 감옥에다 내 몸을 옴쭉 못하게 하는 좁은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런 거를 탁 털어버리세요**

그러니 이것이 생활 불교며 생활 참선이며 바로 이것이 좌선도 되고 참선도 되지요. 마음 편안하면 좌선이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그 창살 없는 감옥에다 내 몸을 꼭 훑여 넣고 옴쭉 못하게 하는 좁은 마음을 갖지 말고 그런 거를 탁 털어 버리세요. 마음은 벽도 없고 지붕도 없고, 우주도 갈 수 있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 집엘 갈 수 있다, 볼 수도 있다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내 가정과 내 몸과 내 자식 이세를 튼튼하게 하고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남을 원망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나라는 아집을 갖지 말고 모든 것은 내 탓으로 돌리면서 모든 걸 주인공에다 놓는다면, 그리고 부지런히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그러한 발전적인 여러분이라면 아마 자유인이 될 겁니다.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질문: 우리가 살다 보면 물건과 물건, 사람과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의 불행은 많은 부분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괜히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좀더 나은 선택과 결과를 생각하다 보면 잠도 오지 않고 날을 꼬빡 새서 다음 날 일을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견주는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는지요?

답변: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비교를 하죠. 좋고 나쁘다 비교를 하고 예쁘다 또 밉다 '아이고 저건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 비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수십억 마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의식이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내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자꾸 그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뻐하든지 미워하든지 거기에 자기가 충동을 일으킬 게 뭐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비교해서 나가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생각했으면 그대로 그냥 놔두고 거기에 자꾸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박을 앞에 놓고도 말입니다, 하얗다 파랗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속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걸 깨뜨려 먹기 이전에 그거에 속지 않아야 그걸 먹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파랗다 하얗다 붉다, 이런 말에 속지 말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이 주인공에 놔라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왜 거기에 끄달리랴. 거기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러고선 내가 그렇게 끄달리지 않고 속지 않는다면 수박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요, 어떤 때는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엉뚱한 생각으로 갑니다. 그래 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또. 이게 참,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 나도 나로 인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법은 없습니다. 단하나, 어떡하면 쉽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 드려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이 도리를 알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생각을 하다 보면 시도 읊어지고 어떤 때는 눈물도 흘려지고 말입니다, 아주 먼 산을 바라보고 '인간은 왜 먹고 살아야 해? 먹고 사는 거 때문에 모든 게 죽이고 죽고 쫓고 쫓기고 이러지 않나. 이런 처참한 일이 어디 있나.' 하고선 나 혼자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나 인제는 좀 다릅니다. 속지 않으면 모두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전자에 살던 그 자기가 말했고 행했고 한 것대로 입력이 돼 있는 게 지금 현실에 나오는 거니까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뭐 붉다 검다, 모른다 안다 이런 그 모두에 속지 말고, 자기는 자기가 모든 걸 못하든지 하든지 지켜보고 지켜 주고, 꽁지에 꽁지를 물고 밤새도록 잠 못 자지 마시고, 그럴 때는 '에이그,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 너 알아서 해라.' 그러곤 탁 맡겨 놓고 그냥 '잠 좀 재워! 네가 있다면 잠 좀 재워, 좀.' 이러고선 그냥 자는 거죠, 뭐. '네가 없다면 모르지만 네가 있는데 잠 좀 재워!' 이러고선 그냥 자는 거죠.

옛날에 어떤 스님이, 나라의 국사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아주 재세를 부리고 그냥 스님들을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거기에 왕림을 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고?" 하고 그 국사 스님한테 물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스님께선 그렇게 풀밭에서 애를 쓰십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 또 "내가 어디 있는고?"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 스님은 왜 들판이고 산이고 그냥 길도 없는 데를 그렇게 다니십니까?" 하더랍니다. 그래서 잠자코 한참 있다가 또 "내가 지금 어디 있는고?" 하니까 깜깜한 겁니다. 문을 탁 닫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하죠. 그러니까 "요 요망한 거!" 하고 그냥 주장자로 한 대 얻어걸리고선 그냥 도주를 하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것도 공했고 주장자라는 이름조차도 공했으니 때릴 것도 없고 때리지 않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건 우리가 그대로 여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모두 끄달려서 잠 못 자고 병들고, 또 이 회사를 하는 것도 그래요. 그게 망했다고 해서, 장사를 하다 망했다고 해서, 공부를 하다가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낭패로 생각을 하지 말고요, 모든 건 거기에 속지 말고 그건 그것대로, 그 생각이 나오는 건 그것대로 그냥 그 주인공에서는 모든 게 과거에 입력된 게 나오는 거지 지금 현실의 것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놔두고 나 할 거를 꾸준히 해 나가세요.

우리가 위가 따로 있고 아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없어도 아니 되고 발이 없어도 아니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며 평발이라고 했습니다. 평손! 이거 소홀히 생각할 게 아니죠. 그러니 아래면 어떻고 위면 어떠냐. 이게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 끝마쳐서 한번 뒤집어서 양면을 다, 무의 법 유의 법을 한데 합쳐서 이 세상에 내놨을 때는 크나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이지 빛을 주는 거와 한가지입니다. 광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나왔다가 그러한 거 하나를, 정말이지 모든 사람한테 밝고 밝은 광력의 그 길을 틔워 줄 때 그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속지 마시고, 속아서 잠 못 주무시지 마시고 또 속아서 병들지 마시고, 또 가정도 화목하고 그래야 할 텐데 속아서 그냥 서로 으르렁으르렁하고 껄쭉껄쭉하게 살지 마시고요, 우리 다복하게 한 생을 즐겁게 이렇게 삽시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동양정통침술전수

得醫道之傳子 階以好生爲心
不務聲名 不計貨利 不忍人識能
不論恭慢 惟知求人之命 愈人之病已已
醫學入口

최고의 동양 정통 침술 및 특수
침법을 전수코자
제한된 인원을 모집합니다.

◆개강일시 : 1차 2010년 3월 5일 (금) 13:00
2차 2010년 3월 9일 (화) 13:00
◆모집인원 : 5名(집중교육)
◆교육기간 : 4주, 20시간
◆교 수 : 한국 최고의 침구학박사 직접강좌 및 최고의 교수진
※ 단 침술 및 특수침술 완전 정복

동양정통침술연구원 덕송 합장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04번지 풍림빌딩 405호
02)713-7798 / 010-5250-7798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2010학년도 1기생 모집
김동현 교수의 사주명리학교실

모 집

동양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음양오행의 변화와 역(易)의 원리와 대자연(大自然)의 이치인 천(天), 인(人), 지(地) 사상을 통한 자아(自我)발전과 사주학을 통한 각자의 인연(因緣)의 법칙을 알고 모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주명리학을 비롯한 육효학, 관상학, 성명학, 궁합, 택일 등을 기초부터 실전 영업에 이르기까지 응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는 특별과정입니다.

입학안내 3학기 과정 (명리+육효+관상+성명)

반 \ 일시	개강일시
수요일	3월 10일 14:00~17:00(3시간)

※수강료 : 30만원 (1학기 15주)
※전과정 초급부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 자 격 : 성인남녀 / 학력제한 없음
◆ 입학정원 : 각반 3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사진1매
◇ 접 수 처 :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과
※특 전 • 국민대학교 교육원 원장수료증
• 명리 민간 자격증 수여 (신청자에 한함)
• 문화센터, 각종 교육원 강사 지원
◆ 교 수 진 : 현 대학원 대학교 교육원 명리 책임교수
◆ 위 치 : 지하철4호선 길음역 3번출구 (버스환승 171번 , 1117번)
■ 문 의 : 02) 910-5193 ~ 6
■ 담당교수 : 017-704-8373

國 民 大 學 校
(평 생 교 육 원)
■ 서울 성북구 정릉동 861-1

사 설

정부가 경청해야 할 4대강 심포지엄

이명박 대통령 취임한 지 2년이 지났다. 3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매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를 직접 챙겼다. 지난해에는 친기업 · 부자정책에서 친서민 쪽으로 방향을 선회, 경제난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감소하는 정책의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 2년에 대한 평가는 후하지 않다. 경제 부문에서는 대체로 기본은 했다고 평가했지만, 정치와 사회 부문에서는 오히려 뒷걸음질했다는 평가다. 세종시 문제와 4대강 개발의 일방적 추진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여야, 여여, 대통령과 시민단체, 지역, 이념에 따른 갈등이 그치지 않았다.

특히 4대강 문제는 70%에 이르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이다.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하고, 4대강을 살리는 지혜를 국민들에게 구해야 한다. 누구도 4대강을 살리자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국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고, 강을 파내고 둑을 쌓는 토목공사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에 더 숙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내일 불교환경연대와 에코붓다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4대강 개발, 다른 대안은 없는가'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이 열린다. 두 단체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한 대안 찾기에 힘을 쏟아왔다. 그 결과물을 발표해 각계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불교적 · 환경생태적 · 사회문화적 ·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와 여야 정당에서도 경청하고 강을 살리는 대안이 진정 무엇인지 숙고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갈등의 불씨 될까 염려스럽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25일 열린 회의에서 임기 만료되는 2명의 동국대학교 이사를 뒤이을 후보를 선출했다. 그런데 자칫 종단 내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조계종 내 특정계파에 속한 스님들이 동국대학교 이사로 진출하려는 정치적 의도의 선출이라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사후보로 뽑힌 선각 스님과 종호 스님은 보림회에 속해 있다.

당장 월정사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출자 사찰에 이사를 배정한 것은 오랜 불문율이었던 만큼 동국대학교 설립에 가장 많은 재산을 출연한 월정사의 기여도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며, 재선출을 요구하고 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이사후보를 선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투표까지 갔다는 것을 보면 기준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기보다는 계파간 힘겨루기가 격렬했음을 짐작케 해준다.

최근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조계종단 정치의 연장선에 놓여 늘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일이 또다시 소용돌이의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민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이지만, 힘의 논리이기도 하다. 불문율이 늘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 관행을 만들면서 다수의 힘에 기대어서도 안 된다. 종단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비움'이 있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 세상보기

홍광표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 소장

바람직한 불사를 위한 조건

신라시대에 지어진 황룡사에서는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불사가 진행됐다. 이것을 보면 사찰은 그 형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기체와 같이 계속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찰의 변화는 불사를 통해서 이뤄지게 되는데, 어떤 사찰이든지 시대의 요구와 사찰이 가진 기능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크고 작은 불사가 없을 수 없다.

최근 사찰에서 진행되는 잘못된 불사에 관한 논의가 다시금 세간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잘못된 불사라는 것은 사찰이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진정성이나 완전성을 훼손한다거나 사찰경역 내외부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불사를 말한다. 사찰의 불사는 필요하되 잘못된 불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불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공감하는 기본적인 명제인 것이다.

사찰환경의 훼손이 반드시 잘못된 불사에 의해서만 일어나지는 않는다. 사찰주변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주체에 의한 환경훼손이나 기존에 유지돼 온 음식점이나 놀이시설 같은 상업적 행위 역시 사찰환경을 훼손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사찰의 필요나 요구에 의한 불사에서 비롯되는 사찰환경의 훼손이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찰이 담당해야 하는 기능이 달라지고 있다. 신도들이 늘어나면서 건물이나 공간의 유형이나 용량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찰에서 요구하는 불사의 필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사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불사를 진행하는 것은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지혜로운 불사의 자세와 방향 몇 가지를 제시해본다.

첫째, 과거와는 달리 이제 사찰의 성격이나 기능을 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는 전문성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사찰 역시 전문화되어야 하는데, 총림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저런 기능을 모두 갖춘 백화점식 사찰은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사찰의 역사와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가장 자신 있는 기능을 담고 불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찰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사찰의 원형을 훼손할 정도의 지나친 불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둘째, 문화재보유사찰이나 전통사찰의 경우 불가피하게 새로운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승되어 내려온 영역과 공간적, 시각적으로 분리된 장소를 택하여 불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기능은 새로운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전통과 현대가 상충되지 않게 되며, 경관적으로도 부조화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문화재보호법이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사찰환경의 보존과 연관되는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불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찰에 필요한 불사가 있을 경우 반드시 문화재보존영향 사전검토나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불사를 진행한다면 불사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여법한 불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넷째, 종단차원에서 가칭 불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하여 종단소속사찰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각종 불사를 사전에 심의하고 관리 감독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될 경우 불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방어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불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법률적, 행정적 규제와 사찰측의 요구를 중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마가 스님
천안 만일사 주지

박성광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강남교회가 불교를 깨부수는데 앞장서자!…불경에는 성령의 감동도 없고 귀신들만 있어!…스님들도 신학대학 가서 목사스님 되는 거여!…스님 5만 명을 전도해서 전부 기독교 신자로 만드는데 앞장 설 거다!"

강남교회 박성광 목사님이 얼마 전 자신이 당회장으로 있는 교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답니다.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목사님 말처럼 서울 최고의 강남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입니다. 인용하기에도 민망한 말들입니다. 그 자리에 참여한 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며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쳐댔답니다.

몇 년 전 기독교 신자가 사찰에 난입해서 불상을 파괴하고, 스프레이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리고, 불을 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종교를 연구하는 여러 나라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학회의 주제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그 때 일을"일부 광신자들이 그러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 일이 생각납니다. 허나 이번 일은 보통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조만간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종교를 이유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종교간 무력충돌을 빚어 수백 명의 사람이 죽고, 수백 채의 종교건물이 부서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무력충돌까지 이른 사건을 살펴보다 보복 등의 이유로 되풀이된다는 것을 알았고, 갈등의 당사자로 늘 유일신교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방적인 가해와 피해는 있을지언정 서로가 충돌하는 양상이 없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를 두고 종교학자들은 관용을 품성으로 불교가 우리나라 종교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식을 벗어나는 종교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일부 종교의 막나가는 것을 제어하고, 갈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몇몇 사람에게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반 정도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유일신을 믿는 목사로써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하다는 것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연일 전해주는 금메달 소식에 즐거웠는데, 미국 선수 중에 오노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는 우리에게 반칙왕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허나 미국에선 국민적 영웅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서울방송의 한 스포츠 해설위원한 사람이 중도에 그만 두었습니다. 괴성을 지르는 해설에 시청자들의 항의가 자자했던 터인데, 생방송 중에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어처구니없는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사과문을 내고 본인이 사퇴해 이 일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박성광 목사님이나 그외 타종교를 비방하고 자기 것만 옳다고 하는 분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종교가 없는 분들로부터 비난을 받지만, 자기 교단에선 영웅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지도자가 한번 내뱉는 말에 대해 그를 따르는 신자들은 깊이 사유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유일신교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으로 쇠뇌가 되어버렸기에 그냥 "믿습니다!"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 저지릅니다.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로 떠들고, 지나가는 타종교인들까지 "예수 믿어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염치없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불교가 목사님의 놀림 대상이 될 정도로 추락했구나! 공부 잘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펴야 되겠구나! 타종교를 좀 더 알고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되겠구나! 등등 긍정의 마음을 갖습니다.

박 목사님 말에 너무 크게 반응 할 필요 없습니다. 박 목사님은 오히려 1등 포교사입니다. 100명의 사람에게 물어봐도 기독교의 독선을 얘기하지 동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자들도 박 목사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 거립니다. 다만 맹목적인 일부 신자들이 큰일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포교하라는 채찍질로 삼읍시다. 박성광 목사님이 탐 · 진 · 치 삼독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화제의 신간
누·구·나·쉽·게·이·해·하·고·배·울·수·있·는!!
핵·심·사·주
1천여 년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정법 학설 !!
四柱學의 초보자나 학생, 전문가, 걸흔 중개사는 꼭 배워야하는 四柱學의 秘傳으로 누구나 이 책 한권으로 한번만 읽어도 쉽게 專門家가 될 수 있도록 核心만을 간추렸다.
대대로 수제자들에게만 전해져온 사주풀이의 비법을 공개한 이 책은 기존 대부분의 사주풀이 방법을 완전 뒤집은 진정한 사주풀이의 혁명적 秘書가 될 것이다. 특히 여자사주와 궁합의 원리는 한국 古代 道人들로부터 秘傳으로 傳受되어온 秘法으로 天氣를 누설한 四柱學의 革命을 가져 올 力作이다.
이젠 천기를 누설 한다 !!
기존의 사주학 학설로는 오직 개인의 숙명의 귀,천 만을 알 수 있고 미래 운명의 예측은 50여%에 미달하고 전혀 반대되는 운명을 예측하는 오류가 있다. 본 "핵심사주"는 1천여 년 만에 사주학의 올바른 정법 법칙을 완성한 역작이다!!
왜 핵심사주인가.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최초로 공개되는 궁합의 비법!!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鄭炳玉 博士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25,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이제 당신도 점술가가 될 수 있다!
역술무속인들도 숨겨놓고 본다.
천기가 누설된다고 하여 나라에서 금기시켰던 자미두수! 앉아서도 십리를 알 수 있는 고산의 자미두수가 당신의 운세를 알려 주는 것은 물론 당신을 귀신도 곡하는 신통한 점술가로 만들어 준다.
◆ 한국별점 자미두수가 당신의 운세를 …
이 학문은 고대 중국의 진희라는 사람이 기도 중 천기를 받아 창안한 성리학이다.
특히 천지조화를 터득하고 인간의 부귀빈천과 길흉화복을 예지 타의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 정확성이 뛰어나며 귀신도 울고간다하여 금기된 적도 있다. 인연있는 후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 지금의 자미두수로 오늘에 이르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 여러분께 좋은 운명의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高山 엄창용 지음/4×6배판/양장본/45,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신국판/청산 김성진 지음/35,000원
新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 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0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이현진 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신년맞이 현불샵 특별전

주의!! 서랍장 큰 충격을 주지 마세요.
사용하기 전 7일 이내 반품 가능합니다.

현불샵 4종 특가 SALE www.hyunbulshop.co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전통오동나무참숯반닫이에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세요!!!

옛고방 전통오동나무 참숯반닫이
(압축 참숯부착)

대형 size



- 대한민국 명장 가풍국선생(명장04-14호)께서 디자인 하시고 직접 검수 후 검수필증 부착.
- 습기를 피해 쾌적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고급 반닫이(숯판부착).
-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옷이나 수의도 안심보관.
- 제기 및 제수용품 보관함, 보석함, 고가의 도자기 등 귀중품 보관으로도 OK!!!


제기 등 제수용품 수납한 모습


수의 등 수납한 모습

· 가 격 : 대형 ~~₩238,000~~ ⇨ ₩198,000 (17% DC)
[가로 73cm × 세로 41cm × 높이 65cm]
소형 ~~₩198,000~~ ⇨ ₩158,000 (17% DC)
[가로 59cm × 세로 41cm × 높이 65cm]
· 재 질 : 오동나무, 오동나무합판(뒷면), 신주장식
참숯판(굴참나무 100% 국내산)
· 원산지 : 한국 · 제조원 : 옛고방

전통 오동나무 참숯 반닫이의 특징
고급 가구재인 오동나무와 참숯판을 접목시켜 **습기제거, 탈취, 항균 등의 기능**을 더한 고급 반닫이입니다.
더운 여름 장마철에 습기때문에 보관하기 어려운 **수의, 제기, 옷, 서류 등** 귀중품 보관이 용이합니다.
집안 어디에 놓아도 보기좋게 어울리는 인테리어 효과 만점입니다.

전통오동나무 앤틱원목 수납장
(압축 참숯부착) – 슬림형



- 재질 : 오동나무(원목), 참숯판(굴참나무 100% 국내산)
- 규격 (가로×세로 ×높이) : 42×41×90 cm
- 서랍 (내부) : 32×32×14 cm
- 전통오동나무 원목수납장 용도
  · 아이들 옷, 기저귀, 속옷, 양말 등의 수납
  · 어른용 속옷, 양말 등의 수납 · 욕실 수건 등의 수납

■ ~~217,000원~~ → 167.000원 (23%DC)

전통오동나무 참숯 850 서랍장
(압축 참숯부착)



- 재질 : 오동나무(원목), 참숯판(굴참나무 100% 국내산)
- 규격 (가로×세로 ×높이) : 85×14×50 cm
- 서랍(내부) : 32×32×14 cm
- 전통오동나무 춤숯 서랍장 용도
  · 아이들 옷, 기저귀, 속옷, 양말 등의 수납
  · 어른용 속옷, 양말 등의 수납

■ ~~217,000원~~ → 167.000원 (23%DC)

희담석 1인용 매트 (슈퍼싱글 · 싱글)

- 내용물 : 희담석 60%, 제오라이트(Zeolite) 40%
- 겉재질 : 모노망사, 면(코팅처리)
- 크 기 : 1000mm × 2000mm
- 무 게 : 약 11kg
- 사용처 : 돌침대, 매트리스, 전기매트, 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희담석의 에너지가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 뒷면의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 제품설명 : 희담석의 가장 큰 특징은 상온에서 탁월한 에너지 방사 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원석 중에서도 원적외선의 질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매트용 패드는 수면시 희담석의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립니다.
- 세탁법 : 맑은 물에 10여 분간 담가 희석 알갱이가 물을 머금으면 울세제를 조금 풀어 손세탁 하여 그늘 진 곳에서 건조 시킵니다.

*주의: 처음부터 세제를 넣으면 희담석 알갱이에 세제가 스며들어 좋지 않습니다.



■ ~~400,000원~~ (슈퍼싱글)
344,000원 (14%DC)
■ ~~350,000원~~ (싱글)
301,000원 (14%DC)



영봉(해종) 스님은
1990년 부처님오신날 세계최초 성직자 신분으로 히말라야 메라픽(6750m)을 등정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20여 년째 안나푸르나, 킬리만자로 등 세계 고산등정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세종한국문화언어교육원'을 설립 현지 가이드 셀파 포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영봉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

세계 최고봉 16좌 가운데 10좌를 한 눈에 볼 있는 곳 히말라야 트레킹의 베스트 코스 피케이봉(4200m)을 오르는 동안 누구나 수행자가 되고 누구나 깨달음의 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팔 카트만두에 영봉스님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과 한국내 영봉스님 후원회 '히말라야의 꿈'이 공동 진행하는 제2차 영봉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성 트레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참 안내

- ◆일 시 : **2010년 4월 9일 (금) ~ 23일 (15일)**
- ◆코 스 : 인천공항 대한항공 직항 → 카트만두 → 지리 → 시발라야 → 반달 → 마일리 → 불불레 → 베이스캠프 → 피케이봉 정상 → 준베시 → 반달 → 시발라야(의료봉사) → 지리 → 카트만두(시내관광 등) → 인천공항
- ◆인 원 : **30명 선착순.** ◆접 수 마 감 : **4월 2일 (금)**
- ◆참 가 비 : 287만원 (비자비 5만원 별도) ◆입 금 계 좌 : 718202-01-142493 (예금주 : 임연태)
- ◆사전설명회 : **4월 3일 (토) 오후 4시** (장소 - 개별공지)
- ◆문 의 : 임연태 (히말라야의 꿈 사무총장) **017-236-5769**

공동 주최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 / 히말라야의 꿈